



10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10 호

(루계 제 612 호)



◆◆◆◆◆◆◆◆◆◆ 차 례 ◆◆◆◆◆◆◆◆◆◆

| | |
|------------------------------------|----|
|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영원한 동행자의 대오 | 4 |
| 백두산형의 위인 김정일 | 8 |
| 우리를 부러워하라..... | 9 |
| 춤을 추자 | 11 |
| 사연깊은 백날사진..... | 12 |
| 강산도 환호한다..... | 13 |
| 하늘길을 따라 | 14 |
| 내 삶의 천만리에 새기노라..... | 15 |
| 기적소리는 계속 울린다 | 18 |
|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 30 |
| 최후의 승리는 오리라(외 2 편)..... | 31 |
| 인민들에게 혁명적랑만을 안겨주시며..... | 33 |
| 밝은 앞날 | 35 |
| 이날에 살자..... | 37 |
| 푸른 거목 | 38 |
| 어머니당에 대한 생각..... | 40 |
| 병사의 군복에 대한 생각 | 41 |
| 나의 작가생활을 더듬어 | 42 |

| | |
|-------------------------------------|----|
| 꿈과 현실 | 43 |
| 향도의 자욱을 따라 6 천리 | 45 |
| 영웅과 고향..... | 46 |
| 백두산 3 대장군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할 우리의 하늘 | 47 |
| 백두산 바람..... | 50 |
| 장하다, 우리 병사들 | 64 |
| 어머니는 행복하다..... | 65 |
| 한마음 | 73 |
| 고향이여! 축복해다오..... | 74 |
| 병사들처럼 사랑하시라..... | 74 |
|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창조 | 75 |
| 치마주름 | 79 |
| 3.8 국제부너절 새벽에(외 1 편)..... | 80 |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영원한 동행자의 대오

-조선작가동맹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지금 온 나라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환희에 넘쳐있는 뜻깊은 력사적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조선작가동맹 창립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주체35(1946)년 10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작가동맹을 창립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올바른 령도를 받으면서 진정한 창작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나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작가들의 운명개척과 민족문학발전에서는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작가동맹이 창립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모두는 일찍부터 민족문학발전과 작가들의 운명개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와 단계마다 가장 올바른 문예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작가들에게 참다운 창작의 길,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또한 우리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발전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게 된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우리 혁명의 길은 순탄치 않았으며 그앞에는 수많은 시련과난관이 가로놓여있었고 우리 작가들의 생활에서도 곡절과 풍파가 겹놓였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발전하여 온 전로정은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우리 작가들의 처지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나고 그들의 운명이 빛나게 개척되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다. 조선의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으며 수령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한 세상천지가 그 어떻게 변하고 시련의 바다가 막아선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로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

고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들이 스스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되어 시대와 력사 앞에 지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지난날 민을데 없고 의지할데 없는 식민지 작가로서 온갖 굴욕을 강요당하며 수난 많은 민족의 비가와 오욕의 국치일가를 불러야 했던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서 수산에 찬 인생행로에 중지부를 찍고 참다운 참다운 민족문학창작의 주인으로 자라났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대오의 형성과 성장발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사와 직접 잇닿아있으며 조선혁명의 승리적로정과 결부되어있다.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서 작가들이 노는 역할과 그들의 운명문제는 전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작가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작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테리정책과 올바른 문예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에 문학예술인이 없다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을것이며 또 그런 사회란 있을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문학예술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발전에서 문학예술인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큼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인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식민지 지식인 작가들의 처지와 특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지식인들을 조선혁명의 기본력량의 하나로 내세워주시였으며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우리 혁명의 첫 대오를 꾸리시던 간고하던 시기, 혁명앞에 다진 맹세 번치말데 대한 뜻깊은 글발로 열혈의 혁명시인을 뜨겁게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믿음, 그렇듯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가 있었기에 우리 작가들은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작가사이의 땀해야 땀수 없는 혈연적누대에 기초한 혼연일체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새로운 민족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각지에 흩어져있던 오랜 작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그들모두가 자기의 창작적 재능과열정으로 새 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새 사회 건설의 어려운시기 작가들을 참다운 민족문학창작의 길에서 떼내여 우리 작가력량을 약화시키려고 음모하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넓은 포용력과 독창적인 정책으로 작가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하기에 오랜 작가들이 주저없이 자기 운명을 우리 당에 의탁하고 당을 따라 나아갔으며 남조선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적들의 갖은 위협과 공갈, 회유를 물리치고 사선을 넘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품으로 찾아왔다. 당과 수령의 절대적이며 무한대한 믿음과 극진한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오랜 작가들은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매우 어려웠던가운데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받들고 로동자, 농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편서사시 **《백두산》**, 장막희곡 **《뢰성》** 등을 비롯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수많은 작품들과 가요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장편소설 **《땅》**, 서정시들인 **《푸른 벌로 간다》**, **《농촌위원회 밤》** 등 수많은 작품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보람찬 창작의 길을 걷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서 나온 창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작가들을 굳게 믿으시고 친히 종군작가로 파견하여주시였으며 온나라가 재더미로 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가들의창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민족문학건설의 참다운 역군이 되어 혁명적작가의보람찬 삶과 행복을 체험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한목숨 바쳐 보답하는것이 응당한 도리라는것을 가슴깊이 자각하고 펜을 총으로 바꾸어쥐고 용약 전선을 탄원하여 종군작가로서 영웅한 인민군대오와 함께 희생을 무릅쓰고 멀리 락동강계선까지 나가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하는 작품창작으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승리로 고무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후천리 험산준령을 넘고넘어 당중앙을 찾아왔다. 전시가요들인 **《결전**

의 길로》, **《전호숙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우리 님 영웅되셨네》**를 비롯하여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 **《불타는 거리에서》**, **《이 사람들속에서》**, **《증오의 불길로써》**, 종군기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 단편소설 **《회신속에서》**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수많은 작품들은 우리 작가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간고한 시기에도 우리 작가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부족하던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가들의 창작생활조건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시면서 그들의 창작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작가들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의 전투적호소들 심장으로 받들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문학으로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붓을 중시하고 작가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튼튼히 키우는 사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들 주체사상화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더욱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라고 독창적으로 규정하시고 우리 작가들이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작가의 필봉이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특히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자면 그들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작가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실속있게 하고 창작과정의 끝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터운 정치적인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과 밀접히 련결되고 문학은 당의 사상적무기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 모두를 자신의 곁에 더욱 가까이 세워주시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이겨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길을 함께 갈 혁명동지로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이 한없이

뜨겁고 진실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이의 믿음과 사랑에 심장을 불태우면서 아버지장군님의 손길을 참된 삶과 투쟁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살며 싸워나갈 각오밑에 주체문학창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 작가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 가운데서 핵을 이루고있는것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시고 삶의 전부이신 21세기의태양 **김정일**동지와 주체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지난날 참다운 혁명의 빛을 지니지 못하고 천대받고 억압받고 수모당하던 우리 작가들에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진 값높은 정치적생명과 주체의 빛을 안겨주시고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주체의 인간학의 참다운 창조자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작가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주체문학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전체 작가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지배하고있는 기본품성이다. 위대한 령도자와 혼연일체로 굳게 뭉쳐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신념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거나 깨뜨릴수 없는 삶의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주체문학의 찬란한 오늘도, 승승장구할 밝은 미래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는 철석같은 믿음과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장군님께 맡기는 투철한 립장, 자기 당과 자기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이 이끄는 문학창작의 한길에서 한생을 빛내어나가려는 혁명적각오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속에 맥박치고있는 고결한 사상감정으로서 그 어떤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흔들릴수 없고 변할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다. 바로 그리기에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앞길에 시련이 겹쌓이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 조성될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결사옹위하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분연히 떨쳐일어나고있다. 국제적으로 반사회주의의광풍이 전례없이 우심하게 불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환성》을 울리며 우리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을 때 우리 작가들이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편지를 올려 사상의 결사대가 되려는 길의 더욱 굳게 다진것은 바로 장군님께 영원히 자기 운명을 맡기고 영광의 길도, 시련의 길도 함께 걸으며 끝까지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작가들의 드물지않는 신념의 발현이었다. 항일의 혈전만리 얼음을 깨물며 가야했던 고난의 행군이 오늘의 《고난의행군》, 강행군으로 이어져 중중첩첩 시련의 바다를 헤쳐야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가는 길 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수령결사옹위의 노래,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엮어나가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세기의 령마루를 넘어 21세기에로 힘차게 울려가고있으며 서시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태양송가가 천지 진감하고있다. 또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과 《충성의 한길에서》의 장편소설들은 백두산3대장군의위인상을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으로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이렇듯 수많은 수령형상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개화만발하는 우리문화의 참모습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이 력력히 비껴있는것이다.

참으로 오늘 우리 작가대오는 자기 령도자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국보로 되고있으며 이러한 충실하고 미더운 작가대오가지고있기에 우리의 주체문학은 더욱 찬란히 꽃피어나는것 이다.

뜻깊은 장림기념일을 빛는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안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문학을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21세기에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다.

자주의 새 력사적항로에 첫 닻을 올린 그 기슭에서부터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를 바라보는 령마루에 올라섰다. 류레없이 꼭 절 많은 금세기들 우리 혁명과 함께 승리적으로 기세 좋게 치달아오른 우리 문학은 주체문학의 새 력사적시대로 빛날 새 세기를 락관에 넘쳐 전망하며 력사적전환점에 서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지나온 반세기의 빛나는 로정을 새긴것처럼 희망찬 21세기에 주체사실주의기치가 지구를 세차게 휘날리게 하여야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으로 선도하는 주체문학의 전진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도래하는 새 세기에 주체문학의 승리적전진은 전적으로 우리 작가들의 준비여하에 달려있다. 문학창작의 주체는 작가들이다. 창작의 주인이며 결정적담당자인 작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창작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서 문학창작의 성과가 담보된다.

우리 문학은 사람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

오리기 위한 당사상전선의 주요한 부분이며 현시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한 전선도 우리 문학분야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반동들은 반사회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사상문화적 공세를 강화하는데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문학부문을 튼튼히 지켜나가자면 우리 작가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주체문학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역사적경험은 사상이 변질될 때 로동계급의 문학도 변질되고 종당에는 부르조아황색문학의 진창속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사상의식의 반영이다. 우리 당은 문학창작에서 사상론을 철저히 관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은 당의 사상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언제 어디서나 확고한 사회주의신념을 지니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모든 작가들은 투철한 수령관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혁명의 수령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공산주의도덕관을 가슴깊이 새기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수령으로, 삶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라고 만대에 빛내어나가야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운명 이시고 주체문학의 찬란한 미래의 상징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떠나서는 우리도 조국도 없고 주체문학의 미래도 없으며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장군님의 사상과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웠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승리의 기치, 성스러운 붉은기를 높이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융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붉은기문학의 기치를 더욱 역세계틀어잡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붉은기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과 령도자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빛나는 귀감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창조에 사색과 탐구를 다 기울여야 한다. 오늘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문학작품에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누린 최대의 영예이며 특전이다. 모든 작가들은 아직도 인류사회가 맞이해보지못했고 인류문학이 대상해보지 못한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창조함으로써 시대와 력사가 안겨준 이 특전을 더욱 빛나게 하여야한다.

모든 작가들은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투철한 수령옹위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발휘하여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기상과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문학작품의 형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문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데서 관건적 고리이다.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이 바라고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니고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오늘 문학작품에 대한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는 비할바없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을 창조하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각을 안고 창작실무적자질을 끊임 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떨쳐일어나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초를 아껴가며 완강한 의지로 창작적재능을 더욱 련마하여 세계적인 명작들로 주체문학의 위력을 떨칠수 있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작가들의 창작생활기풍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 항일혁명선열들이 심장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풀뿌리와 나무뿌질로 끼니를 에우고 풍찬로숙하면서 오직 혁명을 위해 한몸바쳐 싸웠던것처럼 그리고 지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군작가들이 화선천리 불타는 고지와 전호가에서 멸적의 총창이 되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락과 영달을 바라지 않으며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참다운 집단주의적 생명관을지니고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아야한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 강행군의 보

폭을 같이하며 우리 시대의 숨결과 본질은 심장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조선인민군창작가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쇄소리나게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 온갖 역풍을 맞받아 헤쳐나가 투쟁과 위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 온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고 결출한 정치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며 우리 문학은 이 위대한 현실을 젖줄기로 하여 언제나 품만한 형상으로 위용을 펼쳐가리라는 신념에 넘쳐 새 세기를 전망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투쟁은 간고하지만 그것은 **김일성**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고 빛내이는 투쟁에서 우리 작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는 크며 변함이 없다. 우리 당은 모든 작가들이 시대의 요구와 당의 믿음을 깊이 새기고 붓으로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주체문학의 력사우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하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량심과 의리로 받들고 문학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의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백두산형의 위인 김정일

랄라이나리부 노엘 하르베이

흰눈을 머리에 이고
장엄하게 솟은 백두산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
그대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노라

지심깊이 뿌리내린
혁명의 성산이여
아아히 솟은 산정우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누나

백두산
그대는 조선의 지붕
이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이
거기에서 뿌리내리고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도
거기에 시원을 두었어라

백두산은
주체사상의 발원지
조선혁명의 요람이나니
눈속에서 피어난 백두의 만병초
그윽한 향기 풍기어라
아득히 펼쳐진 백두밀림은
조선의 숨결이여라

백두산이여

인류의 량심은 그대에게 쏠리고
그대의 불멸의 력사에서 진리를 배우노라
그대 모습 너무도 장엄하고
너무도 거룩하거늘
시인들도 글귀를 찾지 못하고
화가들도 붓을 꺾노라

백두산
그대는 조선의 기상
조선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상징이여라
백두산
력사의 증견자여
그대와 더불어 **김일성**시대가 빛나고
번영하는 **김정일**시대가 펼쳐졌나니

백두산이여
존엄있는 그대 모습 우리르며
지구는 그대를 축으로 돌고
인류는 축원의 노래 부르노라
백두산의 기상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위인 **김정일**장군-
세계자주화위업의 진두에 서계시여라
인류는 축원하노라
영원히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동지

(필자는 마다가스카르 예술가임)

우리를 부러워하라

문동식

인민의 추대

인민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
인민처럼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참으로 오랜 세월 함께 계셨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의 말로
우리의 생활을 알아보시고
때로는 좁쌀죽도 못해드린
인민의 아픈 마음 오늘도 안으시고

삼태자가 태어난 그 집에도
온 집안식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우는
그 집에도 늘 함께 계셨습니다

쪽무이포단 누벼 포근히 덮어주던
포연절은 군복줄여 옷을 지어주던
그날의 지성도 잊지 않으시고
항시 인민속에 계시는 장군님

추대의 반석이 다져진것은
참으로 멀고먼 그날이었습시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른 그때부터

인민은 그 품에 미래를 맡기고
떨어져선 못사는 살불이가 되었나니

화는 복으로, 역경은 순경으로
인민에게 복된 생활만을 주시는
천출위인 사랑의 태양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받들어모시던 추대의 그날

오, 그날에 터져오른 폭풍같은 환호성은
그 품에 삶의 뿌리 내릴대로 깊이 내려
쌓이고 쌓여온 인민의 숙원이
용암처럼 터져오른 명동이었습시다
무궁한 세월이 대통운을 맞이한
끝없는 감격의 분출이었습시다

위대한 아버이 **김정일** 장군님
이 나라 인민과 산천초목은
오늘도 가슴터쳐 환호성을 올립니다
대를 이어 태양복 당복을 누려가는
전설같은 행운, 다함없는 영광을
영원한 화산처럼 분출하옵시다

장군님 계시는곳

화산의 분출에 끓는 바다인가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 동지
그이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감격으로 격동하는 날

환호의 열풍에 강산이 끓고
경축의 꽃바다에 대지가 춤추는데
이런 날 이런 순간 우리 장군님
어느곳에 또 찾아가계시는가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그날도
그이께서 찾아가계신곳은
구월산에 새로 꾸린 인민의 유원지

10월의 단풍속에 굽이굽이 뻗어간
멀고도 높은 백리탐승길

인민의 지성이 못가닿는곳
언제나 사랑의 절정우에 계시며
자자손손 누려갈 행복의 경륜을
이 땅우에 펼치시고 이룩해주시나니

축하의 대회장과 경축의 광장
계셔야 할 자리들을 다 비워두시고
더 먼길 가시는 우리 장군님
아, 장군님 찾으시는 그곳은 그곳은
더 깊은 인민의 심장속이여라

송시가 넘치는 거리에서

어느 벽보를 바라보아도
백두산천지우에 태양이 빛나고
뜨겁게 비껴간 붉은 노을우엔
짧은 시행들이 힘있게 약동하고...

일찌기 어버이 우리 수령님
《광명성찬가》를 지으시던 그 붓
오늘은 온 나라 인민이 모두 잡고
장군님 우러러 진정을 터쳤구나

시줄마다 굽이치는 후더운 숨결
글자마다 어려있는 경모의 눈빛들
천출위인이신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의 탁월한 명도자로
높이 모신 행복과 영광이어나

얼마나 그이 손길 광휘로우면
얼마나 그이 사랑 은혜로우면
아이들 로인들 청춘들과 녀인들
저저마다 열정의 시인이 되었으랴

그이 품에 안겨 복받은 나날에

심장에 비문처럼 새기고싶던
고마움과 감사의 뜨거운 느낌
충성과 효성의 불같은 맹세
온 세상이 보라고 거리에 펼쳤거니

이름없는 언덕에 무성하는 수풀도
깊은 계곡의 맑은 샘줄기
하늘가에 춤추는 고운 새무리도
부르며 따르며 속삭이는 그 말
내 마음속에 다 들려주는 송시여

함축과 비약으로 뜻깊은
만민의 매혹된 넋과 정신이
절대의 신뢰와 최대의 축원이
벽보마다 차넘쳐
걸음걸음 세차게 내 가슴 울려주어

오, 나는 벌써 오늘에 걷고있어라
21세기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이를 높이 모신 인류의 환희
송가의 메아리로 지구를 뒤흔드는
자주의 새 세기 태양의 거리를

만수대의 새벽

만수대의 새벽
조용히 거니는 내 가슴속에
흘러드는 노래소리
《동지애의 노래》소리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검은 구를 뒤덮었던 혁명의 첫기슭
동지애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열혈청년 공산주의자들
이 새벽 그네들이 나를 빙-돌리시키고
인생의 소중한 진리 깨우쳐주는 듯

가진것은
빈 몸, 빈 주먹뿐이었어도
수령님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 앞에
넓어질 줄 모르는 의리와 량심만을
변함없이 안고산 투사들

총칼의 숲속에
누구도 알지 못한 절해고도에
자폭의 연기로 사라지면서도

한별만세를 심장으로 웨치던
그 고귀한 동지애의 넋을
내 가슴속에 뜨겁게 부어주거니

영생하는 충신들의 숨결로 숨쉬며
이 새벽 내가 선 만수대언덕은
오늘의 한별 위대한 장군님을
시대와 력사 앞에 높이 모신 첫 세대
내가 먼길의 첫자국 새겨가는
참으로 성스러운 새 력사의 첫기슭

영원히 동지애의 노래로 살아있는
첫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오, 나는 이 새벽 만수대우에서
동터오는 공산주의 미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부르고부르노라

동지애의 노래
승리의 노래
새 세계의 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우리를 부러워하라

노래로 날이 밝고
춤으로 날이 저무는 이 땅우에
장엄하게 울려 퍼진 선포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시다!

오늘의 이 격동하는 순간
내 가슴속에서 터지는 웨침은
나는 조선사람이다
나를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날아가는 바람도
흘러가는 강물도
이 심장의 웨침에 화답하는듯

20세기는 **김일성** 동지의 세기
21세기는 **김정일** 동지의 세기
인류의 두세기에
여기 조선에서 태양이 솟아오른
이 영광 무슨 말로 다 노래하라

이 땅에 태어나
천출위인의 하나의 품속에
운명도 삶도 미래도 다 맡기고
꽃피워가는 이 행복, 이 자랑
내 가슴에도 산천초목에도
깃들어 한껏 격정을 터치거니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사회주의집을 잃고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여
아직도 자본의 철쇄와 예속의 올가미에
자유없고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땅이 커서 위대한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 강한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 부강함도 아님을
력사는 이미
피어린 교훈으로 증언했거니

세계여 들으라
제국주의원썬들이 봉쇄했건만
여기 조선에서 터지는 환호성을
우리 당과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지구우에 일으켜가시는
무적필승의 이 함성을

오, 그러면 인류여
그대들의 불타는 가슴속에서도
화산같이 터져오르리라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운명과 삶의 태양 높이 모신 영광속에
그대들도 목청터쳐 자랑하리라

우리를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먼먼 세기의 후손들이여
우리는 자주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이의 해빛이 온 누리에 넘치는
가장 복받는 시대에 안겨사는
가장 긍지높은 행운아들이라고

벽시

춤을 추자

조창제

춤을 추자 춤판을 벌리자
드넓은 무도장이 우리 부른다
누구든 좋다 어서 들어서라
춤판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추어라, 춤
마음껏 춤을 추자
오늘의 기쁨과 이 경치
흥겨운 어깨춤 툄동에 답자

장군님 높이 모신 영광 가락에 답자

눈여겨보라 우리의 춤
눈여겨보라 우리의 이 기쁨
장군님 높이 모신
우리의 오늘이 춤을 춘다!
우리의 래일이 춤을 춘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춤을 춘다!



사연깊은 백날사진

주체65(1976)년 8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여 이미전부터 알고계시던 한 녀성로동자를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작업복을 입은 그 녀성로동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새 작업복을 차려입으니 껍 꺾어보인다고 만족해하시며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린 그 녀성로동자는 마침내 무릅없이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이 사진을 좀 보아주십시오. 제 손녀딸의 백날사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반색하시며 그가 올리는 사진을 반갑게 받아드시였다.

그 녀성로동자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손녀딸의 백날사진을 올리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그의 손녀가 갓 태어났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뵈우게 된 녀성로동자는 그이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려 가정일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다가 얼마전에 출가한 딸딸이 해산한 소식도 알려드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말에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손자인가, 손녀인가고 물으시였다.

딸을 낳았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딸이란 말이지요. 그것참 좋구만.》라고 하시며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옛날부터 첫딸은 금딸이라고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동무의 집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어나게 되었다고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귀한 손녀를 잘 키우라고 하시며 그후 그의 손녀딸이 태어난지 백날이 가까와올 때에는 백날사진을 찍어주도록 하시고 사진이 되면 자신에게도 한장 가져오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손녀딸의 백날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사진이 잘되지 못하여 보여드리지 못하다가 이날에야 비로소 보여드리게 된것이다.

손녀딸의 백날사진을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찬찬히 여겨보시였다.

어린이의 눈매며 코날, 이마와 귀, 생김새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사진을 보니 어린애가 몸이 통통한게 영양상태가 좋아보입니다.》

사진을 대견히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정에는 친어버이의 다심하고도 따뜻한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그러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녀성로동자의 눈굽은 뜨거워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진을 소중히 간수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애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이에게 젖말고 따로 먹이는것이 또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성로동자는 간혹 가다가 암을 먹인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암을 먹일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시며 자칫하면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갑자기 암을 먹으면 소화불량이생길수 있으니 아이가 암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가 못시키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먹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녀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이이름을 몇번이나 되뇌이시면서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녀성로동자의 손녀딸의 백날사진을 두고 은정깊은 사랑을 부어주신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해 잊지않고 계시다가 그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때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녀성로동자는 손녀가 대학에 가는 날 그 뜻깊은 백날사진을 꺼내놓았다.

《이제는 네가 이 사진을 간수할 때가 되었다. 이 사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시고 자신께서도 간직하고계시는 사진이다.》

진정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일터를 친히 찾으시여 가슴속 깊은 사연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올린 편지와 사진도 즐겁게 보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며 장군님의 영원한 한식솔이다.

강산도 환호한다

공천영

관서팔경의 하나로 이름높은 인풍루앞에 멈춰선
방성차의 은빛확성기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온 시가를 진감하며 울
려퍼진다.

붉은기발을 앞세우고 북을 치며 기악을 울리며
행렬이 긴 학생가창대가 거리를 돈다. 길은 길마다
꽃다발을 든 남녀로소가 물결처럼 흐른다. 아름다
운 강계시를 사면팔방으로 빙 둘러싼 멀리가까이의
랑림산줄기의 산부리들도, 이 도시의 명산 장자산
의 크고작은 봉우리들도, 도시를 삼면으로 기고흐
르는 장자강과 북천, 남천의 수면제우에도 거리의
꽃물결이 어려선가 노을의 여광이 비껴선가 온통
불그레한 일색으로 채색되었는데 강도 산도 뜨거운
환호의 숨결도 태동하는듯싶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정중히 세원진 경치
수려한 인풍공원앞마당이며 도시행정경제위원회청
사앞의 네거리광장에는 이 도시가 생겨 처음보는
대경사의 출판이 펼쳐졌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이
런꽃바다, 춤바다를 몇번이나 보았던가. 취재길로
주변농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나는 꽃물결, 춤물
결이 흐르는 거리에도 달리는 조급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지름길이라고 단정되는 북천강하구의 유원
지다리로 들어섰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정화되
는 장자산의 맑은 샘물이 흘러들어 더없이 깨끗하
고 정가로운듯싶은 북천의 빠른 물결이 키낮은 교
각을 흰갈기로 정답게 쓰다듬으며 다리밑을 빠져나
간다.

높고높은 명문고개에 시원을 두고 먼길을 내려오
는 장자강의 유유했던 흐름과 북천강우급류가 합쳐지
며 서로 열싸안고 물결을 높여 춤을 추는 합수목에
이르러 나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

다리밑으로 씩- 씩- 흐르는 강물소리는 그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그 영광, 그 기쁨을 터치는
환호성으로 돌리었다. 잦은 가락으로 오르내리며
서로 열싸안고 포옹하며 환희에 넘쳐 춤추듯님실님
실 흐르는 물결...

씩-씩- 그 물소리는 여느때없이 흥금을 울린다.

자연그대로의 단조로운 울림이 아닌 강물의 환호
소리에 심장을 맡기고 나는 한참이나 수면우에 눈
길을 주었다. 어찌 환호성 터치지 않으랴 어찌 물결
이 춤추지 않으랴.

위대한 혁명일가가 대를 이어가며 남기신 력사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명문고개를 분수령으로 하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
리길로정을 따라 줄기차게 흐르는 장자강이 아니냐.

준엄했던 주체39(1950)년 10월, 그때도 대를 이
어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불
멸의 모습을 비껴안고 장자강 너는 승리의 그날과
내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며 환호의 물결되
여 흘렀을테지.

어리신 장군님 찍으신 불멸의 자욱도 장자강반
천리길우에 빛나고 조국의 북변 끝까지 《**이민위
천**》의 숭고한 뜻을 펼쳐가시며 찍어가신 수만리현
지지도의 자욱도 이 강변의 력사의 길에 잇닿아있
거니 강물인들 어찌 오늘에 무심할수 있으랴.

내 다시 얼굴을 들어 인풍언덕에 높이 모신 태양
상을 우러르느라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
신 말씀이 더욱 뜨겁게 흥벽을 두드린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
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될것입
니다,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합니다라고
하신 말씀.

정녕 그렇다.

30여성상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
끌어오시면서 세기적인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그 위용을 만천하에
펼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있었다. 한
때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많은 나라들이 령
도자를 잘못 만나 사회주의의 좌절, 자본주의의 복
귀라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으며 조락의 길을 걸을
때 우리 공화국만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밑에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보루로
온 세계의 각광을 받고있지 않는가.

우리 혁명의 앞길에 더욱 찬란한 전환의 새 력사
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 우리 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되시었으니 이 나라의 산천초목인들 어찌 무심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
대되시었음을 알리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또다시 올려나온다.

뒤이어 또다시 터지는 만세의 환호성. 지심깊이
에서 뚫어번지는 용암이 분화구를 찾아 분출하듯
쌓이고 쌓였던 인민의 열망, 인류의 소망이 터쳐 진
력사의 장엄한 화폭이 온 거리에, 온 마을에, 온 강
산에 펼쳐진것이다.

방송차의 화성기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네거리
광장과 인공공원마당의 무도회장이 점점 더 넓어진
다. 그 음악에 합류하여 강물도 물결을 더 높이 솟
구며 춤을 추는것 같다. 거리의 음악과 경쟁이라도
하려는듯 물소리도 더 높아지는듯하다.

강아래쪽 랑안의 잣나무숲도 세차게 설레이는듯

싶다. 내 마음속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장자산의 두그루의 잣나무가 끝없이 설레이고
장자강의 랑쪽 천리 산밭들엔 그 잣씨로 번져진
수천수만정보의 잣나무림이 장엄하게 설레이고...

오, 빛나는 력사의 자욱을 안고 흐르는 장자강이며,
감격에 설레이는 이 땅의 산천초목들이여, 보다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고 맞이할 환희의 그 시각을
마중하여, 행복이 더욱 꽃피는 장자강반에

김정일장군님 가까이 모실 영광의 그날을 마중하여
우리 영원히 오늘처럼 열정에 넘쳐 설레이자.

위대한 장군님 우리러 영원히 오늘처럼 뜨겁게

끓자

하늘길을 따라

신형길

조용히 시창가에 눈길을 던지면
심벽을 올리는
안내원처녀의 목소리
—지금 비행기는
조국의 하늘을 날고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시각이나
얼마나 안기고싶던 품이나
그 품에 안긴듯
눈시울 젖어 오고
조국의 맑은 공기 폐부에 가득차오는가

어디이나
송이송이 꽃구름의 바다
손저으며 반기여주나니
학창시절 뛰놀던 그 넓은 운동장은

살진 벼 포기포기 심어
벼바다 설레이던 기름진 들판
웃자락을 적시며 초소로 가던
파도소리 높던 그 기슭은

이 모든것
그처럼 소중하기에
이국의 낫설은 하늘아래에서
언제나 마음은 나래쳐갔더라
어머니-조국땅 그 품에

행복의 요람 -장군님의 품이며
오늘은 의젓한

해외일군으로 믿음을 주어 내세워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무거운 임무도 안겨준
그 믿음
그 사랑이 고마워

길을 걷다가도 걸음 멈추어
구름넘어 멀리
그립고 그리운 그 품을
지켜 바라보지 아니했던가

그대가 덥혀준 심장으로
그대가 키워준 배짱으로
그대가 준 임무를 두고
그대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가슴을 펴고 보답의 길을 다그쳤나니

조국이며 **김정일**장군님의 품이며
내 미처 알지 못하였어도
외로울세라
한걸음 헛디딜세라
손잡아 이끌어주고 보살펴준 그 은정이며 !

오늘은 그대가 열어준
가없이 넓은 하늘길따라
그대의 아들
그대의 전사 공지높이 살고있어라
부러움에 찬 눈길로
온 세계가 바라본다

내 삶의 천만리에 새기노라

—력사의 그날에 부른 노래—

류동호

대표증

내 심장과 같은 붉은 기폭에
선반공 내가 들었던 마치와
시인 내가 들고있는 붓이 새겨진
당대표회 대표증이
꿈만같이 내 두손에 받들려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없던 우리 11남매를
따뜻한 품에 안아 키워준 어머니
그 위대한 당의 손길이 안겨주었다
우리 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영광의 증표를

아, 대표증
내 삶의 어제와 오늘이 실려있고
나의 념원도. 맹세도 다 담겨져있는
나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인민모두이기도 한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대표증이
내 심장의 붉은 피를 끓인다

어버이품에 안겨 자라며
수십년세월 소원하던 그날이

수령님을 잃고 3년 석달
하루와 같이 열망하던 그 순간이
이 한장 대표증에 다 실려있어

선뜻 쉬이 들수 있으라
신념과 량심과 의리로
무겁게 받들어올린 당대표증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장군님께
더 행복할 미래를 맡기는
우리 당대표회 대표증을

선반공의 깨끗한 손으로 받쳐들리라
동행자의 불타는 심장으로 받들어올리리라
우리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11남매의 그 진정을 담아
벗들과 동지들의 그 열망을 다 담아

아, 대표증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운명의 태양으로 우러러 사는
내 심장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서
영원히 내리우지 않을
나의 신념과 량심의 붉은 증표여 !

당대표회장으로 가는 길

왜 그렇게 밤이 길었던지
 뜬눈으로 새우며 맞이한 이 새벽
당대표회장으로 가는
내 발걸음 향해진곳

가슴엔 소중한 대표증
두손엔 향기론 꽃다발
아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
마음속 말도 많은 오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삼가 아침인사 올리며
이 새벽길의 사연
아뢰이는 마음 뜨겁게 젖어라

—수령님!
오늘은 저의 한생에
두번 다시 없을 행복한 날입니다
수령님 것처럼 바라시던 그 념원 안고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당대표회장으로 이 시인도 갑니다...

아, 기쁘시여 기쁘시여
수령님 다정히 나를 품안아주신다
그 환하신 태양의 미소로

내 갈길을 축복해주신다
어서 빨리 가라고—

이때라
 어버이수령님 높이 손을 드시어
 푸름했던 하늘가에
 새아침의 태양을 이끌어올리신다
 어서 가라고 밝은 길을 가라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내 삶의 길이 그러하듯이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는

이날의 첫걸음도
 수령님앞에서 시작하나니

내 삶의 천만리길에
 련련이 이어지리라 이 길은
 장군님 따르는 천만리길에
 내 한생을 이어주리라
 이 새벽의 첫걸음은!

이 당원들과 함께

나의 창작실이 있고
 내가 지은 노래가 울리던
 너무도 낮익은 극장이건만

처음 온듯싶구나
 감격이 소용돌이치는 극장
 우리 장군님 받들어온
 그 궁지높은 존엄이 실린
 훈장들과 메달들의 절렁임소리
 너무도 낮익은 얼굴들도
 오늘은 새롭게만 보이누나

위훈도 많고 자랑도 많은 그 모습들
 백발이 성성한 공로자들과
 아직은 너무도 한일이 없는 내가
 나란히 자리를 같이하고 앉아있음이
 너무도 송구스러워
 당대표증을 다시 안아보노라

이 당원들과 함께
 내가 장군님을 높이 추대하는
 당대표의 한 성원이란 말인가

너무도 한일없이 받아안은 행운이
 이 가슴에 맹세로 무겁게 실린다

나는 장군님을 높이 추대한
 수백만 당원중의 한 당원
 나의 이 하나의 대표중에
 우리 세포당원들의 그 마음이 다 실려있고
 내가 앉은 이 자리는 한자리여도
 수천만 인민이 모두 함께 앉은 자리다

나는 언제나 이 당원들과 함께
 나의 세포동지들과
 나의 인민들의 그 깨끗한 진정을 합쳐
 장군님 받들어 변함없고 진함없을
 신념과 량심의 시를 쓰리라
 우리 장군님 노래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나는 장군님의 시인
 장군님의 영원한 동행자
 장군님의 당원이라고
 땃땃이 궁지높이 말할수 있게!

끝없는 환호

만세, 박수, 환호
 심장이 타끓는다
 걱정이 사품친다
 대표회장에 솟구치는
 흥모의 거세찬 용암이여

이 사람들이 아니던가
 우리 장군님을 처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 부르고 따르며
 친위대 돌격대 근위대 결사대
 심장의 환호를 터치며
 삶의 자욱자욱을 빛내온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과 그리도 가까운 당원들

우리 장군님을 제일 잘 아는 당원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위대한 장군님
 령도의 그 첫자욱을 심장에 고이 새겨안고
 그 길에 한생을 맡긴 당원들이
 그것을 행복의 전부로 간직한 사람들이

오늘의 이 환호성은
 장군님 령도의 그 첫자욱이
 천리 만리로 끝없이 이어진
 촬영소의 구내길에서 울리던 만세소리
 무대우에서 터치던 박수소리

한장 한장의 원고지를
 낮과 밤 지새워 번지시며

문학의 재능보다 먼저
참된 혁명가로 작가들을 키워주신 장군님
인간사랑의 화신을 우러러
매혹의 붓을 달리고 심장의 노래를 부르며
불같은 맹세를 다지던 그 숨결소리

만세 박수 환호
한사람 한사람 품에 안아 키워주신
장군님의 문학예술인들이
심장과 심장이 터치는 소리
세월의 날과 달들에 쌓이고 쌓인
흙모와 걱정이 합쳐지는 우뢰여

탓하지 않노라
이 복받은 날에
오열을 터치며 앞가슴을 적시는
저 맑고 깨끗한 심장의 분수
저 보석같은 눈물을...

나도 흘러내리는 눈물 씻을념도 없이
목청껏 터치는 -만세소리
힘을 다해 치고 치는 박수소리
왜 이리도 작으나

용서해다오 대표동지들이여
방울방울 가슴에 맺혀흐르는 눈물이
내 심장의 환호를 대신하는줄 알아다오

만세 박수 환호성
우리 운명의 태양을
새 세기의 하늘가에 더 높이 받들어올리는
력사의 장엄한 선언
인류의 심장을 두드리는 폭풍이여

오, 심장의 이 환호는
장군님을 천만년 받들어모셔갈
우리 삶의 천만리에 부치는
매혹의 열원
신념의 맹세
량심의 웨침

내 한생을
언제나 이 순간에 살리라
어디서나 이 자리에서처럼 심장 불태우리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갈 천만리길에
끝나지 않으리라 만세 박수 환호
오, 영원한 나의 노래여

나는 희망찬 미래를 본다

행복한 사람은 멀리 미래를 본다
가슴에 솟구치는 격정
노도로 뻗치는 새힘
나는 그러본다 이 시각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모신 오늘
우리 당의 미래를 본다

태양의 해빛을 안고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맞받아
승리봉에 치달아오르는 조국을 본다
붉은기를 펴낼 휘날리며
아름다운 미래를 마중가는 인민은 본다

황색바람이 몰아쳐와도 끄떡없이
하늘이 무너져내린대 도 솟구쳐오르며
오직 우리 식, 장군님의 식대로
부강번영을 펼치며 전진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본다

우리 수령님 계시는 태양의 성지
민족의 집,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7천만 겨레가 서로 부둥켜안고
통일만세를 목청껏 터질 그날을 본다

아, 가슴에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여
행복의 무아경이여
내 마음은 지금 그 환희를 안고
21세기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우리 장군님 사랑이 넘치는
자주의 새 세계를 본다

우리 장군님을 높이 모신
가장 행복한 당원의 밝은 눈으로
가장 존엄높은 태양민족의 눈으로
김일성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본다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승리를 본다
새 세기의 장엄한 해돋이를 본다

아, 영광이여라
장군님 높이 모신 내 삶의 천만리여
영원하여라
장군님을 따라갈 내 노래의 억만리여

기적소리는 계속 울린다

량남의

한창 맑게 개여 있어야 할 초가을의 하늘이건만 증천에는 재빛구름층이 얹게 걸려 까딱 움직일줄 몰랐다. 아무런 기척없이 떠있는 구름층에 굴절된 햇빛은 땅위에 백야같은 희미한 음영만을 던져주고 있었다.

바람 한점 불지 않는 고요한 아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승업한 정적이 깃든 금수산기념궁전의 전시장을 돌아보고계시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삼가 옷깃을 여미고 정중한 몸가짐으로 그이를 뒤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공헌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받으신 대원수칭호증서와 금메달들과 최고훈장들, 원사, 교수, 박사들 각종 명예칭호증서들, 세계 각국의 이름높은 수도들과 도시들의 명예시민증과 금열쇠들 그리고 수령님께서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때 리용하시던 승용차...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으시고 진렬된 전시품들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전시상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사관 앞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전국각지를 씩없이 편력하신 조선지도에 아로 새겨진 현지지도로정도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외국방문로정도가 중요시기별로 표시된 세계지도사판이었다.

철도부 부부장 김봉연이 경애하는 그이께 지시봉을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요 현지지도로정도와 외국방문로정도를 혈관처럼 뻗어 간 철도와 도로 및 항로들의 곳곳에 표기된 도시들과 지명들의 표식등단추스위치를 눌러가며 설명해드렸다. 그가 수령님의 로고가 비친 현지지도로정도 중요시기별로 따라가며 표식등을 누를 때마다 큰 도시역들에는 빨간색 별이 간이역과 마을들에는 파란색등이 켜지곤했다.

사편해설을 다 들으시고 전시상을 쪽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섭섭하신 안색을 지으시고 궁전앞마당으로 나오시었다.

대기하고있던 승용차가 그이앞으로 소리없이 다가왔으나 그이께서는 차에 오르실 념을 앓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 정문앞을 사색에 잠겨 천천히 오가

시었다.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궁전정문앞에 나온 김봉연은 그이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저다지도 떠나기 아쉬워 하실가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피로웠다.

이윽고 승용차결로 다가오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속에 서있는 김봉연을 가까이로 손짓해 부르시었다.

《부부장동무, 이제 우리 함께 광성역에 나가봅시다.》

김봉연이 승용차결로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차문을 여시며 함께 타자고 말씀하시었다. 김봉연이 진정을 못하고 서있는데 먼저 차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열려진 차문으로 빈좌석을 가리키시며 어서 올라오라고 이르시었다.

주저하던 김봉연은 그이의 바쁘신 길을 지체시킬수없어 그이 옆에 자리를 잡고앉았다.

승용차는 금수산기념궁전앞 림홍로다리를 지나 광성역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책임일군들이 탄 여러대의 승용차가 뒤따랐다.

무슨 일로 그이께서 광성역으로 가자고 하실가.

그이를 모시고 광성역으로 달리는 김봉연은 마음의 긴장을 느끼며 생각을 더듬었다

철도수송에서 광성역과 관련된 어떤 긴급한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었는가. 허나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오늘아침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오기전까지 철도부 사령과 해당 일군들을 통하여 료해한 자료에 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김봉연이 생각에 잠겨있는데 줄곧 앞을 바라보시며 사색을 이어가시던 그이께서는 느닷없이 물으시었다.

《부부장동무의 고향이 지초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이께서 자기 고향을 잊지 앓으시고 물어주시는데 마음이 누그러진 김봉연은 자리를 고쳐앉았다.

《고향소식을 알고있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김봉연은 지초덕의 변모된 모습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말씀올린다.

《지금도 지초덕사람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전설처럼 외우고있습니다. 그전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지초덕사람들이 오늘은 무병장수

를 노래하며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봉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끊었다가 80고개를 넘은 자기부친이 염소를 길러 올해 여름에 50여 마리를 인민군대에 원호했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김봉연의 말을 되받으시었다.

《지초덕사람들이 우리 수령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전설처럼 전하면서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수령님께서 지초덕에 물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술한 사람들이 토질병에 걸려 고생할뻔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으셨다.

《부부장동무 부인은 잘 있습니까?》

《예, 잘있습니다.》

김봉연은 눈썹이 저려났다.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다정다감하시고 인정깊은 분이신가.

김봉연은 자기들의 첫사랑이 열매를 맺던 청춘시절을 잊을때야 잊을수 없었다.

지초덕에 오시여 자기 집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왜 외아들을 나이먹도록 장가를 보내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당시 철도성 부국장이었던 김봉연은 수령님을 모시고 동행한 수원들중에 유일한 로총각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특별렬차를 세워둔 검산역에서 그가 철도전문학교에 가기전 전철수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채송순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너자쪽에서 김봉연을 거절하고있어 아직까지 성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었다. 그것은 검산역의 출표원인 채송순은 격차가 심하여 김봉연의 반려가 될수없는 대상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그런 여성버성한 관계에 끝장을 보지 못하고있던 그들의 인연을 최종적으로 맺어주신 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채송순을 부르시여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시며 더우기 밝은 사회에서처럼 남녀간의 신분의 차이가 사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말씀에 감동된 채송순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때 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장군님께서 아직도 사연깊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계시었다.

어느덧 승용차는 광성역앞에 이르렀다.

김봉연은 차를 역앞에 세워두시고 일을 보실줄알았는데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에게 역구내로 들어가

자고 이르시었다.

흙에 내리신 그이께서는 수삼나무며 은행나무들이 철길역에 립초처럼 서있는 저쪽 유각인입선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김봉연은 그때에야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특별렬차로 다가가신다는것을 깨닫고 황급히 뒤따랐다.

렬차결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차의 외부를 한바퀴 돌으시며 한없이 애정어린 안광으로 바깥면과차창, 지어 지붕에 이르기까지 빼놓지 않으시고 세세히 살펴보시었다.

그러신 다음 승강대로 다가가시었다. 사적물보존관리원처녀가 그이께 차문을 열어드렸다. 김봉연과 동행하던 일꾼들이 그이 뒤를 따라 렬차에 올랐다. 집무실, 회의실, 침실, 식당칸들에 있는 모든 비품들은 수령님의 생존시나 다름없이 알뜰히 정돈되어 제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지어 집무실,벽에 걸려있는 수수한 자모벽시계의 초침도 자기의 불변궤도를 따라 쉽없이 돌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방금전까지 집무를 보시다가 자리를 뜨신듯 집무탁우에는 사업노트며 탁상일력이 그대로 펼쳐져있는가하면 까만 마찌크가 사업노트우에 놓여 있었다.

마치 지방의 어느 산간역에 서있는 특별렬차는 인민들을 만나보시러 나가신 수령님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있는듯했다.

수령님의 집무실을 이윽도록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얇은 창가림이 량옆으로 젖혀진 차창밖으로 눈길을 주시며 회역에 잠기신 어조로 김봉연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렬차를 만들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3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김봉연은 후더워오는 가슴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김봉연은 특별렬차를 만들던 벅찬 나날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김봉연을 비롯한 철도성일꾼들과 마주하신 자리에서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년치고 평양에 계시는 날보다 지방현지지도의 날이 더 많습니다. 수령님께서 지방현지지도 하실 때 리용하실 특별렬차하나 잘 만들어올려야 하겠습니까.》

김봉연은 철도일꾼인 자기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미 만들어올렸어야 할 렬차 경애하는 그이께서 마음쓰시게 한 죄송스러움으로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철도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이제 만들 렬차의 구조와 제작방도를 자상하게 가르쳐주시었다.

《특별렬차는 회의실과 집무실, 침실, 식당을 비롯하여 모든것을 다 갖춘 하나의 이동하는 집과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집무도 보고회의도 하고 숙식도 하실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철도성에서는 김봉연을 책임자로 하는 돌격대를 못하고 렬차를 만드는 전투를 시작했다.

우선 설계를 작성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며칠이 지나 김봉연은 완성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이를 찾아갔다. 그이께서는 바쁘신 일을 뒤로 미루시고 김봉연이 올린 특별렬차의 설계도면부터 보아주시었다. 김봉연의 설명을 들으시며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렬차의 집무실결에 설치된 랭온풍기에 눈길을 멈추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눈길을 들어 김봉연을 바라보시며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렬차의 온습도보장을 위한 랭온풍기는 소음이 나기때문에 수령님의 집무에 지장이 없도록 멀리에 설치하고 방음장치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김봉연은 자기만에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작성한 설계도면에 이런 공백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알았습니다. 랭온풍기위치를 옮기겠습니다.》

그후 달포가량 지나 특별렬차가 거의 완성되어간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에 나오시어 렬차의 안팎을 돌아보시었다.

집무실에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김봉연에게 랭온풍기의 스위치를 넣게 하신 다음 소음도 가늠해보시고 회의실과 침실, 식당칸 등 매 방들의 위치와면적등이 수령님의 집무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는가를 빈틈없이 돌아보시었다.

그러신 다음 일부 수정작업과 도색작업을 비롯하여 렬차의 완성작업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었다.

수첩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적어나가던 김봉연이 다음장을 번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갈피에 끼여있던 전보쪽지가 빠져나와 의자우에 떨어졌다. 김봉연이 전보쪽지를 얼른 집어 수첩갈피에 끼우려는 순간 그이께서 무슨 전보인가고 물으시며 볼수 없는가고 하시었다. 그는 하느수 없이 보여드리지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지초덕에 계시는 김봉연의 어머니한테서 10여일전에 받은 전보였는데 아버지병이 위급하니 급히 왔다가라는 내용이였다.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고질적인 토질병이 더 악화된것이였다.

전보문을 한자한자 뜯어보신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김봉연을 몹시 나무람하시었다.

《왜 이 사실을 나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는 다음 보름가까이 지난 어느날, 김봉

연이 특별렬차의 마지막 도색작업을 하고있는 작업장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나타날줄이야 어이알았으랴.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들을 지초덕에 보내시어 아버지를 후송하여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주셨던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전보내용을 수령님께 말씀드렸던것 이다.드디어 특별렬차가 다 완성되었을 때였다.하루 먼저 나오시어 렬차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그 이튿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또다시 공장에 나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우리 로동계급이 우리의 기술과 자재로 렬차를 짧은 기간에 만들었다고 보고드리시었다.

특별렬차를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렬차를 만드느라고 동무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듭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 힘으로 만든 렬차이기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좋습니다.》

이제는 열흘이건 백날이건 마음놓고 지방에 나가 이 렬차에서 숙식하면서 그곳 인민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고 일을 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과분한 치하를 받은 김봉연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특별렬차를 만들었을뿐인 자기들에게 모든 공로를 다 돌려주시는 그하해같은 사랑과 웅심깊은 도량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만들어올린 특별렬차를 타시고 첫걸음으로 멀고 먼 북방의 로동계급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었다. 가시던 길에 수령님께서서는 검산역에 차를 세우시고 해발 1,000미터를 헤아리는 지초덕을 찾아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의 만류도 마다하시고 토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였으며 그곳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날밤 수령님께서서는 특별렬차에서 하루밤을 류숙하시면서 지초덕 마을의 물문제를 풀고 오랜 세월 이고장 사람들을 괴롭히던 토질병을 막기위한 도안의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그때 도의 한 책임일군이 지초덕의 물문제를 풀기 위해 지질탐사대를 파견하여 지하수를 탐사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지초덕의 지하수에도 토질병의 근원이 있을수 있다고 하시며 두만강물을 4단양수로 끌어올려 지초덕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전동기와 양수기, 전기줄을 비롯한 설비자재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었다. 몇달이 지난 어느날 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지초덕에 4단양수장공사가 끝나고

수도물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오늘이 제일 기쁜날이라고 하시며 걱정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제는 됐습니다. 지초덕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토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놓입니다.

지초덕사람들에게 문화주택을 지어주고 넓은 들판에는 젖소와 양,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을 많이 길러 지초덕을 공산주의락원으로 꾸려야하겠습니다. 지초덕마을을 잘 꾸려놓은 다음 내륙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초덕사람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게 되었다...

특별렬차안을 다 돌아보시고 밖에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 렬차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귀중한 사적물입니다. 지금 금수산기념궁전 전시장에는 알맹이가 빠졌습시다.

나는 특별렬차를 금수산기념궁전에 사적물로 전시하자는데는 것입니다. 이 렬차는 반드시 수령님곁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 김봉연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금수산기념궁전 전시장을 돌아보시고 이곳으로 나오신 까닭이 특별렬차때문이였음을 김봉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 일은 응당 렬차에 깃든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제기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더우기 오늘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로정도 앞에서 장군님께 설명까지 해드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가.

장군님께서 발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수령님과 특별렬차는 떨어져 있을번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근 반생을 보내신 이 특별렬차는 반드시 수령님곁에 있어야 한다.

수령님의 손길이 어려있는 렬차승강대 손잡이를 꼭 잡으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며 답답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혁명활동을 벌리신 이 렬차는 이동하는 집과 같은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렬차를 타시고 우리 나라 최북단의 지초덕마을로부터 분계연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철길이 들어간곳이면 안가보신곳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렬차를 타시고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대외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수령님께 만들어 올린 이 렬차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잘 보장한 공로가 큰 영웅차입니다.

렬차를 금수산기념궁전에 전시하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수령님의 령도업

적을 실물 그대로 보여주자는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렬차는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력사책과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사색에 잠겨 특별렬차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똑같은 보폭으로 몇번이고 오가시다가 김봉연의 앞에 이르시여 물으셨다.

《이 렬차의 길이가 몇미터입니까?》

《25미터입니다.》

《중량은?》

《52톤이 넘습시다.》

《52톤에 25미터란 말이지.》 하고 되뇌이신 그이께서는 김봉연에게 말씀하셨다.

《부부장동무, 렬차운반문제를 연구해보시오. 금수산기념궁전까지 운반하자면 중량이 무거운데다 길이가 길기때문에 힘들수 있습니다. 수도건설기동려단 로동계급과 토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시오.

당창건 50돌까지는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당창건 50돌대표들에게 먼저 특별렬차를 보여주자고 합니다.》

《알았습시다.》

장군님께서 광성역을 떠나시면서 웬일인지 운전사에게 기본도로에 들어서지 말고 뒤도로로 돌아가라고 이리시였다.

철도부에 돌아온 김봉연은 그날밤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렬차운반문제를 협의하였다.

수도건설기동려단 대대장 김영만을 비롯한 연공들과 철도차량연구소 연구사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여러가지 운반안들이 나왔지만 걸리는 문제가 많았다.

김봉연은 제기된 방법들 가운데서 수도건설기동려단 대대장 김영만이 내놓은 《이동식레루법에 의한 운반》안이 제일 안전하고 합리적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렬차를 분해하여 개별적으로 운반하는것이 보다더 합리적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김봉연은 상념이 깊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색의 갈래가 삼겹불처럼 복잡하게 얽히어 나중에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야,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발이 짧아요.》

김봉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 바쁘게 안해는 원망스럽다 못해 야속한 표정으로 탄식을 하며 긴 한숨을 토하였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생겼소?》

어리둥절해진 김봉연은 안해의 푸념에는 개의치 않고 다급히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데 갔댔어요?》

안해는 대답대신 원망어린 물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철도차량연구소에...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방금 전화가...》

당장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으려듯 입을 싸쥐고 돌아서는 안해의 실박한 어깨가 세차게 물결쳤다.

《그게 정말이요?》

김봉연은 한발 늦어진것으로 하여 영광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계셨소?》

김봉연은 아직도 어깨를 들먹이고있는 안해결으로 다가서며 다우쳐물었다.

북받치는 걱정을 토하고나서 마음이 한결 가라앉은 안해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밥상을 쟁겨놓고난 채송순은 김봉연이 퇴근해 오기를 기다리며 텔레비죤화면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화면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연에 배비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를 시찰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이 방영되고있었다.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안고 텔레비죤을 시청하고있던 채송순은 전화종소리가 울리는것도 미처듣지 못했다. 록음이 잠깐 낮아진 순간에야 채송순은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를 가려들을수 있었다. 그는 혹시 요즘 퇴근이 늦어지는 세대주한테서 오는 전화겠거니 하고 범상하게 생각하며 원탁우에 놓여있는 전화기걸로 다가갔다.

송수화기를 들자 《징...》 하고 전류흐르는 소리가 아득한 우주공간에서 울려오는듯 전례없는 진폭으로 고막을 울렸다.

채송순은 보통때 전화를 받던 분위기와 구별되는 그 어떤 예감을 어렴풋이 감촉하며 텔레비죤의음향을 낮추었다.

순간 흥분된 교환수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도부 김봉연부부장댁을 찾으십니다.》

와들놀라며 자기 귀를 의심한 채송순은 혹시 교환수처녀가 혼돈하고 교환대코드를 잘못 끼우지않았는가 생각했다. 그러나 나라의 신경을 담당한교환수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수는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채송순은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꼭 잡고 귀에 바싹 다가붙였다.

잠시 승엄한 정적이 흐른뒤에 우렁우렁하신 음성인 전류를 타고 울려왔다.

《**김정일**입니다. 철도부김봉연부부장댁입니까?》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인사말도 드린 채송순의 입에서는 일상적으로 습관된 전화례의 그대로 말이 나가고말았다.

《채송순이 전화바랍니다.》

그의 대답에 인차 꼬리를 물며 몹시 활달한 음성인 고막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부부장동무의 부인입니까?》

장군님께서 격을 낮추시며 상대방을 존대하여 확인하시는 말씀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말씀을 낮추어주시기...제같은게 뭐라구...》

《아이들이랑 이젠 다 컸겠습니다.》

인정미가 뜨겁게 안겨오는 서글서글한 물오심에 정신을 가다듬은 채송순은 철도에 근무하는 말아들은 지난해에 장가 들어 탄 살림을 펴고 둘째아들은 군사복무중이라고 말씀올렸다.

《수령님을 모신 첫 렬차를 타고 검산역에 머무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빠릅니다.》

장군님의 감회에 잠긴 음성에 채송순의 가슴은 찢르르 저려났다. 채송순은 그들 부부간의 사랑이 맺어지던 그때가 얼핏 떠올랐다.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말씀을 돌리시였다.

《부부장동무가 요즘 매일 늦어 집에 들어오니까?》

천성이 고지식한 채송순은 이렇게 끝이끝대로 말씀드리면 장군님께서 걱정하신다는것도 감감 잊고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예, 늦게 들어와서 저녁식사를 대충 하고서는 옷방에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특별렬차운반방도를 모색하느라고 책과 도면을 펴놓고 밤을 지새웁니다.》

《아, 그렇습니다. 부부장동무의 건강을 잘 돌봐드려야 하겠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이야 뭐랍니다.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신 장군님께서는 내외분의 예순이 가까와오겠는데 건강에 류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김봉연은 밤새도록 잠을 못이루었다. 분명 특별렬차운반문제 때문에 장군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아직 정확한 방도 찾지 못한 그는 안타까운 나머지 안절부절 못했다.

다음날아침 일찌기 출근한 김봉연이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전화종소리가 주인을 찾고있었다.

흥분된 그는 급히 책상앞으로 가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을 보좌하는 일군한테서 걸어온 전화였다. 그 일군은 반색을 하며 김봉연에게 전선시찰을 하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엇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저녁8시부터 집무실에서 특별렬차운반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를 하시겠다는 말씀내용을 전했다.

김봉연은 가슴이 찢르르 저려났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이께서는 어제저녁 집무실이 아니라 멀고먼 최전연 군부대에서 특별렬차운반문제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주셨던것이 아닌가.

...집무실은 특별렬차운반문제를 토의하는 협의

회참가자들로 가득찼다.

협의회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철도부의 책임 일꾼들, 철도차량연구소, 수도건설기동련단의 책임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며 자애에 넘치는 어조로 향해부터 구하시였다.

《밤에 불려서 안됐습니다. 렬차운반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합리적이겠는지 의견들을 나누어봅시다.》

장군님의 별에 타신 철색도는 얼굴과 수수한 잡바에서는 최전연지대의 우거진 수목들과 땀배인 전선군인들의 체취가 그대로 풍기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며 김봉연에게 기대어린 시선을 보내시였다.

김봉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당황해진 그는 무슨 말부터 꺼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였다.

김봉연의 어정쩡해진 얼굴을 살피던 그이께서는 만면에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부부장동무, 속에 생각하고있는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이의 말씀에 힘을 얻은 김봉연은 사업노트를 들여다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50톤이 넘는 물동을 실을수있는 추레라가 없습니다. 수도건설기동련단에 40톤급추레라가 1대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특별렬차를 통채로 운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렬차의 하체와 상체를 분해하여 따로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말을 마친 김봉연은 자기 의견에 대하여 어떤 지적을 하실지 몰라 마음이 불안했다.

장군님께서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연필뒤그루로 집무탁을 다독이실뿐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둘러앉은 일꾼들을 일별하시고나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실으시며 김봉연에게 다시 물으셨다.

《3대혁명전시관 야외에 전시한 렬차는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두부분으로 분해해서 운반했습니다.》

《부부장동무, 앉으시오.》

장군님께서 그냥 서있는 김봉연에게 손짓하시고나서 앉아있는 일꾼들속에서 누군가 더듬어 찾으시였다.

《철도차량연구소 과학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좌중에서 큰 키에 안경을 낀 중년배의 연구소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렬차를 두부분으로 분해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운반하는 방법은 과학성이 담보되고 안전하다고

됩니다. 운반기일도 빠르고 로력도 적게 쓸뿐만 아니라 부대설비도 필요없으므로 경제적효과성이 큼니다.》

소장은 자리에 그대로 선채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이 계시기를 기다렸다.

장군님께서 얼굴에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나는 연구소 소장동무가 새로운 안을 제기할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부부장동무의 안에 대한 고증입니다.》

장군님께서 소장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였다.

《렬차를 분해하여 운반할 결심이면 동무들과 의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로고가 담겨져 있는 력사책이나 다름없는 국보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특별렬차에 티끌만한 손상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장군님께서 타협없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집무실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떠돌았다.

김봉연은 얼굴을 들수 없었다.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견해와 사고방식은 얼마나 저조한것인가를 절감했다.

특별렬차에 티끌만한 손상도 주지 않고 수령님의 체취와 숨결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도록 사적물로 전시하여 대대로 길이 전하시려는 그이의 충효심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꾼들이 충신의 자세로 사색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특별렬차를 사적물로 전시하자는것은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사실 그대로 우리 인민들과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보여주자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 한생의 많은 나날을 렬차안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동무들도 아다싶이 수령님께서 특별렬차를 타시고 서부지구에 나가시어 정무원련합회의를 지도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였습니다.》

퍽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 장군님께서 인츰 시선을 창가로 옮기시며 안경을 추슬러올리시였다.

장군님의 말씀은 김봉연의 가슴을 아프게 자극했다.

80고령의 수령님께서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명절과 일요일, 지어 자신의 생신날마저 인민을 위해 바치시고 렬차의 집무실에서조차 밤을 지새워가며 일하시였다. 수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나라의 중대사들이 맞물려있는 일과여서 한시간의 공백도 없었다. 자기자신만해도 수령님께서 철도부문사업을 지도해주셔야만 결린 고리가 다 풀리는것으로 어기면서 자체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다나니 수령님의 사

업무담만 늘어나게 되지 않았던가.

그것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보니 가슴을 치며 통탄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제라도 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특별렬차를 타시고 산세험한 지초덕에 오시여 고향마을사람들을 고질적인 토질병으로부터 구원해주신 수령님. 어제날 불모의 땅이었던 지초덕을 공산주의락원으로 꾸려주시고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살수 있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싣고왔던 특별렬차.

인민이 있고 두줄기 철길이 가닿은곳이면 그 어데나 찾아갔고 수령님을 모시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횡단하며 세계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달리던 특별렬차였다.

수령님께서 마음에 꼭 들게 만들었다시며 티끌만한 손상도 갈세라 아끼시던 려차를 해체하여 손쉽게 운반하려고 한 자신을 그는 타매했다.

문득 꿈속에서처럼 한없이 자애로운 음성이 귀에 울려왔다.

《철도부 부부장동무나 연구소 소장동무도 안타깝던 나머지 그런 생각을 했겠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오. 자기 잘못을 뉘우쳤으면 됐습니다.》

자책속에 몸부림치던 김봉연은 고개를 들었다.

창가에 서 계시던 장군님께서 밤이슬이 돋는 정원수를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그럼 수도건설기동려단 로동계급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기동려단 대대장 김영만이 체소한 체격을 솟구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소개를 했다. 50이 갓넘은 그는 나이에 비해 강단과 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사업노트를 펴든 김영만은 조금도 증자르는 기색이 없이 자기 의견을 말씀드리였다.

《우리는 특별렬차를 레루이음토막우에 올려놓고 굴러가자고 합니다. 즉 세개의 레루이음토막우에 려차를 올려놓고 앞에서 불도젤로 끌어당깁니다. 려차가 앞으로 전진한것만큼 뒤로 나온 레루토막을 기증기로 떼서 려차앞에 옮겨 더 련결시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있던 려차는 레루길이만큼 또다시 앞으로 전진합니다.》

김영만의 설명을 주의깊이 듣고나신 장군님께서 물으시였다.

《광성역에서 금수산기념궁전까지 그 방법으로 며칠이면 가닿을수 있습니까?》

《30일 정도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이란 말인데...》

장군님께서 말씀끝을 흐리시며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인차 뒤를 달으시였다.

《특별렬차를 통채로 운반하자는 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동식레루법은 운반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루가 천금같이 귀중합니다. 당창건 50돐까지 려차를 운반해다가 사적물로 전시하자면 날자가 없습니다.》

렬차를 레루없이 도로상으로 하루밤사이에 와닥닥 운반할수 없겠는가 생각들 해보시오.》

장군님께서 높은 요구수준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그러나 누구도 신통한 방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합리적인 운반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김봉연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루밤사이에 와닥닥 운반할수 있을가. 50톤능력의 추레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머리를 짜내여도 착상이 떠오르지 않는 그는 속이 답답해났다.

《그럼 잠시 휴식하면서 생각들 해보시오.》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담배를 권하시고나서 열방으로 나가시였다.

협의회참가자들이 담배를 한대씩 피우고났을때 집무실에 들어오신 장군님께서 창가로 다가가시여 광성역쪽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잠시후에 한 일군이 들어와 장군님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신 그이께서는 묵묵히 생각에 골몰하고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머리도 쉬웁걸 우리 함께 영화나 봅시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의아한 표정이 어리였다.

아직 특별렬차들 운반할 방도도 내놓지 못했는데 그이께서는 협의회도중에 왜 영화를 보여주실가.

그들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생각지 않던 영화를 보게 된 그들은 의혹과 기대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영사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서히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였다.

화면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으로 질풍같이 전진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한 모습이 나타났다.

《진적 또 진격》의 힘찬 선물이 울리는 가운데 대전을 해방한 보병부대들과 탱크들, 포차들이 불구름을 헤치며 남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는 관람자들은 어느덧 흥분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어갔다.

전진이다 전진이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적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드세찬 공격에 갈팡질팡하며 패주한다.

《불퇴의 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계선에서도 더는 아군의 공격을 저지시킬수 없게 된적들은 도망치면서 금강다리를 폭파한다.

철근콘크리트덩어리들과 패주하던 적들의 잔해물들이 검은 연기와 함께 하늘높이 솟구쳐오르자 다리경간이 몽청 끊어져버린다.

손에 땀을 쥐고 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판람자들은 적개심을 금치 못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아군의 진격은 일시 정지되었다.

역수로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공병들이 산에서 통나무를 찍어내려다 폐를 못기 시작한다.

대줄기같은 비발이 사선을 그으며 굶니는 물결위에 뽀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캄캄한 하늘에 탐조등의 누런 물줄기가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 공병들은 범람하는 강물속에 서슴없이 레를 물고들어간다.

원추들의 무차별 폭격, 포격이 개시된다.

쾅, 쾅, 따르륵, 따르륵...

사품치는 강의 곳곳에서 물기둥이 하늘높이 치솟았다가는 비발이 되어 공병들의 머리위에 덮썩운다.

강건너편에서는 패잔병들이 사격을 해댄다. 눈먼 총알이 아츠러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온다. 류산탄이 머리우에서 섬광을 일으키며 작렬할 때마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강물이 대낮처럼 드러나군한다.

아군의 강력한 엄호사격이 개시된다.

강기슭에 전개된 아군의 대공화력들과 사단포, 군단포들이 노한 포문을 열었다.

치열한 격전의 한복판에서 공병들은 제각기 물고 들어간 여러폭의 폐를 하나로 묶는 결사전을 벌린다. 적의 포탄에 폐목이 파열되면 공병들은 예비폐를 물고들어가 그자리를 메꾸었다. 피어린 격전끝에 드디어 폐목이 하나로 쭉 이어져 폐다리가 형성된다.

대기하고있던 육중한 땅크들과 포차들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폐목다리우를 건느기 시작한다.

폐목다리가 무겁게 실린 중량을 못이겨 범람하는 강물속에 잠긴다. 공병들은 아름드리 통나무를 밀고 포호하는 강물속에 뛰어들어 수증기둥을 세우고 자기 어깨로 폐목다리를 올려받쳐 땅크부대의 도하를 보장한다.

공병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아군부대들의 도하는 승리적으로 진행된다.

폐목다리를 타고 강을 건너간 땅크우에서 램홍색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인다. ...

긴장만 눈길로 화면을 응제하는 김봉연의 머리에는 하나의 착상이 떠올랐다.

공병들이 무은 개개의 폐목들은 중땅크를 담아 실지 못하지만 여러폭의 폐목을 한데 무으면 위력한 힘을 발휘하는것이였다.

추레라도 마찬가지이다. 40톤능력의 추레라 한

대에 특별렬차를 실을수 없다면 각이한 능력의 추레라들을 폐목처럼 편결하여 추레라폐를 무으면될 것이 아닌가 !

영화상영이 끝난다음 다시 협의회가 시작되였을 때 김봉연은 신심과 활기에 넘쳐 자리에서 일어났다.

《추레라폐를 무으면 능히 특별렬차를 운반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몹시 흡족해하시며 김봉연을 대견한 눈길로 마주보시였다.

《부부장동무가 아주 신통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40톤능력의 추레라 한대로 안되면 두대, 석대를 편결하면 될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전연에 나가 전쟁로병출신의 장령들과 특별렬차운반문제를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부부장동무와 같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김봉연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장군님께서 특별렬차운반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려하셨으면 전선을 시찰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선장령들과 토론하셨겠는가.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어제저녁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오신것도 방금전에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록영화를 보여주신것도 바로 그때문이였음을 김봉연은 가슴벅찬 감동의 회오리속에 판단할수 있었다.

《대대장동무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용수철에 튕기듯 몸을 일으킨 김영만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면 이틀이면 운반할수 있습니다.》

《대대장동무도 찬성이란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아니라 하루밤사이에 운반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본도로가 아니라 뒤도로로 말입니다.

기본도로는 낮이나 밤이나 차가 많이 다니기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그때야 김봉연은 장군님께서 광성역에서 돌아오실 때 왜 기본도로가 아니라 뒤도로로 오시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알았습니다. 특별렬차운반은 우리 수도건설기동련대에 맡겨주십시오.》

김영만은 간절한 념원을 담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한 표정으로 김영만을 여겨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이 요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공장굴뚝을 세운채로 옹겼으며 1만톤프레스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로동계급을 믿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작된 특별렬차 싣는 작업은 해질무렵에 끝났다. 김봉연은 어제부터 수도건설기동

려단 연공들과 어울려 열차를 추레라떼우에 싣는 작업을 지휘하느라 긴장하게 돌아갔다. 김영만대대장이 열차를 방수포로 포장하는 작업을 연공들과 함께 빈틈없이 진행했다. 그리하여 특별열차를 3대의 대형기중기가 통채로 떠서 40톤추레라와 60톤련결차로 무어진 추레라떼우에 옮겨실을수 있었다.

《출발!》

김영만대대장이 전대오에 특별열차의 광성역출발을 메가폰으로 알렸다. 맨 선참으로 추레라의 우렁찬 발동소리가 전주곡마냥 울려 퍼지자 모든 룰전기재들이 기동하는 각이한 음향이 교향악처럼 온 역구내를 진감했다. 광성역구내는 삼시에 각종 룰전기재들이 내뿜는 배기가스가 안개처럼 자욱히 서려 떠돌았다.

드디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특별열차가 태양의 집으로 가는 력사적인 행군이 시작되었다.

특별열차행렬이 인적이 드문 기본로정에 들어섰을 때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지휘차우에는 김영만이 신호기를 들고 서서 열차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었다. 연공들과 호송성원들이 천천히 굴러가는 열차의 량옆에 서서 보조를 맞춰가며 바퀴에 이상이 없는가를 살폈다.

김봉연은 추레라의 앞뒤로 쉼없이 오가며 사람의 보행속도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전대오의 움직임을 지휘했다.

《대대장동무, 다른 변동이 없소?》

지휘차결로 다가간 김봉연이 차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며 물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감시하오.》

특별열차결로 다시 돌아온 김봉연은 전진하는 대오에 발걸음을 맞추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한발자욱, 한발자욱 대오의 전진과 더불어 잊지 못할 이밤도 바야흐로 깊어가고있었다.

전조등의 밝은 불줄기들이 질게 서린 어둠을 헤가르고 각종 룰전기재들의 고르로운 음향이 한데 어우러져 밤의 고요를 흔들여주는 이밤, 광막한 우주공간에 수없이 반짝이는 못별들이 저속으로 나아가는 대오우에 유난히 맑은 빛을 뿌리었다.

명상에 잠겨 그 별들을 감회깊게 바라보는 김봉연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동구라파사회주의 나라들을 력방하던 력사적인 나날들이 밝혀왔다. 문득 하나의 감격적인 화폭이 확- 안겨오며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보석같은 별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이국의 광야를 달리는 특별열차우에 빛나는 광채들 뿌려주던 그밤 유고슬라비아란방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친 특별열차가 벨가리아의 국경도시 드라고

만을 눈앞에 두고있었다. 수천수만의 드라고만시민들은 벌써부터 향기로운 꽃다발을 받쳐들고 불야성을 이룬 역두에 떨쳐나와 수령님을 모신 특별열차를 기다리 고있었다. 자정이 지난 그 시각, 수령님께서는 이 특별열차의 침실에서 깊은 잠에 들어계시였다. 유고슬라비아의 국경도시까지 영접나온 벨가리아국가수반의 특사는 오랜 외국방문로정에서 피로하신 **김일성**동지께서 드라고만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실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특사는 이곳에서 특별열차를 아침까지 대기시킨 다음 수령님께서 드라고만시민들의 환영을 받도록 하여주실것을 우리측에 제기했다. 수원들은 즉시 이 사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특사에게 량해를 구하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외국방문일정은 늦출수도 연기할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드라고만역두에서는 력사에 없는 고요속에서 환영의식이 거행되게 되었다.

특별열차가 들어서기전부터 우렁찬 환영곡이 연주되고 만세의 환호성과 춤과 노래로 들끓던 드라고만역두에는 환호성 없는 환영의 꽃바다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미속으로 통과하는 특별열차의 선로량옆에 립주의 여지없이 팍 늘어선 시민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소리없이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꽃다발만 열정적으로 흔들여댔다. 뿜어오르는 흠모의 감정을 터치지 못하고 흔들여대는 꽃묶음들에서는 꽃잎들이 떨어져나와 그윽한 향기를 물씬 풍기며 온 역두에 눈송이처럼 흩날려갔다.

그것은 가뜩이나 개방적인 성격들이 터치지 못한 감정의 황홀한 분출이였다.

환호성 없는 꽃물결을 헤가르며 특별열차는 드라고만 시민들의 다함없는 축복속에 수도 쓰피아를 향하여 달려갔다....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 장면의 증견자인 특별열차가 지금 태양의 집을 향하여 가고있다.

감격이 북받쳐 오른 김봉연은 눈굽이 뜨거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버이수령님,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주십시오. 그때 발칸반도의 해쑈는 장미계곡에서처럼 말입니다.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저희들이 지금 이 특별열차를 수령님결로 가져가고있습니다.)

김봉연이 상념에 잠겨 걷고있는데 갑자기 맞은편 추레라떼에서 《짹!...짹!...》 하는 소리가 어둠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에 열차운반 행렬은 불시 멈춰섰다.

《무슨 일이요?》

김봉연이 지휘차로 달려가며 다급히 물었다.

《추레라고무바퀴가...》

김영만의 당황한 목소리였다. 바람소리가 나는쪽으로 달려간 김봉연은 추레라운전사가 가리키는곳에 전지불을 가져다댔다. 나란히 서있는 두개의 육중한 고무바퀴가 거의동시에 터져나간 흔적이 전지불빛에 드러났다. 터진 부위에서는 아직도 씩-하고 바람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빠진 바퀴들은 내리누르는 하중을 못이겨 아래부분이 벌써 쭈그러들고 있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다른 바퀴들에 하중이 더 쏠려 특별렬차가 기울어질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상상만해도 몸서리쳐졌다. 시급히 비상대책을 세워야 했다. 《까또루 약간 들어주는게 어떻소?》

갑시에 모여온 운전사들과 연공들에게 김봉연이 물었다.

《그게 좋겠수다. 그래야 자끼로 뜨기 쉽수다.》

나이 지숙한 추레라운전사가 응수했다.

《까또 작업준비!》

옆에 있던 김영만이 소리치고나서 추레라발판으로 나는데 뛰어올랐다.

까또운전사들과 추레라운전사가 각기 운전칸으로 달려갔다.

어느사이에 시동한 두대의 까또기중기가 김영만의 지휘밑에 특별렬차동체를 앞뒤에서 약간 떠주자 추레라떼가 움찔하고 몸부림쳤다. 쭈그러들었던 두개의 터진 바퀴가 거의 제 형태로 돌아갔다.

김봉연은 운전사들과 함께 추레라운전사가 가져온 자끼를 터진 바퀴 량쪽에 설치하고 추레라동체를 뜨기 시작했다. 일정한 정도로 든 다음 터진 바퀴를 돌려보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잠시후에 터진 바퀴를 뽑아내고 예비로 실고 온 새 바퀴를 그자리에 끼워넣었다. 나사들개로 주먹만한 나트들을 조이기 바쁘게 공기펌프로 바람을 불어 넣었다.

교체한 두개의 바퀴를 간간히 검토하고난 김영만은 까또기중기를 해체하고나서 출발구령을 내렸다.

첫번째로 부딪친 압초에서 벗어난 특별렬차운반행렬은 행군을 계속했다. 강물우에서 때목이 흘러내리듯이 추레라떼는 대지우에서 거침없이 흘러갔다.

문득 김봉연은 불인한 눈길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터진 바퀴를 교체하는 사이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반짝이던 별들은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습기를 머금은 마파람이 불어왔다. 벌써 굵은 비방울이 마가울의 밤알처럼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추레라속도를 좀 높이지 않겠습니까?》

김영만이 초조한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며 물었다.

《안되오- 덩비지 말고 침착해야 하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렬차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반해야 하오.》

김봉연의 드림없는 대답에 김영만은 아무말없이 지휘차로 달려갔다.

김봉연은 비옷을 준비하지 못한것을 후회했다.떠날 때 날이 맑기때문에 그냥 떠났는데 밤사이에 일기가 이렇게 급변할줄을 몰랐다.

특별렬차에 비닐박막과 방수포를 여러겹 덧씌운것이 다행이었다

특별렬차만 비를 걸릴차만 안맞으면된다. 자기한몸이 젖는것쯤 무슨 대수랴.

김봉연은 화락하게 걸옷이 젖어들고 물이 뱅 내의자락이 척척하게 감기는 감각을 느끼며 전지렌즈를 렬차로 옮겨갔다.

특별렬차에 씌운 방수포밑자락에서는 락수물이 줄줄이 흘러내려 추레라떼의 발판에 떨어질뿐 다른 이상이 없었다.

김영만은 지휘차우에 기인처럼 버티고서서 쏟아지는 폭우를 고스란히 맞으며 추레라떼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몰참봉이 되어버렸다. 우그러든 그의 모자채양으로 수채에서 비물이 흘러내렸다.

《주의! 위험구간 출현!!》

김영만이 메가폰에 대고 웨치는 소리가 비속에서 행군하는 온 대오에 울려갔다.

추레라결에서 걸어가던 김봉연은 앞으로 달려가 전지불로 위험구간을 훑어보았다.

눈앞에 10여미터 길이의 다리가 놓여있고 다리를 지나 40여미터 더 가서 반원형으로 급하게 휘여든 굽인돌이가 전지불에 드러났다. 굽인돌이를 지나면 길은 밋밋한 경사지를 따라 고개마루에 곧추잇닿아있었다.

지휘차에서 뛰어내린 김영만은 추레라 앞뒤로 오가며 대오를 지휘했다. 나이지숙한 추레라운전사는 김영만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가며 침착하게차를 몰아갔다. 긴장한 운전사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선두에 선 교통안전지휘자는 이미 다리를 통과하여 굽인돌이길에 멈추어섰다. 그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추레라떼의 앞부분은 폭이 좁은 다리를 통과하여 굽인돌이입구에 접어들었다.

《추레라 정지!》

뒤쪽에서 김영만이 메가폰으로 숨가쁘게 소리쳤다.

추레라떼가 멈춰서자 뒤꼬리들 물었던 까또기중기차, 지휘차, 호송 버스, 화물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다.

《무슨 일이요?》

김봉연이 다리쪽으로 달려오며 어둠속에서 다우쳐물었다. 《다리쪽이 좁은데다 구배가 심해서 차가 돌지못하겠수다.》

김영만은 다리목의 가늠에 전지불을 비쳐보였다.

추레라매의 뒤바퀴는 다리목의 웅벽가늠에 거의 닿아있었다. 40여메터앞의 굽인돌이입구에서있는 추레라의 앞부분이 몇메터만 더 나갔더라면 틀림없이 뒤끝이 다리목의 웅벽웅덩이에 굴러떨어질번했다.

김봉연은 아슬아슬한 순간을 모면한 안도감에 한숨을 내그으며 비물과 진땀이 혼탕이 되어 흘러내리는 얼굴을 수건으로 문대었다.

추레라매의 길이가 너무 긴 탓에 프락프르런결차들도 속도를 내며 달리는 이 구배를 통과할수없게 되었다.

이미 현지를 답사할 때 가능한것으로 타산했는데 실지 현실에 부닥치고보니 사정이 달랐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김봉연이 의기소침해 서있는 김영만에게 물었다 《여기를 메우고 도로폭을 넓혀야 추레라가 통과할수 있습니다.》

김영만이 손으로 웅벽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웁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우. 대대장동무, 우리 맥을 놓지 말구 일손을 다그칩시다.》

김봉연은 연공들과 호송성원들, 운전사들까지 다 모여온 다음 작업조직을 하고 자신이 앞장에 서서 전투를 이끌어나갔다.

먼저 그들은 예비로 싣고 온 침묵으로 아래서부터 다리면과 수평되게 우물정자로 쌓았다. 그런다음 개바닥에서 막돌과 자갈을 날라다 귀틀안에 다져넣었다. 한편에서는 가마니에 자갈을 넣어 밑에서 비스듬히 쌓아올려 길을 넓혔다.

깊이가 한길이상 되어 작업량이 적지 않았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일손을 다그치다보니 모두 기운이 진했다.

《좀 쉬지 않겠습니까?》

통나무귀틀안에 막돌을 다져넣고있는 김봉연에게 지고 온 자갈가마니를 길바닥에 털썩 내려놓으며 김영만이 하는 말이였다.

김봉연은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휴식구령을 내렸다. 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모두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시각 굽인돌이너머 령마루로 뻗은 둔덕길쪽에 서 전조등불빛을 번쩍이며 승용차 한대가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눈길은 승용차에로 쏠렸다.

쏠살같이 달려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죽이며 굽인돌이를 에돌아 교통안전지휘차앞에서 멈춰섰다.

어둠을 타고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

다.

이윽고 전지불을 꺼든 두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추레라진조등불빛에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사람은 정복차림의 교통안전원이고 다른 사람은 낮선 사람이였다.

《수고들 하십니다. 철도부 김봉연부부장동무가 누구입니까?》

어느사이에 가까이 다가온 두사람중에서 중년배가 되여보이는 낮선 사람이 일동을 향하여 물었다.

《예, 접니다.》

김봉연은 지친 몸을 일으키며 의혹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고합니다.》

인사를 하고난 사람은 정중한 자세를 하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예?!》

너무도 급작스러운 소식에 접한 김봉연은 그 일군의 얼굴만 마주보았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그 일군결으로 가까이 모여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집무실에서 협의회때 영화상영준비가 다 되었다고 장군님께 말씀드리던 부관이였다.

그는 땀과 비물과 진흙이 제발린 김봉연의 모습을 눈여겨보며 흥분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께서 지금 고개길마루에서 특별렬차가 오기를 기다리고계십니다.》

《그이께서 이 비를 맞으시며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김봉연은 감격과 자책의 모순된 감정이 한데 뒤엉켜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기다리시다가 비가 내리는데 아직 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분명 무슨 일이 생긴것 같다고 하시며 고개마루까지 마중나오시여 저를 먼저 보내시였습니다.》

《아! 장군님!》

김봉연은 솟구치는 걱정을 진정할수 없었다.

(수백만 수도시민들을 행복의 요람속에 잠재우시고 굿은비 내리는 이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던특별렬차를 기다려 자기들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 찬비가 내리는데 돌아가주시시오. 특별렬차는 저희들에게 말기고 어서 돌아가 쉬십시오.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뒤로 돌아선 김봉연은 말없이 서있는 그들결으로 다가가 갈린 목소리로 엄숙히 호소했다.

《동무들, 장군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용기를 냅시다.》

그에 호응하여 모든 성원들이 돌격에 진입했다.

비는 더 억수로 쏟아지고 퇴성벽력이 하늘땅을 진감했다.

삽시에 통나무방틀에 막돌이 채워지고 모래가마니를 지면까지 쌓아올렸다.

이윽고 길이 다 넓혀지자 출발구령이 내렸다. 추레라떼가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일군이 전지로 넓어진 길바닥을 비쳐주었다. 일렬로 굴러가는 고무바퀴들이 새로 난 길우를 굴러갔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며 고무바퀴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순간 우람한 고무바퀴가 내리누르는 하중을 못이겨 길우에 깔아놓은 침목이 밑으로 서서히 꺼져내려갔다. 뒤에 선 지휘차의 전조등불빛에 추레라떼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것이 확연히 알려졌다.

비가 내려 땅이 물러진때문이었다.

정지신호가 내렸다 추레라떼가 멎기 바쁘게 김봉연이 비장한 목소리로 웨쳤다.

《동발목으로 침목을 고이자!》

선참으로 동발목을 집어다 침목밑에 밀어넣은 그는 어깨를 들이밀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한줄로 늘어서 침목을 떠받들고있는 사람들을 일렬한 김봉연은 김영만에게 명령하듯 웨쳤다.

《대대장동무, 출발시키시오!》

추레라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중한 바퀴들이 한치한치 받침목우를 구울러가며 동발목을 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누른다.

어깨뼈가 부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엄습한다. 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진다. 허나 모진 진통은 한순간이었다. 모진 아픔이 지나간 다음 그는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모든 기적은 무의식중에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보던 기록영화의 화면이 펼쳐졌다.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인민군캠프부대의 위용이 안겨오고 그들의 도하를 육탄이 되어 보장한 공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이 죽음을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날게 하였는지도 몰랐다.

김봉연은 추레라떼가 어느새 어깨우를 지나갔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동발목을 잡고 서있던 그는 활동같이 휘여든 굽인돌이를 지나가는 추레라떼의 불빛을 보고서야 앞으로 달려갔다.

벌써 굽인돌이를 통과한 추레라떼는 밋밋한 언덕길로 접어들고있었다.

위험구간을 돌파하느라고 기진한 대오는 한치한치 힘겹게 언덕길을 툭아 올라갔다.

언공들속에 어울려 추레라떼를 밀던 김봉연은 문득 고개마루에서 어둠을 헤가르며 내리비치는 강렬한 물줄기를 보았다. 전광석화와도 같은 그물빛에 추레라떼행렬의 모든 전조등불빛들이 녹아없어진 것 같았다. 넋을 잃은 듯 그자리에 서서 백열로 이글이글 타는 불빛을 우러러보던 김봉연은 환희에 넘쳐 탄성을 내질렀다.

《동무들, 저 불빛을 보시오. 장군님께서 우리앞 길을 밝혀주고계십니다.》

모두 그자리에 멈춰서서 황홀한 얼굴로 고개마루에 초점을 모았다.

《자, 어서 장군님께 달려갑시다.》

누군가의 감격어린 웨침소리였다.

웅성거리던 대오에는 갑자기 활력이 넘쳐흘렀다. 모두가 사기가 충천하여 와- 추레라떼에 달라붙었다.

추레라떼는 등대와도 같은 그 불빛에 이끌려 령마루로 쉿쉿 치달아오르는 듯싶었다.

어느사이에 비는 멎고흐어진 구름장사이로 별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선들선들 시원한 새벽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태양같은 그 물줄기에 비도 구름도 다 자취를 감춘듯싶었다. 불덩어리같은 그 불빛을 향하여 추레라떼는 억척같은 힘으로 령마루에 다가가고있었다.

하늘과 땅이 맞붙은 아득한 지평선 한끝에서 희뵈히 먼동이 터왔다. 미구에 붉은 태양이 솟아올라 비에 젖은 대지를 뜨겁게 어루만질 것이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이 되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였다.

넓은 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붉은 노을의 후광속에 숭엄하게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끝없는 회억에 잠기신 장군님께서서는 영생하시는 수령님방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다함없는경도의 점을 담아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이렇게 뜻깊은 명절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을 찾오시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간 있는 중대사들데에 대하여 생전시처럼 흥금을 터놓고 말씀드리곤 하시였다.

경사로온 이 아침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 삼가 보고를 올리시였다.

《수령님, 오늘은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 우리 당 창건 50돐이 되는 날입니다.

수령님, 수령님께서 명절날에도 쉬지 않고 리용하시던 특별렬차를 가져다놓았습니다.

철도부 김봉연부부장동무와 수도건설기동려단

김영만대대장동무를 비롯한 우리 로동계급들이 광성역에서 특별렬차를 며칠전 하루밤사이에 운반해 왔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하루밤사이에 추레라떼를 무어 특별렬차를 무사히 수령님곁에 운반해다 놓은것은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령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특별렬차를 타신 수령님께서 자기네 고향마을과 공장,기업소들, 군부대와 초소들을 찾아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남녘겨레들도 수령님께서 특별렬차를 타시고 본계선너머 서울과 부산, 광주와 목포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의 피로운 심정을 지그시 참으시며 수령님곁을 조용히 떠나시였다. 차마 떨어지기 아쉬운 발걸음이었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곁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서있는 특별렬차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렬차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깨끗이 정비된 렬차를 경건한 마음안고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특별렬차는 당장이라도 수령님을 모시고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날 시각을 기다리고있는듯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한생의 력사를 더듬으시듯 의미심장한 안색으로 특별렬차와 승용차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간부들을 둘러보시며 회억에 잠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1만 7천 8백여일의 장구한 기간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명절날과 자신의 생신날, 일요일까지 다 바치시

여 인민들과 한평생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걷고 걸으신 55만키로 메터의 로정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전설과 시와 노래로 되어 꽃피나고있는것입니까.

그래서 이 특별렬차를 인민들은 인민행렬차라고 부르는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이 특별렬차를 보며 자기들을 찾아주신 아버지수령님을 가슴뜨겁게 추억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걱정어린 음성으로 다시 이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다만 이 렬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녘땅에 가보지 못하시고 통일그날을 눈앞에 든채 순직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생전의 간곡한 뜻을 받들어 우리 대에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안광에는 결연한 빛이 어리였다.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을 옆에서 듣고있던 김봉연의 눈굽은 젖어 있었다. 참으로 인민행렬차는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수령님의 력사이고 장군님의 충효의 력사가 기록되어 있는 국보중의 국보가 아닌가.

오직 장군님께서만이 인민행렬차를 수령님 가까이 전시하시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내외인민들이 더 잘 앎도록 해주시였다.

아,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아버지수령님께 충효성을 다 바치시는 그런 충신은 없다.

사람들이여, 인민행렬차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라

인민행렬차는 여기에 멈춰섰으나

오늘도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고있다.

벽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김석전

동트는 새벽하늘을 흔들며
아침창문들을 두드리며
아이들이 거리에 나섰다
복을 치며 노래를 부르며

피더운 가슴들에 새겨보라
이 땀의 공민들이여
무엇때문에 무엇을 바래서

잠많은 아이들이 새벽잠을 잊고
이슬차며 거리에 나섰는가를

심장이 새겨안으라
후손만대 영원한 보금자리
장군님 높이 모신 우리의 혁명주권은
끝까지 빛내이고 지켜달라는
아이들의 간절한 그 부탁을!

최후의 승리는 오리라^{외 2 편}

김송남

신념이 흔들리면 보지 못하리
량심이 흐려져도 아니 보이리
빛나는 시대 크나큰 걸음
나의 조국이 앞당겨오는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뜻깊은 충정의 선거 그 한표한표를
새로운 비약의 디딤돌로 놓았다
보아라 한결 더 푸르러진 이 강산이
력사의 인민회의가 열릴 그날에도
공화국창건 50돐의 그 높은 단상으로
끓없이 설레이며 파도쳐가는것을

우리를 기다리는 더 큰 환희를 마중하여
허리띠 한코 더 조이면서도
뜨거운 땀을 이랑에 묻는 저 가슴들을 거쳐
자력갱생의 빛과 열이 번개치는곳
자강땅 크고작은 타빈들의 회전과
끓어 번지는 성장의 로심을 거쳐
승리는 온다
최후의 승리는 오리라

물려오는 전쟁의 불구름 막아
초병들 총창안고 지켜가는 하루하루
대구경포신들이 번쩍이는 진지 거쳐
만수대에예술극장무대 구에 펼쳐지는

아마도 오늘의 이 하루하루는
내 마음을 물으려 오는것이냐
바람불고 눈비오는 어려운 길우에서
조국과 나누는
속깊은 이야기 그 무엇인가고

사랑에 겨워
내 또한
조국을 사랑한다고
한생 땀과 살에 젖어온 그 말
오늘도 변함없이 것처럼 뜨거운가고

나는 지금 아픈 가슴으로
이 강행군길에
흔적없이 짙어온
자신의 자욱자욱을 끌어 안노니

군인가족들의 흥겨운 춤노래를 거쳐
승리는 온다
최후의 승리는 오리라

장군님의 그 숨길로
장군님의 그 맥박으로
걸어도 오직 백두의 붉은기 높이 들고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힘찬 걸음으로
어서 오라 폭풍우 가셔버린 밝은 미래여
어서 오라 고난을 이겨낸 아름다운 생활이여

우리는 이 땅우에
김일성강성대국의 높은 지붕을 얹으리
그 지붕아래
온 누리는 봄뜨락처럼 화창해지리니

영광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오늘
승리가 승리로 이어지는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주권에 더욱 높이 모시는
력사의 환희로 끓어번지는 땅

새 아침 새 시대를 맞이하는 나의 조국아
크게 웨치자!
크게 숨쉬자!
크게 나아가자!

고백

피로움아
못다한 도리로 저려오는 내 심장이
이것이 오늘의 조국과 나누는
내 마음이다
내 사랑이다

저 멀리 장장 수수만리
내 조국이 빛나오른 길
로고도 많으셨던 수령님의 걸음걸음에
꽃주단 한쪽 깔아뚫드린건
내 그때 철부지나이
세상일 다 몰라 그랬다 해도

한품에 안아 이 조국을 지키시는
우리 장군님
밤낮없이 이어가시는

산험한 전선길 흑한의 북방길에
 눈바람 한점 가려못드리며
 그냥 머리 희여지는 나의 오늘을 두고는
 조국앞에 무슨 말로 용서를 빌것인가

불을 다노라, 나의 심장에 나의 온 삶에
 못다한 일을 위해 타오르라고
 그 빛
 조국의 밝은 웃음에 더해지는

내 깨끗한 사람되려고

사랑에야 어찌 거짓이 있으랴
 가슴타는
 이 진정을 쏟으며
 다하리라 나의 사랑
 준엄한 오늘에 바치지 않는다면
 조국의 래일에 머리들수 없으리!...

나의 조국아

영광은 영광에 이어졌구나
 승리는 승리에 이어졌구나
 억센 뿌리우에 빛나는 반세기를 떠이고
 머리를 높이 든 백두산의 나라

우리는 천만이 한마음으로
 뜻깊은 력사의 선거표를 찬성에 바쳐
 우리 혁명주권을 철벽으로 다졌나니
 우리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며
 나의 조국아 크게 웨치자
 크게 숨쉬자
 크게 나아가자

오곡도 총알처럼 여무는 강산이어
 쇠물도 강쇠로만 굳어지는 땅이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굳센 인간들을 길러낸
 세계의 첫 요람
 그대는 크게 걸어야 한다

그대의 보폭은 커야 한다
 류레없는 력사의 온갖 시련 다 이기며
 평방으로는 재일수 없는 크기와 존엄으로
 위용떨치는 나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모습으로
 그대 위대하고
 그대의 인민 또한 위대해졌나니

내 또한 크게 걸으리라
 인민은 모두 크게 걸으리라
 그 모든 더운 숨결 하나로 이끄시며
 장군님 앞장에서 걸으시는 강행군길
 생각하며 눈굽이 젖고

따라서며 가슴은 끓어
 총진군의 발구름 높이 앞당겨오는
 우리 신념의 승리여
 우리 량심의 승리여

이 땅을 휩쓴 총포성은 없었어도
 류레없는 간고함과 처절함을 휩쓸어오는
 온갖 역풍과 맞선 어려운 이 싸움
 영광에 찬 우리의 반세기를 지키여
 세계의 영원한 미래를 구원할
 백두산의 승리여
 붉은기의 승리여

21 세기의 큰 대문은
 이 승리로 활짝 열리리라
《김정일장군의 노래》 높이
 온갖 역경을 웃으며 넘은 인민
 우리의 자랑높은 국기와 국장을 지켜낸
 가슴 벅찬 자부의 눈물로
 력사의 그날에 차고넘칠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눈물로
 경축의 축배잔은 뜨거워지리
 뜨거워지리

한껏 설레이자
 공화국창건 50돐 대축전의 꽃바다여
 장군님 환히 웃으시며 축복을 보내주실
 영광의 그 흐름은 굽이치리라
 삼천리에 영원할 인민의 봄날에로
 온 누리가 올라설 자주의 언덕에로
 승리는 온다 최후의 승리는 오리라
 조국아! 아, 나의 조국아!

(주체87. 7. 29)

인민들에게 혁명적랑만을 안겨주시며

10월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한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이 땅우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 푸르른 하늘에서는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고

대지에서는 봄내 여름내 군민이 힘을 합쳐 가꾸어 온 알찬 이삭들이 가을바람에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설레이는데 높고 낮은 산들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내 나라의 산과 들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가슴흐뭇하고 볼수록 장관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자는 혁명적랑만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을 곳곳이 걸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고 휘황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락관이며 오늘은 비록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더 좋은 래일을 위해 모든것을 참고 이겨내며 투쟁해 나가는 불굴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 락관, 신념과 의지로 이 땅에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래일을 위한 값높은 삶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바쳐가는 우리 인민들의 랑만, 그 랑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이민위천》의 한생의 자옥자옥이 깃들어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그 위용 떨치는 부강한 강성대국으로, 인민이 살기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지난해 주체86(1997)년 9월 23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인민의 재부로 훌륭히 건설된 구월산유원지를 찾으시였다.

온 나라 인민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던 그 시각,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구월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전사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특색있게 건설한 아름다운 인민의 유원지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였다.

산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한 기쁨을 노래하는듯 구월산은 새롭게 단장된 일만정치의 아름다움

을 한껏 펼치였다. 흰 날개를 펼친 판두루미마냥 추녀를 솟구고 금시 날아갈듯 경쾌하게 일떠선 정각들과 부감대들, 수려한 골짜기와 아아한 련봉들에 비단필마냥 뻗어간 포장도로들, 고색창연한 력사문화유적이며 절묘하게 꾸러진 팔담, 삼형제소, 지원폭포를 비롯한 명소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고 낮은 산발들과 가파로운 언덕길들을 오르내리시며 그 모든 창조물들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에 깃든 병사들의 지성과 수고가 뜨겁게 안겨오시여 자주 걸음을 멈추시였다. 보실수록 찬란한 래일을 가슴에 안고 살며 싸우는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녀이 뜨겁게 느껴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너무도 기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인민을 위하여 정말 큰 일을 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땀과 노력, 지혜와 열정이 깃들어있는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우리 병사들과 같은 열렬한 애국자는 없을것이라고,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의 업적을 거듭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미덥고 대견스럽기만 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정을 안으시고 지원폭포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물이 층층이 흘러내려 절경을 이루도록 독특하고도 자연미나게 만든 지원폭포는 아직 물문을 열지 않았기때문에 세멘트로 미장한 폭포벽이 그대로 드러나보였다. 그래도 당장이라도 물보라를 뽐양게 일것만 같은 볼수록 기묘하고 아름다운 명소의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모두가 황홀경에 취하여 신비로운 자연미에 넋을 팔고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폭포벽의 한곳에 새겨진 글발을 감동어린 시선으로 이윽도록 바라보고 계시였다.

무엇때문일가?...

동행한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의아한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즈기 뜨거운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여기 이 글발을 좀 보시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폭포

벽의 한곳에 눈길을 돌리었다. 순간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젖어있음을 금할수 없었다.

거기에 얼핏 스쳐지나서는 눈에 띄이지 않을 작은 이런 글이 새겨져있었던것이였다.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그것은 명소건설을 마무리짓는 날에 병사들이 새긴 글발이였다.

그 누가 보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남모르는 땀을 흘리며 조국땅에 또하나 뜨겁게 안아올리는 인민의 재부의 한 갈피에 새겨진 병사들의 신념의 글발... 그 누가 보기를 바라서 쓴 글발이 아니였다.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찾아볼수 없고 소문없이 묻혀 버릴수도 있는 글발이였다.

커피란 바위우에 큼직하게 새긴것도 아닌 폭포벽의 세멘트언제우에 작고 가느다랗게 쓴것이여서 누구도 선뜻 알아보지 못한 글발, 바로 그러한 글발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놓치지 않으시고 읽어보신것이다. 진정 병사들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거기에서 전사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시는 그이께서만이 발견하실수 있는것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글발을 가리키시며 하시는 말씀은 더없이 뜨거우시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 병사들의 랑만입니다. 길지 않은 이 글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리 병사들의 사랑과 확신이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습니까!》

격하신 심정을 금치 못하시며 오래도록 글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거연히 서시여 구월산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더듬고 계시였다.

건설의 나날 눈비를 맞으며 이 산정에 소문없이 바친 병사들의 땀을 헤아려보시는가, 이 땅의 일목일초도 아끼여 길가의 애 어린 머루넝쿨도 고이살리고 지켜낸 전사들의 그 가룩한 마음을 안아보시는가, 가장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누구보다 앞장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옹호보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 병사들의 장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애오라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기원하여 자기들의 위훈이 아니라 미래를 부르는 목소리, 래일을 위해 오늘에 바치는 불타는 사랑과 승리의 신심을 아로. 새긴 한없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값있는 그 기록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보신 혁명적랑만, 참으로 그것은 광명한 미래에 자기를 강그리 바치는 삶만이 낳을수 있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나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는 우리 군대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시대의 랑

만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깊은 그 글발을 되새겨 보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구월산유원지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로동당시대의 귀중한 창조물입니다. 나는 조국의 룡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환희와 격정의 파도가 산정에 세차게 일렁이였다.

명소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이 쌓아올린 위훈의 탑을 디시금 보고싶으시여 구월산의 주봉인 사향봉에서 변모된 명산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만면에 해빛같은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구월산의 전경과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조국의 장엄한 화폭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치입니다. 얼마나 장쾌한 모습입니까. 당에 무한히 충직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있는 한 우리는 이 땅위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안아올린 거창한 창조물에서 보다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여 위대한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략관과 승리의 신념으로 충만된 조선의 영원한 랑만의 원천을 받아안은 병사들과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그렇다.

병사들의 랑만, 인민의 랑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랑만, 조선의 랑만이다.

장군님 따르는 길에 광명한 미래가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고난을 밝은 웃음과 명랑한 노래로 헤쳐나가는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

혁명적랑만을 지니고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안겨주신 위대한 랑만을 안고 우리는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로 들어설것이다.

그 위대한 랑만의 정신이 비껴여 내 조국의 하늘은 저렇듯 높고 저리도 푸르청청한것 아니던가.

본사기자 최용호

밝은 앞날

김정길

선박공업을 취급한 소설을 창작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소에 나가있던 나는 현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조국청사에 아니, 인류사에 특기할 뜻깊은 그날 나는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끝없는 걱정과 무상의 희열, 벽찬 환희를 도저히 견잡을수없어 밤이 지새는것도 모르고 조선공들이 벌린 흥겨운 춤판, 노래바다에 뛰어들었고 밤교대작업을 하는 성수난 배무이공들속에서 옛 제판공의 소비를 살려용접의 불꽃을 축포마냥 피워올렸다.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흥분의 도가니는 더더욱 세차게 끓기만 하여 새날이 희뵈히 밝을 무렵에는 즐거울 때면 노상 찾곤 하는 진수대형방파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가 세워진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사적비앞에 이른 나는 머리칼과 옷자락을 날리며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는 서해를 바라보았다.

바다에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새겨넣은 대형선박들이 짝 덮여 춤추듯 흥떡이고 있었으며 물의 선대장에는 건조조에 있는 여러척의 산악같은 선박들이 거대한 웅자를 자랑하며 위풍당당하게 서있었다.

해방전엔 몇척의 쪽배가 하늬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떠다니더 서해바다에 대형선박의 군단이 한벌 덮인것을 보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던 나는 뒤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키가 크고 몸이 보기 좋게 난 련합기업소 지배인이 벌겍게 상기된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훔치며 걸어오고있었다.

출판에서 그를 보았던 나는 이제껏 춤을 추었는가고 물었다.

《그렇소. 작가동무도 오래전부터 알다싶이 나야 본시 춤이라면 십리나, 달아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지만 일생 다시 없을 민족적인 대경사의 날에 내 어찌 남들이 추는 춤을 보고만있을수 있겠소. 그래 출판에 뛰어들었는데 팔다리가 글썽 저절로 돌려지고 어깨가 으쓱거려지더군요.》

그는 줄기차게 흐르는 물마냥 거침없이 하던 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잇는것이였다.

《그런데 내가 혹시 작가동무의 창작적사색을 방해하는거나 아니요?》

작품을 쓰기 위해 깊고 넓은 사색의 바다를 건널 때면 내가 방파제로 나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비앞을 시간 가는줄 모르고 거닐곤 한다는것을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는 그는 말끝을 흐리며 주뭇거렸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대경사를 두고 지배인동지와 만나 마음속 걱정을 터쳐놓고 싶었던 참입니다.》

《그참 어쩌면 내 심정과 그리도 같소. 실은 나도 오랜 친구인 작가동무와 얘기를 나누고싶어 여기로 나왔다요.》

그가 나를 오랜 친구라고 하는데는 조금도 무리가 없다. 서로 알고 지내오는지 40년이 가까와오기 때문이다.

내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소에 입직하였을 때 그는 작업반장을 하고있었다.

그후 내가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고 출판사에서 기자로 일하다 작가로 되었을 때 그는 직장장, 기시장을 거쳐 련합기업소의 지배인으로 성장하였다.

일욕심이 여간 많지 않은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선박공업부문에 주신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회의나 출장가는 때를 내놓고는 조선소 울타리를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사무실과 조선공들속에서 줄창 일을 했었다.

《작가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보도를 접하고보니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 조선소에 오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먼발치에서 처음으로 뵈웁던 일이 었그제있는 일이런듯 생생히 떠오르누만요.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조한 강철선 <선홍>호를 바라보시며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며 위대한 김정숙동지께 이제 어른이 되면 산같은 배를 많이 무어 바다에 짝 채우겠다고, 그래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겠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때 그이께서 하신 말씀의 속깊은 뜻을 다는

깨닫지 못했더랬소. 그러나 조선공이 되어 배를 무으면서 그때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깊고 의미심장한가를 알게되었소.》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회오에 잠긴 그를 보는 순간 나의 머리에는 문득 기자로서 새로 무어 낸 배와 조선공들을 취재하려 이곳에 왔던 일이 해묵은 추억의 갈피를 헤치고 선히 되살아났다.

주체57(1968)년 초가을이었다. 여기 조선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5,000톤급 배를 무어냈다. 만톤급 대형선박의 링마루로 치달아오르기 위한 준비단계의 배였다. 그때 갓 기사장이 된 그는 반년동안에 큰 배를 무을데 대한 과업을 받고 찢찢했다. 현측에 철판을 잘라붙이는 종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정된 기일내에 건조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참모일꾼들과 이마를 마주하고 협의를 거듭했다. 실용적인 가치있는 안들이 많이 나왔으나 그 안들으로써도 반년만에 배를 못기는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 두달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제 날자에 선박을 건조할수 있을가 하여 자기판의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보냈으나 신통한 생각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쳤다.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소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박건조정형과 걸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나서 새형의 선박을 못는데 왜 기존방법에 매달리는가, 대형선박을 무려면 종래에 배를 못던 식으로는 안된다, 선대장에 배를 앉혀놓고 기중기로 철판을 한두장씩 날라다 붙여서야 언제 큰 배를 못겠는가, 땅우에서 배토막을 크게 묶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배를 무으라,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질도 보장할수 있을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대형선박건조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고 선박공업이 나아갈 길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배를 제 기일에 무을수가 있었던것이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선박공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걸으신 현지도의 길은 그 얼마며 전화로 혹은 일꾼들을 집무실로 부르시여 주신 말씀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하여 우리 나라 선박공업은 다른 나라에서 수백년이 걸려서야 들어선 경지에 몇십년어간에 당당히 올라선것이다.

《작가동무, 나는 바다를 덮은 저 대형선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를 가슴벅차게 느끼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만 군

게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한데 그제 어디 선박공업뿐입니까. 당도 군대도 그리고 경제도 문화도 다 그렇게 비약적으로 추켜세우셨지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0여 년간에 말입니다.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해, 인민을 위해 베푸시는 사랑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를 통해 장군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걸출한분이신가를 온몸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그 절감이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케 한것이며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우리 조국의 앞날은 더 밝고 더 휘황하다는것을 확신케한것입니다.》

《작가동무, 옳소. 그래서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그리도 기뻐하고 그리도 열렬히 축하하는거요. 온 세계가 주체사상화된 밝은 앞날을 굳게 믿기에!》

그는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온 세계가 주체사상화된 밝은 앞날!

나는 입속으로 힘주어 되뇌이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어느해 늦가을, 외국을 방문하고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선 이른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시며 동행한 일꾼들에게 그전에는 다른 나라에 가보면 부러운것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가서 그 나라의 건축물을 보아도 그렇고 당건설경험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별로 부러운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환희에 넘치시여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야,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환히 밝고 창창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생각할수록, 되새길수록 힘과 용기, 신심과 락관이 온몸을 휩싼다.

환히 밝고 창창한 조선의 앞날!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미래!

온 세상 인민이 경건히 우러르고 따르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도래할 새 시대와 새 세기를 한껏 펼치며 더욱 찬란히 빛날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조선에 높이 모신 더없는 공지와 자랑, 영예를 안고 조선소의 넓다란 운동장에선 춤추며 부르는 조선공들의 노래소리, 새납소리, 복소리가 고조를 이루었는데 건조중에 있는 대형선박우에선 조립공들이 집채만한 배토막을 물고 달리는 200톤급 문형기중기를 더 빨리 오

라고 부르고있다. 용접공들은 배를 단숨에 무어낼
 듯 파랗고 빨간 용접불꽃을 기세좋게 피워올리고
 절단공들은 두꺼운 철판을 신이 나게 광광 갈라내
 고있다. 그런가 하면 공장방송차의 방송원은 보름
 에 할 작업량을 간밤에 해제꼈다고, 대형선박이 분
 초가 다르게 우줄우줄 솟는다고, 이기세로 나간다
 면 오늘중으로 또 한척의 배를 완성할수 있다고 격
 조높이 웨치고있다.

나는 실로 크나큰 환희와 걱정애 넘쳐 동쪽을 바
 라보았다.

동쪽에선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
 대되신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축하하듯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

오르고 넓은 바다에서 어깨결고 늑실늑실 밀려온
 파도는 방파제에 뜨거운 입을 열정적으로 맞추고는
 수천만개의 물알갱이를 하늘높이 추켜올려 칠색령
 뿜한 무지개를 세웠다. 그리고 갈매기들은 여느때
 없이 정겹게 우짖으며 해변가를 경쾌히 날아예고있
 다.

아, 인류도 자연도 다같이 축복하는 21세기의 태
 양 **김정일**장군!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 세면의 바다에 꼭 들어찬 대형선박, 강성대국
 으로 세계만방에 위용떨치는 조국의 밝고 밝은 앞
 날이 환히 안겨왔다.

이날에 살자

림성희

솟구치는 걱정
 달아오른 심장 그대로
 건설장의 밤을 우등불로 태우는
 돌격대 나의 동무들아

우리 언제나 이날에 살자
 미래가 더 밝아진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우리 언제나 이날에 살자
 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감격의 이날에

세월이 흘러
 우리의 머리에 백발이 날린대도
 이날에 살자 동무들아
 환희로 뜨거운 이 가슴들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을
 세기의 하늘높이 모신 청춘들아
 장군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분
 우리와 생사운명을 같이 해오신분

그렇게도 친근하신 그이는
 그렇게도 매혹되는 그이는
 청춘의 꿈을 제일로 아름답게 꽃피워주시고

청춘의 미래를 끝없이 창창하게 열어주시는
 우리의 푸른 하늘! 우리의 밝은 해님!

그 하늘아래서 로동당시대의 청춘들은
 내 조국을 지키며
 내 나라를 떠받들며
 청춘의 삶을 빛내여가거니

장군님을 받들어
 이날에 굳세어진 우리의 신념은
 그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리
 이날에 다진 우리의 맹세는
 세월이 가도 변치 않으리

아, 이 나라의 청춘들아
 열정에 끓는 이날의 심장으로 한생을 살자
 이 신념 이 맹세로
 내 조국의 번영을 안아오며
 청년들아 자기 위치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력사의 한구간을
 장군님을 받들어 빛내여가자
 그이만을 닮아 피가 뛰는 청춘들아
 위훈으로 세월을 수놓으며
 이날에 살자! 이날에 살자!

푸른 거목

로익수

8월의 폭양은 뜨겁게 내리쬘었지만 우산장의 수림은 서늘한 그늘을 던져주며 땀을 식혀주었다.

작가동맹창립 52돐을 높은 창작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창작전투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우리 작가들을 만나보려고 여기 우산장에 온 나의 감회는 새로왔다.

해방후 주체36(1947)년에 이곳에 와본 후로는 50여년만에 다시 찾은 고장이니 어찌 감회가 새롭지 않으랴.

나의 고향은 룡강군 삼화리이다. 우산장에서 그닥 멀지 않은 농촌마을이다.

열살되던 그해 나는 농민휴양을 온 아버지를 찾아 이곳 우산장에 왔었다. 빛갈 고운 물고기들이 꼬리치며 노는 푸른 호수, 싱싱한 록음, 만발한 꽃들에 둘러싸인 휴양각들이 우산장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으로 어린 나의 머리에 인박혀졌다.

아버지를 무척 따르던 나는 어느 일요일날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 몰래 집을 나와 우산장으로 갔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책망할 대신 나의 손에 들국화꽃 묶음을 들려주고 푸른 편꽃잎이 한벌 덮인 늪우에 등실 뜬듯한 정각의 무지개다리우에 나를 세우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그날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나에게 소중히 보관되어있다.

늪과 정각을 배경으로 나를 곁에 세우고 서서 활짝 밝게 웃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없는 행복감과 기쁨이 가득 어리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진은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그리움을 더 해준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에는 지주놈의 등쌀에 허리 펴날 없었던 천덕꾸러기, 가난뱅이 소작농으로 살아왔었다. 그러했던 나의 아버지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땅을 주시었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농민휴양의 혜택까지 배풀어주시었다.

사진을 찍은 다음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휴양소 구내를 거닐며 말했다.

《잘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서 휴양을 하는가 잘 봐두거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아버지께

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오늘은 또 이런 별천지에서 즐기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었구나. 익수야, 아버지 농사를 더 잘 짓구 년 공부를 더 잘해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꼭 보답하자.》

그때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손잡아 이끌어주던 아버지의 행복넘친 모습과 휴양소의 아름답고 황홀한 전경은 잊을수 없는 화폭으로 나의 기억속에 새겨져있다.

아버지와 함께 못가 거닐던 나는 문득 평장히 큰 느티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한쌍의 원숭이가 느티나무가지에서 재롱을 부리며 놀고있는것도 볼만했지만 느티나무가 너무도 큰것이 놀라와서였다. 밑둥이 아마 나의 아름으로는 열아름도 더 될상싶었다. 그렇게 큰 느티나무는 보다 처음이었다. 느티나무는 한쪽으로 휘두듬하니 구부러들었다가 다시 곧추 솟아올랐는데 나무줄기들이 우산처럼 사방으로 쪽쪽 뻗어나갔었다. 하지만 어쩐지나무는 앙상하고 처량한 감을 주었다. 더우기 한쪽 밑둥이 구세가 먹어서 서너사람이 들어갈수 있을만큼 커다란 구멍이 평 뚫려있어 당장이라도 똑 부러져 넘어질것만 같은 위구를 느끼게 하였다.

그때 철없는 나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 자랐을가 하는것과 이런 나무가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동무들과 함께 숨바꼭질놀음을 하기에 얼마나 좋을가 하는것이였다.

《아버지, 이 나무는 얼마나 오래 됐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음, 아마 몇백년 잘 됐을게다.》

나무갓을 둘러보며 아버지가 대답했다.

《나무가 오래 살면 이렇게 돼나요?》

《그럼, 이 나무는 이제 다 산 고목이란다. 나무가 늙어 고목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지. 사람도 늙으면 마찬가지야. 그래서 늙지전에 일두 더 많이하구 나리에 보탬되게 살아야 하는거란다.》

그 느티나무에 대한 인상은 그날 찍은 사진과 함께 우산장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마을을 지키다가 원쑤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했다. 아버지를 빼앗아 간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피끓는 복수심을 안고 유자녀학원에서 공부하던 나날이나 사회에 나와 일할 때나 나는 언제나 그날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곤 했다...

5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 바로 그 느티나무앞에 다시 서게 된 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아니 그전보다 더 푸르싱싱하게록음을 펼치고있지 않는가. 터슬터슬하고 거무튀튀하던 나무줄기도 청정한 빛을 머금은 윤택이 흐르고있었다.

나는 너무도 신기하여 구새먹었던 흔적을 찾아보았다. 커다란 구멍이 펴 뚫렸던 곳은 다 메꾸어져 다른 부분과 똑같은 색깔로 한 모습을 이루고있었다. 알뜰락말락 허물자리가 남아있을뿐이었다. 울창한 느티나무의 록음속에서 매미들이 땀땀 울어대고 있었다.

너무나도 달라진 느티나무의 모습에 어리둥절해져 그앞을 떠날줄 모르는 나에게 관리원처녀가 다가오더니 느티나무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방후 어느날 이곳 우산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구새먹은 느티나무앞에 이르시여서는 터슬터슬한 줄기를 손수 쓸어보시며 구새먹은 자리를 세멘트땀을 하여 메꾸고 잘 관리하여 나무가 오래 살게 하여 우산장의 풍치를 돋구도록 하라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후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구새먹은 느티나무를 보시고 수령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교시하신 나무인데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곳 종업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모두가 떨쳐나 구새먹은 구멍을 메꾸고 세멘트땀을 했으며 정성담아 관리하였다. 거름도 매해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구새먹은 자릴 메꾸는데만도 벽돌이 세 달구지나 들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느티나무는 오늘까지 푸르싱싱하게 자라 무성한 록음을 펼치고있는것이다

이 나무는 수명이 삼사백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수명을 다 산 고목임이 틀림없다. 50여년전 나의 아버지도 이 나무는 쓸모없는 고목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 이 나무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속에 청춘기를 다시 맞이하여 푸른 거목으로 높이 솟아 설레이고 있는것이다.

자연의 태양의 빛발속에서도 로쇠를 막을길 없애고목으로 스러져가던 느티나무를 푸르려 설레이는 거목으로 재생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어찌 이 느티나무뿐이라.

이 우산장의 나무 한그루, 휴양각 하나하나에는 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 있다.

우리 작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작가들의 창작조건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이 작품을 잘 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창작실을 꾸리고 거기에 가서 글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창작실을 우산장휴양소에 꾸려주자고 하시면서 우산장을 우리 작가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그리하여 우산장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실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여기서는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해방전에는 돈있는자들의 유흥지였던 우산장을 근로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기지로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

그 사랑, 그 은정은 푸르른 거목으로 자라나 설레이는 저 느티나무에도 깃들어 있거니.

이제 저 느티나무는 앞으로 천년을 더 살며 여기 우산장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사랑의 전설을 길이 전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믿음을 영원히 심장에 새겨안고 혁명의 붓대로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충신, 효자로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갈것이다. 사시장철 언제나 변함없이 창공을 받들고 억세게 서있는 저 푸른 거목처럼...

느티나무여.

천년만년 영원히 그 푸르름을 잃지 말고 설레이라.

영원한 청춘으로!

어머니당에 대한 생각

김명익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다정하고 정다운 부름을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를 낳아 키우느라고 온갖 시름을 다 겪으면서 줄수 있는 모든 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준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잊을수 없기때문이며서인지 모른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머니의 그 이름을 빌어 은혜로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른다.

나는 얼마전에 목격한 하나의 평범하고도 자그마한 사실앞에서도 고마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삶과 보람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을 가슴뜨겁게 느끼었었다.

나는 과학교육분야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여러 명의 일군들에게 학위학직을 수여하는 모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만사람의 축복속에서 교수, 부교수와 박사, 학사 칭호를 수여받은 그들이 회의장밖으로 나오고있을 때였다. 이제나저제나 밖에서 기다리고있던 한무리의 사람들이 박사메달을 목에 건 키가 후리후리하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화학자에게 달려가 저저마다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겨주는것이였다. 그런데 내가 얼핏 보기에는 꽃다발을 안겨주는 그들이 화학자의 친척들과 친구들만이 아닌것 같았다. 나이도 생김새도 각이한 그들속에는 중학교와 인민학교 학생들도 끼여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화학자를 에워싸고 진정이 담긴 목소리로 축하의 말을 하고나서 마치 약속이나 한것처럼 그를 앞세우고 어디론가로 걸음을 재촉하는것이였다.

화학자와 함께 그들이 다달은 곳은 시내 중심광장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이였다. 한결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그들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고있던 나는 직업적인 호기심이랄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들을 만나서 알아보니 방금 박사칭호를 수여받은 화학자는 해주의학대학 강좌장인 조휘주동무였고 그밖에 모든 사람들은 화학자에게서 수술치료를 받은 이전날의 환자들이였다.

그들중에는 35년전에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앓은 병이었던 사람도 있었으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화상을 당하였던 처녀도 절름발이였던 소년도 있었다. 그들모두는 이전날의 상처입은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육체적기능을 회복하여 오늘은 제련소 용해공으

로, 녀성뜨락또르 운전사로, 배우로, 축구선수단의 공격수로...사회주의 조국의 대지를 활보하며 자기 맡은 초소에서 훌륭히 일하고있는것이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 로박사이며 강좌장인 조휘주동무와 강좌집단의 정성과 새로운 수술치료방법에 의해 종신불구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던 500여명의 환자들을 원상회복시켰다니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그가 바친 고심참담한 탐구와 노력은 얼마였겠는가.

《박사선생님은 정말 인민을 위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선생님이 받은 박사증에 그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로박사와 조용히 만난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탄의 말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저로서는 그런 과분한 말을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것은 자식의 도리이지요. 당의 따사로운 품이 아니었다면 저는 길가의 조약돌이나 굴러다니는 락엽의 신세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었을것입니다. 진정 당은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사색질은 로박사의 안경을 낀 눈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어랑군의 외진 산간벽촌에서 화전민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여덟살 철부지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로 되였다. 가까운 친척들도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발진티브스에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그것은 해방전의 일이었다.

의지가지랄데 없는 고아인 그를 당은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고 키워주었다. 나라가 전쟁을 겪고 혼전을 쪼개가며 전후복구건설을 하던 어려운 때에 당에서는 그를 고급중학교를 거쳐 함흥의학대학에서 공부시켜 주었다.

대학의 전당에서 그는 단순히 과학탐구를 위한 지식만을 습득하지 않았다. 그 당시 함흥의학대학 병원에는 3도화상을 입고 사경에 처한 한 소년이 입원하고있었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그 소년에게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속에는 대학생이였던 조휘주동무도 있었다. 그 나날은 자기의 의학과학지식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바쳐져야 하는가를 의식하는 과정이었으며 어머니 조국이 인민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깊이를 새라 새롭게 깨닫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군중대회의 높은 연단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

서 화상당하였던 어린 소년을 가슴에 꼭 껴안으시고 환호하는 군중에게 만면의 환한 미소로 답례하실 때 조취주동무는 당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은 우리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었다.

(내 한생을 다 바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어머니당이 빛내여 준 조국을 과학기술의 성과로 반들어가리!)

이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걸음을 떼는 조취주동무의 굳은 맹세였다.

낮에는 교단에서, 밤에는 병원과 실험실에서 현대의학과학이 이룩해놓은 외과수술치료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림상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는 나날은 해와 해를 거듭하였다.

그 나날에는 절망적인 실패도 있었으며 막다른 골목에 맞닥들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에게 힘과 용기, 정열과 높은 탐구정신을 북돋아주고 손잡아 이끈 것은 당의 믿음과 기대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자면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래야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기술적우위》를 떠드는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발전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과학자가 되기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험난한 과학탐구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조취주동무의 좌우명으로, 신념과 의지로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특골재료로 모자라는 백의 부분을 이식하는 가관절의 절제방법이라는 새로운 수술방

법을 연구완성하였으며 어린 아이들의 골절후유증을 전혀 새로운 수술에 의한 치료방법을 연구하여 림상실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자기의 과학연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현대의학과학지식을 익혀주는 교수교양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모색하고 그에 정력을 기울인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보건부문에 배치되어 일하고있는 제자들을 계획적으로 찾아가 탐구정신을 불러일으켜주고 방조를 주는 사업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였는바 그렇게 키워낸 학사들과 권위있는 외과의사의 수가 50여명이나 된다.

《...예로부터 아버지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를 당원으로, 나라의 유능한 박사로, 교육자로 키워준 어머니 당과 조국의 사랑과 은정은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높고 깊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을 하자면 한생을 다시 산다해도 시간이 모자랄겁니다...》

정녕 부르면부를수록 눈곱이 뜨거워지고 돌이켜 보면 볼수록 그 고마움이 가슴에 차고넘치는 어머니당의 품! 그 품이 있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나라의 영웅으로, 박사로, 대의원으로 자라날수있었으며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인민으로 당당히 가슴펴고 살아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자신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다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우러러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파감히 다그쳐나가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병사의 군복에 대한 생각

김광민

한낮의 강반
훈련마친 병사들 군복을 빨 때면
누나, 나는 어쩐지 누나 생각이 나요
자주 옷을 뚫이던 시절
어머니 속상해서 어성을 높일 때면
내 슬그머니 누나 신세를 지군 했지요
철없던 나는 행복했던가봐요
어머니사랑 누나 사랑을 이쪽저쪽 받으며
누나, 병사의 군복은
넓어서가 아니라 땀에 절어 빠는 땀빨래
내 이제는 모든게 서툴지 않아요

입막고 웃는 누나 얼굴이 물결에 어리면
나는 물을 한웅큼 뿌리지요
그러면 누나는 없어졌다가도
또 나타나 웃고...
누나, 누나는 늘 말했지요
사람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 중대장은 심각히 말했어요
병사야말로 가장 깨끗해야 한다고
땀으로 몸을 닦으라
인민의 옷이 피로 물들지 않게...

(주체87. 7. 22)

나의 작가생활을 더듬어

《김일성상》 계관인 시인 최영화

나의 작가생활을 더듬어보는 이 글을 쓰려고 붓을 드니 어쩐지 붓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나는 붓과 함께 한생을 살아오면서 내 님과 회로 애락의 감정을 붓으로 써낸 시인이다. 말하자면 붓은 내 한생의 시창작의 무기였고 나와 운명을 같이한 친근한 길동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우리 당 기발에 마치고 님과 함께 새겨주신 붓! 나는 우리 당 기발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로동자, 농민과 함께 우리 당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지식인이라는 높은 긍지를 느끼는 동시에 당기발에 새겨진 붓으로 시를 쓰는 당의 시인이라는 높은 영예감을 장렬하게 느끼군한다. 이 영예감이 어찌 나 혼자만이 느끼는 감정이라. 조선의 작가라면 누구나 다 이 영예감을 심장에 깊이 간직하고 창작활동을 벌리고 있을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작가들은 모두가 다 당의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당의 붓! 이것은 진정 조선의 작가들만이 틀어쥐고있는 필봉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작가들이 당의 이 붓을 튼튼히 틀어쥐고 걸어온 역사적로정은 참으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혁명소설들과 혁명영화 <조선의 별>,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여러가지 문학예술작품을 수많은 창작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내 오늘 세월을 거슬러 우리 작가들이 출발의 님을 올리고 떠나온 그 첫기슭을 감회깊이 더듬어보노니,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그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해방된 조국땅에 흠어진 작가들을 친히 한 사람한 사람 찾아내시여 새 조선의 작가대렬을 꾸려주신 주체35(1946)년 10월13일은 이 땅에 처음으로 당의 령도를 받는 작가동맹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탄생의 첫 고고성을 높이 올린 영광의 날이였다.

이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쉰두해, 우리 작가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당사상전선의 혁명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면서 자기의 력사를 빛나게 수놓아왔다. 하지만 동맹이 헤쳐온 길은 순탄한 길

만이 아니였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길이었다. 동맹은 첫걸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제의 사상문화적잔재를 청산하고 부르조아반동작가들과의 투쟁을 해야 했으며 미제를 쳐부시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도 헤쳐야 했으며 간첩, 파괴암해분자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벌려야했다.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는 투쟁과 반수정주의투쟁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작가동맹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장군님의 령도를 굳건히 받들고 온갖 반혁명적,반당적 요소들을 깨끗이 가셔버리며 빛나는 승리적전진의 길을 자랑차게 이어왔다.

이 자랑찬 길에서 우리 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혁명적수령관, 주제의 문예관으로 철저히 무장한 수령님의 작가, 장군님의 작가로 성장하여 왔으며 오늘 마치 여름날의 푸르청청한 밀립처럼 당의 작가대렬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나 역시 이 길에서 그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며 그 모든것을 사상정신적으로, 실지 생활로 직접 체험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려 온 로세대시인이다.

나는 지난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70나이까지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일군으로 창작 및 행정 지도일군으로 사업해오다가 얼마전에야 비로소 작가로 되어 창작생활을 벌리고있다.

남들은 일생동안 작가생활을 하여 많은 창작적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있는데 인생말년기를 맞이한 지금에야 창작의 출발선에 나서게 되었으니... 스스로도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드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나는 이제부터라도 분발하여 남다른 결심을 안고 창작의 새 출발선에서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과녁은 앞에 있다.

왕성한 창작적열정과 사색, 불굴의 의지로 련속적인 실력전을 벌려 젊은 시절에 미처 다하지 못했던 당의 작가로서의 명분을 뒤늦게나마 손색없이 세워나가는것, 오직 이것만이 나의 여생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야만 나는 비로소 장군님의 작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참답게 지닐수 있을것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나는 오늘의 로작가생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나는 창작의 미숙한 단계를 거쳐 전후부터 사업의 여가를 타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내 한생의 창작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룬것은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김일성종합대

학시절 가련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4월13일에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북받치는 흥분과 감격을 안고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작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읊어드린 그 영광의 날의 헌시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고 가슴뜨겁게 추억하며 우리 수령님께서 미숙한 헌시들 다 들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주시던 일, 후일 우리 장군님께서 이 헌시를 보시고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하신 그 일을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잊지 못할것이다. 실로 이 헌시는 나의 시의 뿌리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나는 대학시절에 시들을 써가지고 작가동맹과 여러 선배시인들을 찾아다니며 지도를 받아 출판물들에 발표하였으며 그후 전쟁시기에도 적지않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지만 나의 심장과 시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것은 오늘도 백송혁명사적지언덕에 《헌시비》로 높이 솟아있는 이날의 헌시였다.

이날 나의 시 세계에 내려진 그 뿌리는 전후에 들어서면서 곧은 줄기를 뻗쳐 마침내는 나의 시나무에 푸른 아지들을 치기 시작하였다.

나의 시나무의 줄기를 굵게 하고 그 아지들이 푸르게 자라게 하는데서 당은 은혜로운 태양이였고 혁명적현실은 비옥한 토양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태양의 빛과 기름진 땅이 없었다면 나의 시나무가

어찌 존재할수 있으며 지금까지 성장할수 있었으랴!

말그대로 나의 시창작생활은 당의 령도밑에 작가동맹의 력사와 함께 흘러왔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작가련맹의 탄생일을 맞는 오늘의 나의 감회도 이처럼 깊고 뜨거운것이다.

나는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두분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두분의 가르치심을 심장의 피로, 온몸의 뼈와 살로 삼으면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시창작활동을 벌려왔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이 장군님의 시인이고 당의 기수임을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자부한다.

그리고 나의 시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세상에 노래하는 당의 신임을 크나큰 영예감을 안고 자부하는바이다.

나에게 이런 자부가 없다면 내 어찌 조선의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나의 시를 당의 시라 할수 있겠는가. 나는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태어나 고향이 되도록 시인으로 살며 창작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안고있다. 내 비록 몸은 늙었어도 창작적사색과 열정만은 젊었던 그 시절처럼 불태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주체의 붉은 기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를 목청껏 노래하는 장군님의 시인으로 끝까지 잘며 창작하는데 나의 여생을 강그리 바칠것이다.

수기

꿈과 현실

소설가 남대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창립되어 선두돌기의 년륜을 새기게 된다고 하니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하나의 화폭이 있습니다. 그것은 52년전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어 어느덧 튼튼하고 푸르싱싱한 가지들을 한껏 펼치고 서있는 거목이 뚜렷이 새겨지면서 나도 그 무성한 가지들중의 하나라는 가슴 뿌듯한 긍지입니다. 그러면서 은연중 파사로운 해빛아래 그 거목의 자그마한 싹으로부터 아지로 자라날수 있었던 꿈같은 과정을 뜨거움에 목메여 돌이켜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나라와 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그대로 성취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 소원이 아무리 크고 간절한것이라 해도 후에 돌이켜보면 무지개를 잡으려

는것과 같이 엉뚱한것에 지나지 않았던것으로 간주되기가 십상입니다.

남조선의 궁벽한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적부터 선생님이 되어봤으면 하는것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것이 유일한 소원이였습니다. 교육자에 대한 진정한 리해에서라기보다 가난한 생활사정으로 상급학교는 물론 국민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시골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그런 소원을 간직하게 했는가봅니다. 사실말이지 그보다 더 부러울것이 없을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이 곧 저에게 지나친 욕심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비들 위해 하루종일 폐기발에 나가 살지 않으면 안되는 식구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피타는 노력으로도 종내 학교에 다닐수 없게 되어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사는 처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던것입니다.

과연 이런 저에게 무슨 꿈이고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의 꿈은 이렇게 무지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열네살나던 주체49(1960)년이었습니다.

도교조선중고급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저는 실로 많은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이 무엇이고 우리 수령님이 어떤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어렵듯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보람있는 삶인가를 어느정도 깨닫게 된 저는 주체53(1964)년초에 독신으로 귀국의 배길에 올랐습니다. 조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즐겁고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행복으로 이어진 조국에서의 생활은 저의 가슴속에 새 희망의 꿈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릴적처럼 교단에 선 선생이 아니라 글을 한번 써봤으면, 글쓰는 작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생각입니까. 소원이라기보다는 황홀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 그런 욕망에 제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의 욕망을 안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창작과를 지망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과정에 지향이 달라질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런 변화라기보다 지나친 행복에 대한 응석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엔 별들날이 없어 한치의 코알도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던 주제에 오늘에 와선 말을 태워주니 견마까지 잡히고싶다는 격이니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조국은 저의 그런 응석에도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뿐더러 온갖 사랑을 아낌없이 돌려주었습니다. 더우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작품을 쓸만한 재주나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던 저를 친히 룡마에 앉혀주시었을뿐 아니라 길을 잘못들지 않게 교배까지 든든히 잡아주시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내려가 용해공으로 일하고있던 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현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글을 쓰고있다는데 작가동맹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데 대해서와 앞으로는 자신께서 일본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꼭 훌륭한 작가로 키우겠다고 하시었던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생활의 진미를 눈물로 체험한 사람이라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간것은 잘되었다고 하시며 작가로 되기위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감곡히 가르치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넘친 교시를 전달받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분간할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현실에서는 이를수가 없기때문에 몽환으로 나타나는것이 꿈이고 그래서 아무리 애타게 바래도 가망이 없는것을 꿈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현실로 그것도 가장 화려한 현실로 된 이것을 어찌 꿈이라고 할수 있느냐말입니다.

저의 꿈은 이렇게 활짝 꽃피었습니다.

제가 그후 어떻게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다음 현역작가가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위대한 수령님의 친아버이사랑으로 하여 작가대렬에 들어서긴 했으나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싹에 불과했던 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떤 은정을 베푸시어 그 싹을 키우시고 보살펴주시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현실체험을 토대로 하여 쓴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발표하였을 때였습니다.

기량도 경험도 없는데다가 처음 쓰는 장편이어서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과작으로 내세워주시었을뿐 아니라 서울에서 《청춘송가》가 출판되자 이젠 남조선사람들도 아는 작가가 되었다고 기뻐하시며 북남작가회담 때에는 북측대표로 추천해주시고 외국에서 국제문학토론회가 진행될 때에는 우리 나라 작가대표로까지 파견해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아직은 이렇다할 실적도 공로도 없는 저를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지난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태양찬가》를 썼을 때에는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태양찬가》의 연속편으로 되는 총서과제를 맡았으나 현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것을 료해하시고는 친히 저를 한달동안이나 일본에 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이처럼 활랑한 불모지에 외로이 피어나 모진 바람에 쓰러질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한 부평초와 다름없던 저를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동맹이라는 거목의 든든한 아지로 자라고 열매맺도록 밝은 해빛과 풍만한 자양분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취재차로 일본에 갔을 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꿈을 현실로 그것도 자기가 바라던 몇배이상의 화려한 현실로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써서 올릴수 있을가 하는것이 이젠 저의 유일무이한 꿈, 간절한 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소원이기도 하다면 아버지는 그 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힘으로 기어이 아름답게 꽃피워야 한다고, 그래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보답드리는것으로 된다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하늘높이 솟아오른 거목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든든한 가지를 뻗치며 기운차게 푸르싱싱 자라는 많은 가지들중에 나의 아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미구하여 피여날 아름다운 꽃송이를 그려봅니다.

바로 그 꽃, 아니 저의 간절한 그 꿈을 하루속히 현실로 안아오기 위하여 끝없이 분투하며 오늘을 살고 래일을 살립니다.

향도의 자욱을 따라 6천리

김대성

산골군의 자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이 매우 잘되었습니다.》

장자산발전소를 지나서부터는 장강군인데 북천을 거슬러 시오리가량 걸으면 읍소재지에 들어서게 된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자그마한 산골군이 읍거리를 얼마나 잘 꾸려놓았는지 우리는 별세상에라도 온듯한 느낌이었다. 탁 트인 포장도로며 그 량쪽에 일떠선 고층살림집들이며 특색있게 지어놓은 사회급양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평양의 어느 거리를 통채로 옮겨놓은것 같은데 목욕탕에서는 전기로 물을 덥히고 한증탕까지 달군다니 과연 놀랄만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는 읍거리중심에 자리를 잡고있는 종합편의봉사시설에 들렀다.

2층으로 아담하게 지은 건물인데 리발실과 미용실, 목욕탕과 한증탕을 얼마나 깨끗하게 꾸려놓았는지 정말 평양 창광원의 축소판이었다.

편의봉사사업소 지배인 조정옥동무의 말에 의하면 한증탕과 목욕물온도보장에 하루에만도 수십키로와트의 전기를 쓴다는것이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읍지구에는 세계의 식료가공반에서도 전기로 제분을 하고 국수도 뽑고 떡 가공도 한다고했다.

전기가 긴장한 때에 중요 공장, 기업소도 아닌 편의봉사망에서 이처럼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있다니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전기는 어디서 보내줍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랍니다. 우리 군의 보배이지요.》

우리는 시원히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속에서 군급양관리소 소장 조종현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산골에 이렇게 멋있는 목욕탕이 꾸려졌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자 조종현동무는 어디 목욕탕뿐인줄 아는가, 우리 군에서는 장강1호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지방산업공장들을 다 돌리고도 남아서 리관과 식당들의 난방까지 보장하고있다고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는것이였다.

거뜰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목욕탕을 나선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곁에 있는 쟁반국수집에 들어

갔다.

꽃무늬 아롱진 비닐레자를 깔아놓은 식당은 깨끗하고 정갈한데 쏙쟁반에 보기 좋게 담아서 들어온 농마국수 또한 별맛이었다.

이건 정말 옥류관국수 못지 않다고 우리가 찬사를 하자 조종현동무는 농마국수뿐인줄 아는가, 자기네가 만드는 에스키모는 또 평양 창광원식당에서 만드는데것 이상이라고 자랑하였다.

《우린 여름철에 에스키모를 생산하는데만도 매일 전기를 14키로와트나 쓴답니다. 이게 다 발전소의 덕이지요. 그 발전소는 주체68(1979)년 12월1일에 착공하여 다음해 10월10일에 준공했는데 당 제6차대회에 선물로 드린거랍니다.》

작년에 대보수를 했지요. 우리는 발전소성원들과 함께 발전기실 바닥타임을 하고 석축공사와 지대정리도 하면서 대보수공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에게 식사를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장강군사람들이 한결같이 발전소를 자랑하는것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의 덕을 크게 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그 발전소를 다름아닌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일떠세웠다는데로부터 더욱 애착이 가고 긍지 또한 높은 모양이었다.

장강군의 자랑인 발전소는 읍에서 얼마쯤 떨어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발전소의 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웅장한데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길이와 높이가 수십미터씩 되는 우람찬 언제구조물이 북천계곡을 뚝 가로막아선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었다. 발전기실에서 울려나오는 발전기소리가 어찌도 우렁찬지 하늘땅이 뒤흔들리는것만 같았다.

발전소책임자인 김덕점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발전기실에 들어가니 발전기가 석대나 듬직하게 앉아서 동음을 울리는 모습이 볼만했다. 1호기와 2호기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개조한것이고 3호기는 횡축발전기를 종축발전기로 개조한것이라고 한다. 이 발전기들은 해마다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읍에 보내줌으로써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자강도 로동계급이 자체로 이 발전소를 완공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못내 기뻐하시며 친히 발전소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장자산갈림길을 지나서 찾아주신곳이 바로 이 발전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음이 요란한 발전기실에 들리시어 발전소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서 지금같이 최대갈수기에도 전기가 그만큼 나오면 대단하다고 치하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전동기를 개조한 발전기들이기때문에 망치자리도 있어 불품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면 뭐라는가, 전동기를 개조한것이든 망치로 두들겼든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나오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이라고 하시면서 자강도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풍력발전소보다 이것이 더 좋다고, 산골군이 자체로 살아가는 길은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동력문제도 풀고

난방문제도 해결하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전기는 국가송전망에 넣지 말고 그것을 건설한 단위에서 다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으니 이 발전소가 내는 전기로 산골군의 살림을 도시가 부러워하게 꽃피우고있는 장강군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우리의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 나라는 어디나 수력원천이 풍부하다.

자강도에만 하여도 압록강과 장자강, 자성강을 비롯하여 무려 수백개에 달하는 강하천들이 있다. 물이 흐르는 그 어디서나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면 내 조국은 얼마나 부강해질 것이며 또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영웅과 고향

차영도

고향이란 무엇이던가
구실 못한 자식은 백이 오고 천이 와도
한줄기 오솔길조차 열어주길 꺼리는 땅아
돌아오는 영웅에겐 너 꽃을 뿌려
영생의 대로를 열어주는 품아

대답해다오, 너 대답해다오
이 나라의 장한 아들 김광철영웅이네
품에 어떻게 안겨
나서자란 산천을
정겨이 바라보고있는가를

아, 창창한 생의 만리길을 앞에 두고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던
너무도 짧은 순간의 그 한초로
애젊은 생의 문을
서슴없이 닫고간 영웅이여

세상에 태어나 스물다섯해!
그 길지 않은 생의 마지막 한초로
사람이 제 나서자란 고향엔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를
속깊이 깨우쳐준 영웅이여

그날의 그 폭음소리는
고향의 잣나무숲을 조용히 흔들며
그대 뛰놀던 백령전내가에
그대 오르던 룡문산기슭에
오늘도 사라질줄 모르나니

누구나 한생을 살면서도
동지에게 더 줄수 없는 사랑을
단 한초의 순간에 다 주고간
동지애의 영웅이여
장군님 안아키우신 90년대의 첫 영웅이여

오, 그대는 백발이 되도록 아낀 목숨
흠이 되어도 못오는 고향땅에
단 한초로 값있는 생을 빛내여
영웅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 한초로 영생의 언덕에 올랐구나

(주체87. 7. 22)

백두산 3 대장군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할 우리의 하늘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에 대하여-

차수

오늘 우리 문학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을 형상하는 최상의 특전을 누리고있다.

우리 문학에서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형상은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물론 작은 형식의 작품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을 다같이 형상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창작실천적인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최근 우리 작가들은 많은 탐구적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조상호 《조선문학》 주체86(1997)년 4호)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적풍모를 다같이 형상한 작품으로서 일정한 긍정적시사를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은 백두산3대장군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은 비록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은 푸르른 하늘처럼 무한대하다는 기본문제를 안고있기에 형상의 대가 뚜렷하게 서고 작가의 창작적환상이 활짝 꽃필수 있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전승기념탑을 돌아보시면서 김선옥영웅에 대해 회고하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통하여 비행사가 될 꿈을 지닌 김선옥이를 아시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른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울 때도, 포화가 훔날리는 전쟁때에도 변함없이 김선옥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시여 마침내는 그를 영웅비행사로 키워주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기억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김선옥에게 다시 군복을 입혀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로 한생을 빛내이도록 해주신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기본으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김정숙동지들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충신의 귀감으로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해발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좌우명이다. 이로부터 백두산3대장군을 한 작품에 모시는 경우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전사의 관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리는것은 작품의 진실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 소설에서는 백두산3대장군형상에서 선옥에 대한 위인들의 령도선을 끌고루 보여준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김정숙동지와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 베푸시는 은정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효성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으로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에서는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은 수준에서 창조하고있다.

《우리의 하늘》.

하늘은 그 끝을 가늠할수 없게 무한대하다. 위인의 사상과 풍모를 하늘에 비긴다면 마땅히 그 위인의 사상과 풍모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게 위대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풍모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에게도 비기지 못할만큼 위대하다는것을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림으로써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수령님의 위인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수령형상작품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수령의 사상리론활동은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철학사상을 사회생활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리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그 철학사상에 바탕을 두고있다. 따라서 수령형상작품에는 반드시 설정된 사건과 생활에 대한 수령의 분석견해와 함께 그를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색과정, 철학세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작품에서는 그 어떤 요란한 사전이나 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그마하고 범상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수령님의 사색과정, 철학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형상의 격을 높이고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전쟁관을 정

립하시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이는 대목이 있다.

그처럼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던 김선옥은 전쟁의 발발과 함께 녀성이라는 이유로 하여 제대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국놈들때문에 우리 인민이 새롭게 강요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헤아리시며 주체의 전쟁관을 정립하신다.

《이것이 과연 전쟁인가? 제국주의 어용사자들이 부르짖는것처럼 파괴와 살륙, 피와 상실...이것이 과연 전쟁의 총체인가?

수령님께서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잃는것이 많을수록 그 모든것을 천만배로 더 보상해주고싶으시였다. 우리 인민의 그 밝은 웃음과 아름다운 꿈과 행복한 생활을 그 어떤 원쑤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주고 싶으시였다. 이 전쟁이 파괴와 살륙이 아니라 창조와 전진, 새로운 위대한것의 탄생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수령님의 의지였다. 그래서 놈들이 도시와 마을을 무참히 파괴하는것을 목격하시면서는 그 폐허우에 이제 더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울 복구계획도를 구상해오신 수령님이시였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총폭탄이 작렬하는 전쟁마당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색을 쉬임없이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철학가로서의 그이의 품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인민의 마음속사연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며 거기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포착하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령도풍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선옥이를 아시게 된것은 주체38(1949)년 봄 정수리비행장을 현지지도하실때였다. 그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는수령님께 우리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시였다. 그런데 항공지휘관인 최철은 이거야말로 황소가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말만치나 어림없는 일로, 집안의 막내이의 철없는 고집으로 치부하며 퇴박놓은 사실을 별스럽지 않게 얘기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선옥이를 부르시여 어떻게 비행사가 될 꿈을 꾸게 되였는가도 다정하게 물어보신다. 선옥은 막내동생을 일본비행기가 떨군 소이탄에 잃었으며 그때부터 타향에 옮겨가서도 비행기가 폭격할때면 정말 무서웠다고, 그런데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평양학원에 항공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도 비행사가 되어 동생의 원쑤를 갚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불같이 살아오르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선옥이의 고백을 통하여 나라의 해방과 함께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를 주장하며 떨쳐일어서고있는 우리 녀성들을 보시였기에 그를 비행사로 키울데 대한 과업을 지휘관들에게 주시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휘관들이 전쟁의 가렬성을 운운하면서 그를 제대시킨것을 아시고 다시 군복을 입혀주시고 교육을 주어 비행사로 키울데 대한 명령을 주신다.

작품에 형성된 이 대목은 비범한 선견지명으로 한 인간의 운명에서 전체 인민의 운명을 헤아려보시며 거기서 혁명을 더욱 발전시킬 방도를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김선옥이 첫 전투비행에서 과오를 범하여 처벌받게 되는 사건을 놓고도 이 전쟁을 이길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고있다.

하여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닌적없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전사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위훈과 기적을 떨칠수 있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에 의하여 첫 전투비행을 나갔던 김선옥은 엄중한 과오를 범하여 처벌받게 된다. 선옥은 칠혹같은 어둠으로 하여 목표물을 발견 못하게 되자 적진지상공에서 전투규정을 어기고 비행기발동을 걸어 적들이 자기 진지를 로출시키게 하고 폭격한다. 이를 두고 공군부사령관 최철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제멋대로 전투규정을 어기고 모험을 한 현상이 장차 끼칠 후과를 우려하며 처벌을 주자고 제기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담한 유인전술로 적의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생명의 위험은 안중에 두지 않고 방긋 웃더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선옥이의 가슴에 세차게 고동치는, 육탄이 되어서라도 임무를 수행하고야말려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헤아리시며 그에겐 처벌이 아니라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선옥이의 행동에서 우리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치는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럴수록 우리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신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선옥이가 큰 공을 세웠을 때는 몸소 설명절오찬회에 부르시여 영웅메달도 달아주시며 가슴속사연도 헤아리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하나하나의 사건과 생활들이 력사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특출한 위인으로서의 혁명의 수령의 품모를 보여주는데 바쳐지고있다.

단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함께 수령님의 회상속에 펼쳐지는 그리움의 세계를 통하여 김정숙동지를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세속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우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는것을 잘 형상해내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정수리비행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수령님께 우리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행사라고 하면 남자들이운데서도 선발된 대장부들만 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여왔다. 이러한 관념에 물젖어있었기에 일군들조차 그토록 선옥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수령님께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혜택아래 민주건설의 당당한 주력군으로 자라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약동하는 기상을 선옥이의 모습에서 보셨기에 수령님께 주저없이 보고 드린다.

작품에서는 김선옥이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락하산도 탔다는데 자기도 응당 비행기를 탈수 있지 않는가고 당돌하게 말하는것을 통하여 그의 이러한 의식발전과정에 깃든 김정숙동지의 다심한 손길을 뜨겁게 느낄수있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를 한평생 잊지 못해하시는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때문이라는것을 자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밝혀내고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어엿한 하늘의 매로 자라난 선옥이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녀성들속에도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그려보시였고 어머님께서 지금 살아 저 처녀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지신다.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여 우리 인민의 참된 삶은 영원무궁하다는 작품의 내용을 품위있게 천명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키워주신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시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며 전승기념탑을 돌아보시면서까

지 회고하신 김선옥영웅에 대하여, 가까운 전우들조차 그의 행방을 모르고있는데 대하여 더없이 서운해하신다. 것처럼 만나보고싶고 내세워주고싶은 영웅이 조국앞에 준엄한 시각이 닥쳐왔을 때 공군사령부에 나타나 다시 군복을 달라고 제기해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흥분된 어조로 《보시오. 이게 바로 김선옥이요. 이렇게 조국앞에 엄혹한 시각이 닥쳐오자 그는 당과 조국을 보위하겠다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아마 김선옥이는 조국이 위험에 처했다면 백발이 아니라 땅속에 묻혔다가도 주먹을 부르짖고 뛰쳐일어나 달려올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키우신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못잊으시는 전사란 말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의 무자비한 흐름으로 선옥이가 군복을 입을수 없는 백발의 녀인으로 되었지만 당과 수령에 대한 그의 뜨거운 마음에 차그마한 그들도 지을세라 그에게 새 군복을 수여해주게 하신다. 그리고 김선옥영웅은 하늘의 녀왕인것만큼 마땅히 장령복을 입어야 하며 영웅들의 집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일하도록하여 수령님의 품에 안긴 삶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를 온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게 하자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김선옥영웅에게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모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는것으로하여 작품이 주는 형상적여운은 것처럼 강한것이다.

단편소설은 이처럼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께 바치신 충효성은 수령님의 뜻, 우리 인민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길에 바쳐진 헌신적이고 숭고한 감정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단편소설 《우리의 하늘》은 우리 인민이 그토록 우리르는 백두산3대장군의 형상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형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세기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과 21세기를 향도할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그리고 백두산녀장군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사회주의강행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할것이다.

백두산 바람

백보흠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초여름, (더 정확히 말하면 9년전이다.) 나는 문공술이라는 한 지방청년으로부터 백여매나 되는 긴 편지를 받아본적이 있었다. 그 장문의 편지는 참회록을 련상시키는 일종의 반성문으로서 한편의 문학작품에 진배없는 글이었다. 분명 그때 공술청년은 나에게서 인생의 잠언으로 되는 그 무슨 귀중한 조언이라도 받아 보려고 편지를 보낸것 같았다. 한평생 무딘 붓으로 졸작만을 써온 나도 명색은 작가여서 독자들로부터 가끔 그런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나는 그에게 회신을 보낼 때 《...동무의 편지를 깊이 간수해두고 있겠소. 앞으로 십년이나 이십년후에 동무의 편지를 세상에 공개할수도 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세월은 문공술이하는 인간을 더 정확히 평가해줄거요.》 하고 은근히 오금을 박았었다. 잘못을 고치려는 그의 마음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이었다. 이를테면 그것이 공술청년에게 준 나의 조언이라고 말할수 있다. 십년이란 길고도 짧은 세월인듯싶다. 왜냐 하면 아득한 미래로 생각되었던 그 십년이 어느새 눈앞에 다가왔으니 말이다. 털어놓고 말하면 한동안 나는 문공술청년의 편지를 잊어버리고있었다. 그런데 강행군을 하고있는 오늘의 연설이 불현듯 그의 편지를 상기하게 하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선생님!

나는 지금 조국땅 절경에 새로 생겨난 우리 시대 기념비적건축물인 백두역대합실에서 지상계도식삭도의 은은한 진동소리를 들으며 이 글을 쓰고있습니다. 박식하신 선생님은 아득히 먼 그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창조한 동서양의 이름있는 모든 건축물들의 건설연혁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을 겹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여기 백두역대합실과 청룡처럼 구름을 타고 백두산마루로 날아오르는 삭도인차와 그리고 2,700여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실 겹니다.

대극장의 화려한 휴계실을 련상시키는 백두역대합실! 지금도 밖에서는 퇴성벽력을 몰아오며 백두산바람이 울부짖고있지만 고급탁상을 마주하고 앉은 내옆에서는 증기난로가 조용히 뿜으면서 따스한 기운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덥혀주는 몸벌처럼 부드러운 그 온기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기 백두산삭도 건설에서 맛보았던 북극의 동토대와 같은 엄혹한 추위와 무서운 폭풍을 뜨거운 눈물속에 추억하게 됩니다.

선생님, 황금은 시금석으로 알아보고 사람은 시련으로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요. 백두산은 그 무서운 폭풍과 지독한 추위와 무시무시한 퇴성벽력으로 삭도건설에 참가한 사람들을 낱알이, 정확히 평가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평정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언제나 예리한 필봉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해부하면서 그네들의 심장에 백두산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인간정신의 기사인 선생님앞에서 모든것을 숨김없이 말하렵니다. 백두산에서 삭도건설을 시작한것은 이해 3월하순부터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공병대가 말그대로 빙천설지의 흑한속에서 소문없이 일을 시작했지요. 우리 5월10일공장에서 삭도원양기를 설치할 파업을 받고 30명 청장년들로 돌격대를 무어 백두산에 파견한것은 그후 4월초순이었습니다. 스물한살의 젊은 연공인 나도 그때 30명대오에 들어 세계가 우러르는 혁명의 성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를 실은 렬차가 종업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북부도시를 옆에 끼고 서서히 달리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무슨 인생의 사변이 생겨날것 같은 즐거운 예감으로 가슴들먹이며 성수가 나서 노래를 불렀지요.

나도야 전화의 그날에
청춘기를 맞았더라면
불토하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았으리
리수복영웅처럼 영웅처럼

이 량만적인 노래는 어느 기성곡마다 내 스스로 가사를 지어붙인것으로서 오락회때마다 즐겨부르곤 하던 나의 18번 노래였습니다.

선생님은 벌써 날카로운 필봉을 꼬나들고 이 가사에 비쳐있는 문공술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투시해 보고 있는듯싶습니다. 《설익은 녀석이로군!》 하고 선생님은 정말 짧은 선과실을 씹은것처럼 낮을 찌프리고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적어도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자신의 정신적높이를 감히 리수복영웅에 견주고있었습니다.

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왜 5월10일공장으로 진출하였겠습니까. 로동현장에서 당원이 되고 영웅이 된 다음 이름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작정이

였지요. 나는 늦어서 3년안팎이면 그 인생의 《두고지》를 점령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생활은 결코 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니다. 로동현장에 나온지 3년이 되도록 당원이 되고 금별의 수훈자가 될 짝수도 보이지 않았거던요.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리수복영웅도 전쟁이라는 엄혹한 사변이 있었기때문에 영웅이 되지 않았겠는가. 만약 나도 진작 북부철길공사장 같은 조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건설장으로 갔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것이라고...

그런 가위에 마칩 백두산삭도 건설장으로 가게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수 없었지요.

(백두산삭도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처음으로 세우는 건축물이다. 이제 력사는 여기서 위훈을 세운 나의 이름을 크게 적어줄것이다.)

18번노래를 부르는 나의 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백두산근처 무두봉속소에 도착한것은 4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떠나올 때 우리 공장 뒤산은 진달래꽃으로 울긋불긋하였는데 백두산기슭 숙영소마을에서는 아직도 겨울추위가 계속되고있었습니다.

숙영소에 집을 부리우고 주변을 둘러보니 땅거미가 내리앉기 시작하는 백설광야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같은 무시무시한 바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멀리 광막한 공간에는 구름인지 눈보라인지 씨뿌연것이 가득차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에는 삼지연에서도 잘 보이는 백두산이 그날에는 어디에있는지 향방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여기는 겨울이구나.》

김원철이라는 약골로 생긴 기계공이 바람소리가 기가 질린듯 눈보라 날리는 무두봉의 하늘을 울리다보며 중얼거리었습니다. 다른 돌격대원들도 심기한 낮빛들이었습니다.

《무두봉날씨가 이런판이니 백두산은 여간 아니겠군!》

우리 공장 돌격대를 책임지고 온 박성준대장까지도 심란한 표정을 지은채 근심스레 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장의 유명한 영웅연공입니다. 어느 해인가 대건설장에 동원되어 100톤짜리 철통제를 60미터 높이에 단번에 끌어올린 영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 역시 공장안에서 영웅이 된것이 아니라 공장밖 거창한 대건설장에 나가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환경론》을 주장할만도했습니다.

박성준영웅은 이제 서른아홉살의 한창나이에 온 공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같은 연공으로서 그를 별로 높이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연공들은 미적분을 풀줄알고 력학리론에 밝아야 한다, 경험에 매달리는 박성준의 연공시대는 이미 끝나가고있다 하고 그의 약점을 꼬집어 뜯으며 돌아갔지요.

솔직히 말하건대 나는 속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로 그렇게 생각하고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자기를 수학과 력학 지식에서 박성준영웅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청년으로 자부하고있었지요. 게다가 나는 시도 쓸줄 알았고 한다하는 지성인들 못지 않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지요. 칸트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경계선에서 왔다갔다하였지요.》 하고 멋진 말도 잘하였습니다. 나는 심란해하는 박성준영웅을 던지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호리호리한 몸에 곱슬머리인데 술진 눈썹밑에서 빛나는 두눈은 언제나 사람의 내장을 꿰뚫어보는듯이 날카롭습니니다. 아차 실수하면 모든것이 끝장으로 되는 운명적인 긴장한 로동을 해온 오랜 연공의 눈은 대체로 그렇습니니다. 나는 성준영웅의 그늘진 얼굴을 일별하고 한마디 건네었습니다. 《백두산날씨가 좀 사나와야지요. 그래야 일할 맛이 있지요.》 그리고는 《나도야... 리수복영웅처럼 영웅처럼,》 하고 노래를 부르며 도고히 머리를 들고 백두산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영웅은 얼굴을 찌푸사한채 덤덤히 나를 지켜보더니 《너무 쉽게 생각 일이 아니야. 우린 이제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네.》 하고는 전체 돌격대원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영웅은 주위에 둘러서있는 돌격대원들을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쪽 훑어보고나서 막대기를 집어들고 눈우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백두산에서 건설하게 될 지상궤도식삭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백두산중턱에 역사(백두역)를 건설하고 거기서부터 백두산마루까지 1,200여메터의 비탈길에 궤도식삭도로반을 놓게 되는데 우리 공장의 기본과제는 150톤이나 되는 권양기를 백두산마루 (거기에도 역사가 건설되는데 역 이름을 향도역이라고했습니다)에 설치해놓는것이다더군요. 기복이 심한 백두산비탈면에 삭도인차의 철길을 놓자면 높은 둔덕은 깎아버리고 계곡에는 교각을 세워야 하지만 그곳으로는 어떤 료전기재도 접근할수 없기때문에 세멘트며 침목이며 레우며 철기둥따위의 모든 중량물들을 인력으로 날라야 한답니다. 더구나 어려운것은 무시로 일어나는 퇴성벽력, 폭풍, 눈보라, 비구름 등 자연의 횡포한 광란으로 하여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수 있다는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렵고 방대한 작업을 적어도 6월하순전으로 즉 두달남짓한 기간에 몽땅 해제껴야한다는겁니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은 7월초부터는 전국적으로 백두산답사가 시작되기때문이지요. 성준대장의 설명을 듣고나서 우리 공장의 《희극배우》이며 해학가인 박준호라는 기계공이 혼자소리로 《나같은 팔삭둥이가 백두산바람에 꽤 견디여내겠는지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리고는 짐짓 정색하여 말하였습니다. 《난 지금까지 스물여섯살 먹도록 리해알수 없는것이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

성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100톤짜리 철판을 60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린 박성준영웅동지의 연공기술의 비결입니다. 문젠 여기서 우리모두에게 그걸 알려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톤짜리 권양길 백두산폭대기에 올려놓자면 말입니다.》

박준호의 말에서는 언제나 룡담과 진담의 계선이 명확치 않기때문에 누구도 그의 말을 신중히 듣지 않고 키득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정색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우린 100톤짜리가아니라 150톤짜릴 조국의 최고절정에 끌어올린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연공비결을 알려달리는데 뻔레나 유세비오한테서 축구강의를 듣는다고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수 있겠습니까. 연공이라는것두 그런겁니다. 어쨌든 권양기운반은 격정마시오. 우리 연공들에게 말기시오.》 키득거리던 장소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자기가 우리 돌격대의 《기동선수》로서 앞으로 모든 일에서 《주역》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자부심으로 한껏 가슴이 부풀어올랐습니다. 그때 벌써 나는 가슴에 번쩍이는 금별의 훈장이며 화선입당의 승엄한 의식장이며 전과를 타고 전국각지에 울려퍼지는 백두산삭도 건설의 위훈담 등 래일에 있을 그 모든 영예를 눈앞에 그려보고있었지요. 하지만 나의 양양된 기본은 뜻하지 않은 일로 하여 인차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저녁식사후 숙소에서 매개 돌격대원들에 대한 작업분공이 있었는데 글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문공술이 더러 돌격대취사원을 하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을수 없는 모욕감에 가슴의 피가 굳어지는듯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작업조직을 한 박성준영웅을 온곱지 않게 지켜보다가 《허헛참...》하고 코웃음을 치며 돌아앉았습니다.

《공술동무, 왜 그래. 뭐가 맞았잖은가?》

성준대장이 묻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더러 <식모>노릇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소. 동무가 취사원이요!》

성준영웅은 자르듯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성준영웅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평시에 자기 결함을 꼬집어뜯는데 대한 보복인가? 아니 성준영웅은 결코 그런 시시하고 찌찌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은 내가 믿고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준비되어 있는 나를 돌격대의 《가마뚜껑운전공》으로 만든단말인가. 더욱 의아스러운것은 나를 취사원으로 임명한데 대하여 의외롭게 생각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별떡 일어나서 문공술동무와 같은 용감하고 재능있는 연공을 취사원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가고 의견을 제기할줄로만 알았던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모두 잠자코 앉아있었습니다. 할수 없이 내 자신이 말하여야 하였습니

다. 《내 말은 적재적소에 직업을 배치하라는겁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쪽구석에 고개를 수긏하고 앉아있는 체소한 김원철을 떠어보았습니다. 어질고 용해빠진 그를 평시에도 나는 업신여기고 넘보아온터여서 아무런 꺼리낌도없이 내놓고 말하였습니다.

《취사원이야 저 원철동무같은 동무에게 맡기는게 좋지 않습니다. 글썄 나한테 취사원이 뭘니까.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나의 말을 받아 외우는 성준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눈빛은 날카로왔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구석에 주눅이 든듯이 앉아있는 원철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원철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저는...》 원철은 고개를 숙인채 약간 말을 더듬으며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돌격대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것을 군대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시말해서 일단 지시하면 <예, 알았습니다>하는 대답밖에 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원철이한테서 그런 당돌한 대답이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성준대장은 사업일지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단정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웁아. 원철동무의 말이 웁소. 공술동무, 여러말 말고 처음 지시준대로 하시오.》

나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때 누가 나의 팔소매를 끄당겨서 돌아보니 당조직을 책임지고 온 세보비서 장아바이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흔한살이지만 나이에 비해 걸늬는데다가 성미가 느긋해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서 아바이로 불리우는 기계조립공이였습니다.

《동물 취사원으로 임명한건 대장동무 혼자서 결심한게 아니야. 조직적으로 토의된거야.》 하고 장아바이는 서두르지 않고 뜨직뜨직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맡겨준대로 일을 하오. 나는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보오.》

《내 참...어이 없어서...》

나는 화김에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으흐흐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눈가루들이 내 얼굴을 덮썌우며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덧대놓고 발을 옮기었지요.

얼마나 걸었던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자 누런 솜외투를 걸치고 머리에는 모시바구니같이 하얀 털이 둥그렇게 부풀어오른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사람이 저앞에 보이었습니다.

《가만 있자, 동무 혹시 5월10일공장에서 오지 않았소?》

그 사람이 먼발치에서 소리쳐 물었으나 기분이

상해있는 나는 들은척도 안했습니다. 얼마후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놀라서 저도 몰래 뒤걸음을 쳤습니다.

얼핏 보아 신네땃살 났음직한 중늬은이인데 동상을 입었는지 얼굴에 룡알같은 물집들이 수없이 돋아나고 입술이 온통 부르터있었습니다.

《원 사람두, 묻는 말에 대답은 안하고 왜 그렇게 보고만있나?》

그제서야 나는 실쭉한 기분에서 5월10일공장에서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옹구만 옹아! 권양길 조립하러 5월10일에서 온다더니 왔구만 왔어!》

그는 어찌나 반가와하는지 나는 어리땡땡해졌습니다. 《그래 권양길 실어왔소?》

《권양긴 며칠후에 도착할겁니다.》

《됐네 됐어. 뭐니뭐니해도 동무네 권양기가 백두산삭도의 심장부지.》

그는 지금 5월10일공장 동무들이 어데 있는가, 몇명 왔는가, 이것저것 캐어묻더니 《내 불 일이있어 여가로 내려왔었는데 마침 기쁜 소식을 들었군. 오늘 기동예술선동대 선발대동무들도 몇명 왔다네. 동무들이 있을 천막은 이미 군대동무들이 쳐놓고 기다리고있네.》 하고는 이제 며칠 있으면 20여명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백두산으로 행진해올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불현듯 나의 머리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취사원도 하나 데리고 오겠지요? 우린 취사원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선동대 신설될수 없겠는지...》

《그렇게 하도록 토의해보세나. 그까짓 30명분식 사야 못해주겠나. 중요한 일을 맡은 동무들인데 도와줘야지.》 하고 선뜻 응해나신 그는 기동선동대취사원의 음식솜씨가 대단하다고, 휴양소 요리사처녀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그 처녀가 지금 선발대동무들과 함께 백두다리숙소에 와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이 휘둥그래지도록 환성을 울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우린 통성도 미처 못했군요. 전 문공술이리고 합니다. 연공이지요. 이제스물한살인데 연공으로서는 이번에 영웅연공하구 저하구 둘이 뽑혀왔습니다.》

《대단하구만. 수리개로군!》

그는 무언가 부러워하는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바인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삭도기술자인가요?》

《허허허... 내가 무슨 기술자겠소?》

그는 씩스러운듯이 어쭙은 웃음을 지으며 《나는 여기서 후방사업을 하면서 두루 따라다니는 사람일세. 이름은 박시중이고...》

농촌늬은이처럼 무던하고 소박해보이는 그러면

서도 해학이 있는 아주 능청스러운 아바이였지요. 그는 이미 보름전에 백두산에 와있었다는것으로 보아 군인건설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후방사업을 한것 같습니다. 나는 시중아바이의 거뭇게 툰 얼굴을 보면서 4월의 백두산추위가 얼마나 엄혹한것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불일이있다고 하면서 인차 백두다리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길로 성준대장을 찾아가 기동선동대 취사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된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그랬으나 성미가 대쪽같은 성준대장은 연약한 처녀를 부려먹자는건가, 안된다, 처녀의 도움을 받을것이 아니라 처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요리사처녀와 함께 부엌일을 하라는것이였습니다.

굵어부스럼이라고 오히려 더 난처한 처지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숙영소자동차를 타고 백두산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백두다리 어방에 이르자 불시에 수십마리 맹수떼가 달려드는듯이 우흐흐...좌아...하고 천만가지 소리로 눈보라가 울부짖으며 얼굴을 후려쳐서 금시숨길이 막히는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시꺼먼 구름떼들이 우중충한 그늘을 던지며 꼬리를 물고 백두산쪽으로 날아가더군요. 그러다가 이따금 검은 구름꼬리들이 창검같은 바위너설들에 부딪칠때면 파르릉 파르릉 천지를 산산조각내는듯한 소리가 귀청을 때리곤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백두역건설장》이라는 표말밑에 이르렀을 때 누구인가 갑자기 털모자가 날아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원철이가 맨머리바람으로 손을 허우적거리고있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백두산에 모자라도 먼저 제물로 바쳐야지 무사하지 못할걸. 하하하...》

나는 어제저녁 무두봉에서 원철이한테서 뜻하지 않게 강타들 먹은것이 꽤뭉해서 모두가 들으라는듯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보라, 모자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사람을 취사원으로 쓰지 않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 문공술이를 부엌에서 썩게 한단 말인가...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동무 꽤 일을 해넌만하오?》

나는 세포비서가 자기 털모자를 벗어 원철의 머리에 씌워주는것을 보고 빈정거리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원철은 내 말에는 응대도 하지 않고 세포비서를 돌아보며 민망스러워했습니다.

《저한테 모자를 주면 장아바인 어떻게 합니까?》

《걱정말게... 이런줄 알고 모자를 네땃개 더 가져왔네. 누구든 잃어버리면 나한테 또 신청하게.》

장아바인은 모자를 잃어 버리기를 바라거나 한것처럼 즐겁게 웃으면서 그답지 않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끈했습니다.

《모자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뭘하겠다는겁니까, 부답이나 되지...》

이것은 원철이에 대한 로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원철이의 얼굴이 새빨갳게 익어버리고 입술까지 파랗게 질렸습니다. 얼마지나 우리 동무들은 시중아바이가 안내하는 대형천막안에 짐을 부렸습니다. 장풍 돌레에 떼장으로 방풍벽을 쳐서 토굴집처럼 아늑한 천막이었습니다. 안에는 랑열에 널바닥을 깔고 통로 한가운데에 쇠난로들 놓았는데 그속에서 분비나무장작이 한창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타고있었습니다.

천막옆에 달려있는 취사장은 모포를 휘장처럼 드리워 칸을 막아놓았더군요.

《예의 추워라... 난로불속으로 훌 들어가고싶구만. 후방부아바이, 정말 고맙습니다.》 박준호가 시뻘겋게 단 쇠난로를 끌어안을듯이 다가들면서 말하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군인건설자들에게 하게. 어제 공술동무에게도 말했지만 이건 군대동무들이 동무들을 위해 몸을 들여 만든 집일세.》

시중아바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동무네 점심을 해주러 기동대 취사원처녀가 온다고 하면서 난로안에 장작을 더 넣어주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우리 동무들도 잠깐 몸을 녹이고는 인차 현장으로 나갔지요. 박준호는 출입구로 나가면서도 내귀에 입을 대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동분 정말 행운아야. 따뜻한 천막에서 꽃같은 처녀와 소꿉놀이를 하게 됐으니...어쨌든 점심을 푸짐히 차려놓게.》

넓은 천막에 홀로 남게 되니 나는 썰물이 지나간 행맹그레한 바다기슭에 홀로 서있는듯한 고독감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눈바람이 그냥 울부짖고 천막장풍은 끊임없이 풀러덕거리는데 어디선가 삐익--삐익-- 짝을 얹은 물새의 울음소리같은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취사장에 쌀포대와 식기들을 옮겨놓고 일간 사람처럼 이윽히 서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스무살 안팎으로 보이는 몸매 호릿한 처녀가 물바게스를 들고 취사장안에 나타났습니다.

《5월10일 공장동무니까?》

그 처녀는 방긋 흰이를 드러내며 스스럼없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기동선동대 취사원인가요? 우리들의 식사까지 보장해주겠다니 정말 고맙소.》

나는 능청스럽게도 자기가 돌격대 취사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 밥을 좀 지어드리는게 무슨 큰일이라구요.》 하고 다시금 생긋 웃음을 짓는 료리사처녀는 휴양소에서 늘 손님들이 섭썰려 지냈던탓인지 내앞에서 수집어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마치 무렵없는 오빠를 대하듯하였지요. 그 처녀는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으나 도리암직하게 생긴 살갗 하얀 얼굴

이며 웃음이 떠도는 정겨운 눈이며 모든것이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있는 퍼그나 귀인성스러운 처녀였습니다. 나는 얼음베개가 얹은 바게뜨굽도리를 행주로 훑치고있는 료리사처녀의 희고 오동통한 손을 보는 순간 최선의 조건이 갖추어진 휴양소생활에 습관된 그가 바람 사나운 백두산취사장에서 꽤 밥을 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처녀방송원의 야무진 목소리에 나는 흠칫 놀라며 천막입구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5월10일 공장 돌격대원들이 벌써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권양기설치장 터담이작업에 달라붙었습니다...》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에 나는 당황하였습니다. 내 얼굴을 빤히 지켜보는 료리사처녀의 맑은 눈빛이 《모두 터담이작업을 한하는데 동문 왜 현장으로 가지 않고 여기 들어와있어요.》 하고 묻는것만 같았니까요. 나는 불시에 얼굴이 화끈거려 처녀를 외면한채 바재이며 서있다가 마치 자기는 취사원이 아닌듯이 《오후 1시까지 30명분 식사를 해주오. 그럼 수고하오.》 하고 천연스럽게 내뱉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권양기설치장으로 올라갈 심산이었습니다. 나는 작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채 눈발을 밟으면서 종종걸음을 쳤습니다. (좌우간 백두산꼭대기라니 올라가면 되겠지.) 이러면서 백두산상을 향해 치달아오르는데 문득 어디선가 《어잇샤 어잇샤.》 하고 힘을 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는 저쪽 가로수비탈길에서 수십명의 군인건설자들이 다리에 반길 쇠기둥을 끌어올리느라 저마끔 쇠바줄에 달라붙어 소리를 치고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심술을 부리듯 뽕얇게 눈가루를 날리면서 바줄에 달라붙은 군인건설자들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따금 짐채같은 눈덩이들이 데굴데굴 사정없이 굴러와서 쇠기둥도 사람도 깔아뭉개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인건설자들은 일제히 야--하고 소리치며 일어나서는 눈무지들을 떠밀어서 한 치한치 가풀막을 뚫아올랐지요.

나는 거기서 《백두산》 이라고 써붙인 대짜배기 배낭을 등에 지고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쇠기둥을 끌어올리고있는 시중아바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바이는 삐치지 않는데가 없구만!)

나는 시중아바이의 눈에 띄면 좋을것 같지 않아 얼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으나 갑작스레 구름이 덮이면서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 권양기설치장을 찾아낼수가 없었습니다. 서너시간이나 미혹의 나락에서 헤매다가 종시 헛물을 켜고 오후 두시경에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속이 썩기여 부리나케 취사장부터 찾아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상 눈가에 밝은 웃음을 담고있던 명랑한 취

사원처녀가 난로옆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있지 않겠습니까.

《동무, 왜 그리오? 무슨 일이 있었소?》

나는 무언가 상스럽지 못한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처녀는 원망이 어린듯한 눈으로 나를 힐끗 올려다보고는 그냥 쿨쩍 거리더군요.

《우리 동무들이 내려왔댔소? 식사들을 했소?》

나는 이미 나의 취사원 《신분》이 드러났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적게 중얼거리었습니다. 처녀는 실컷 울고나서 뺨결게 이물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흐느끼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동무네 돌격대원들이 모두 죽물만 한그릇씩 마시고 갔어요, 요 맹꽁이같은게 죽을 쑤었어요.》

《죽을 쑤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어리둥절해진 나는 얼른 취사장안을 둘러보았는데 과연 저쪽 당반우에 죽물이 담긴 냄시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내 뒤편으로 남겨놓은 죽그릇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을 쑤었소?》

《밥을 한다는게 죽이 됐지요 뭐.》

(로리사란 처녀가 밥을 할줄 몰라 죽을 췌단말인가?)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못하고 죽그릇만 지켜보고있을 때 온몸에 눈을 한벌 뒤집어쓴 시중아바이가 지친듯이 휘청거리며 취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성에가 하얗게 불린 눈섭을 쭈긋하며 대뜸 《임자 어딜 갔댔나?》 하고 따지는게 아니겠습니까.

《...》 나는 뿌루통해서 돌아섰지요.

《알고보니 동문 5월10일공장 취사원이였더군.》

아바이는 등에 지고있던 대짜배기 배낭을 난로곁에 벗어놓고 《원 사람두, 취사원이라면 지향순이한테 말을 해야지. 훌쩍 나가서 점심때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어찌나? 동무네 대장이 단단히 혼을 내우겠다고 버르더군. 자유주의를 하면 못찌!》 하고 나무라더군요. 그제야 나는 분명히 뇌까렸습니다.

《나는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야 식사인원이 불과 30명밖에 안되는데 취사장에 두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뭇니까... 작업조치를 하는걸 보면 눈이 딱 감겨서...》

나는 털모자를 벗어 취사장바닥에 내던지고는 계속 꾸념을 하였습니다.

《일하는걸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어데선가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사람한테 평생 소달구지를 몰게 했다더니...》

나는 재능있고 용감한 남아대장부 공술이를 취사장에서 썩게 한다는 뜻에서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시중아바이는 무슨 판 생각을 하고있는듯 아무런 응대도 없이 바람에 풀러덕거리는 장풍천정을 시름겹게 올려다보고있었는데 비딱하게 제껴놓은 털모자 귀덮개에 얼어붙었던 눈과 성에들이 난로불에 녹아서 락수물처럼 떨어지고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바이는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물을 손바닥으로 훔쳐내며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게 공술이, 5월10일공장동무들이 죽을 자시고 갔다면 ? 향순이한테서 그 말을 듣고 빵을 줌 가져왔는데 나하구 함께 저걸 메구 작업장으로 가세.》

아바이는 난로곁에 벗어놓은 보통배낭의 두세곳은 뒤통살은 대짜배기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죽을 쑤게 된것은 취사원처녀의 잘못이 아니였지요,

그것은 순전히 물리적원인에 의해 생겨난 실수 아닌 실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두산과 같은 높은곳에서는 기압관계로 썩썩 백도가 되기전에 물이 끓기때문에 죽을 쑤게 된겁니다.

쌀이 익기도 전에 가마안의 물이 서둘러 끓고 잿아들어서 물을 연방 붓다보니 결국 물탕이 되고말았지요.

잠시도 웃기는 소리를 하지 않고는 속이 썩서 견디지 못하는 해학가 박준호는 죽 한그릇을 널름하고는 이렇게 즉흥시들 읊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죽을 마시며 명심하시라

그대들의 심장도 끓기만 하고

100도의 열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인생 또한 죽탕으로 되리라

그의 기지있는 해학속에 얼마나 의미심장한 비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취사원처녀에게 아픈 때로 되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시중아바이의 배낭속에 가득차있는 빵을 내 배낭안에 갈라넣고 동무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시중아바이는 홀령해진 자기 배낭속에 콩우유를 담은 비닐통과 어디서 구했는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여러권 넣어가지고 나와 동행하였습니다.

이들테면 아바이는 빵보다도 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지고갔지요.

그때 바깥기온은 령하 22도로서 한겨울의 모진 추위와 같았으나 다행히 바람도 잦아들고 안개구름도 걷혀서 우리는 크게 고생하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수 있었습니다.

나는 향도역 건설장과 권양기설치장이 저발췌 눈아래로 바라보일 때 산마루에 배낭을 벗어놓고 잠시 숨을 돌리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탕! 하고 굉장한 폭발음이 터지더니 서북쪽 하늘끝에서부터 눈타래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하얗게 밀려오더군요. 그와 때를 같이하여 우흐흐 우흐흐 하고 하늘이 울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지요.

《공술이! 었디라구. 폭풍이 올것 같네.》

시중아바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나는 그 어떤 억센 발통에 허리를 채우는것 같은 강한 타격을 받으며 훌쩍 공중에 날렸다가 눈무지에 곤두박히었

습니다.

내열에 앉아있던 시중아바이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종적조차 볼수 없었습니다.

모래알같은 눈가루와 자갈같은 얼음덩이들이 사정없이 날아와서 나는 눈우에 납작 엎디어 무엇인가를 짝 그리안은채 내쳐 얼굴을 틀어박고있었습니다.

어찌다가 상체를 조금만 들어도 내 몸뚱이는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눈우로 데굴데굴 굴러갔지요. 얼굴을 틀어박고있는 나의 머리에는 어촌과 해안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낸 필리핀 해일이며 아름드리나무를 송두리채 뽑아버려 수만정보의 산림을 짓밟개놓은 씨비리폭풍 등 언제인가 책에서 읽어본 자연재난의 기록들이 연줄연줄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때 몇미터만 더 날려간다면 영낙없이 까마득한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의식하고있었고 그래서 이 세상과 저세상의 경계선에 누워있는것 같은 아슬아슬한 생각에 온몸이 곧아지는듯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염라대왕의 사도가 나의 혼을 뽑으면서 느릿느릿 구렁이처럼 기여오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득히 멀리서 누구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니 몽실몽실한 눈덩이가 뒤뚱거리며 앞으로 다가오고있더군요.

그가 바로 시중아바이며 죽음을 위협하던 폭풍이 이미 지나가 버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폭풍은 자주 그렇게 번개처럼 찾아왔다가 번개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흰눈가루를 뒤집어쓴 시중아바이의 얼굴에는 바람에 날리는 예리한 얼음조각들에 상처를 입어 내 얼굴에서도 피가 흐르고있었습니다.

《혼났지?》

시중아바이는 솜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여 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예, 죽는줄 알았습니다.》

나도 손수건을 꺼내여 아바이의 두볼에 얼어붙은 새빨간 피딱지들을 닦아 내주고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까짓거 화구같은걸 막고 죽는다면 겁날게 없지만 아무 한 일도 없이 폭풍에 날려 죽는다는건 너무도 맹랑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겁이 났지요.》

그것은 나의 비겁성을 위장한 말이 아니라 진심의 토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긴 우리가 이만한 폭풍에 굴복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지. 자 그럼 이제 가볼가.》

아바이는 등에 진 배낭을 추스르며 작업장을 굽어보더군요.

우리가 서있는곳에서 불과 50미터도 될듯말듯한 산사면에서 돌격대원들이 작업장에 몰려들어온 눈을 추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의 모습이 시야에 안겨오는 순간 나는 뺨배낭을 찼던 잔등이 훌가분해진것을 느끼고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나의 배낭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바이의 배낭을 얼핏 스쳐보고 처음 쉬던 장소로 달려가보았으나 배낭이 있을리 없었지요.

《아바이, 이걸 어쩔니까? 글썄 내가 여기에 배낭을 벗어놓았했는데 폭풍에 날아났군요.》

《뭐라구?》

시중아바이가 눈이 등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의 빈잔등을 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을 찾아보려는지 주변의 눈을 헤집으며 돌아가더군요.

《에익 참.》

나는 주먹으로 허벅다리를 내리조기며 눈우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이죽거리기 좋아하는 박준호의 시물거리는 얼굴과 함께 김원철의 털모자가 눈앞에 어려왔습니다. 털모자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고 김원철은 탓했던 내가 큼직한 뺨배낭을 잃어버렸으니 이런 웃지 못할 웃음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무들을 위해 일껏 지고온 뺨배낭을 작업장코앞에 와서 잃어버린것이 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바이, 난 돌아가겠수다.》

나는 한마디 내뱉고는 오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시중아바이가 뒤에서 무어라고 소리쳤지만 들은척도 않고 그냥 허쳐거리며 내려갔지요.

경황없이 걸었던탓인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방향을 잃고 여러시간 헤매었습니다. 하기는 향순이를 보기도 면구하여 천막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여섯시가 좀 지나 지친 걸음으로 천막에 찾아오자 어느새 벌써 와있었는지 시중아바이가 폭풍에 망가져 버린 천막을 손질하고있었습니다. 그날의 강한 폭풍으로 하여 백두산군터에 쳐놓았던 천막들과 위생시설들은 물론이고 군인건설자들이 강추위속에서 악전고투하여 백두역건설장에 쌓아올린 벽체들까지 죄다 무너져버렸답니다. 그때도 향순이는 훌훌 느껴울면서 시중아바이의 일손을 도와주고있더군요. 《전 여기서 견디여낼것 같지 못합니다.》 《향순아, 그럼 못쓴다.》 시중아바이는 천막기둥을 박으면서 아버지처럼 애듯하게 향순이를 타일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두 항일투사들이 걸어간 행군길에 비하면 꽃이지, 꽃이야.》

우린 기껏해서 령하 20도의 추위속에서 배불리 먹구 두툼한 옷을 입구 일하고있지만 그분들은 령하 30~40도의 혹한속에서 설피신고 훌웃입구 굶으면서 걸음마다 위험이 따르는 사선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거기엔 너보다도 더 어린 녀투사들도 있었지. 그런데 네가 이만한 곤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가버린다면 후날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삭도를 건설하러왔다고 생각

해선 안된다.》 《제가 뭐 돌아가겠다는건 아니에요.》

《암, 향순이가 그런 처녀일순 없지...》

시중아바이의 인정깊은 말에 향순이의 어깨가 더 떨리는것 같았습니다. 내가 시중아바이곁으로 다가선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바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우울하게 서있는 나를 띠어보고 반색을 지었습니다.

《응 공술이가 왔구만. 배낭을 얻느라 그렇게 늦었나? 까짓거 잃었으면 무어라나. 동무들이 내려오기전에 어서 천막이 나 고쳐놓자구.》

《좌우간 난 번호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하고 화가 나서 땅바닥에 놓여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내동댕이쳤습니다. 이때 마침 백두역건설장에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 하는 노래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무너진 벽체를 다시 쌓으며 부르는 군인건설자들의 노래였지요. 혁명선열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투배낭을 벗지 않고 끝까지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금 수치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나의 배낭사건은 그후 보름가까이 지나서 새로운 배낭사건으로 이어져 보다 더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향순이와 함께 일찌감치 아침밥을 지어놓고 식사공급을 하려고 서두르고있는데 기동예술훈동대 처녀 하나가 느닷없이 취사장안으로 들어서더니 배가 불룩한 배낭을 향순에게 내밀며 호들갑스럽게 떠들더군요.

《옳다 향순아! 그 배낭은 특수지원물자다.》

《아이 좋아라, 이게 뭔데요?》

향순은 손벽을 치며 다가가서 배낭을 받았습니

다, 《그건 내가 어제저녁 백두다리근처 눈구덩이에서 얻은 빵배낭이다. 배낭뒤주머니에 <백두산돌격대 문공술>이라고 붉은 실로 제법 이름까지 수놓았더군... 우선 그 언뺑을 가마에 찌서 먹구보자 고급뺑이다. 그다음에 내가 메가폰을 들구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경종을 울리겠다. 《공술동무, 동문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동무의 배낭이 눈무지에서 굴러다니는가? 동무는 벌써 백두산바람에 혼쫓이 난게 아닌가, 전투를 포기하고...》

집짓 엄한 표정을 지은채 사내들처럼 웅글은 목소리로 웨쳐대던 기동예술훈동대처녀는 향순이한테 옆구리를 찔러우고 갑자기 눈이 울롱해졌습니다.

그 처녀는 지금 자기앞에 앉아있는 돌격대 취사원이 바로 문공술이라군것을 그제야 알았던지 《어마나!》 하고 기겁한 소리를 지르며 출입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거슬러 올라오는것 같았습니다.

웁습니다. 그 배낭은 폭풍이 휩쓸었던 전번날 백

두산마루에서 잃어버린 나의 배낭이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이 얼마나 세쳤으면 백두산마루에 있던 배낭이 백두다리에까지 날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공술이의 존재가 얼마나 빛이 없었으면 거의 보름동안이나 천막을 나란히 하고 지낸 기동선동대원들조차 이름을 모르고있었겠습니까.

모욕감에 나의 온 육신이 란도질을 당하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짹 움켜 쥐고 거친 숨을 쉬면서 당반우에 얹혀있는 나의 배낭을 노려보았습니다.

《공술동무, 너무 고맙게 생각지 마세요, 그 언닌 본시 그런 팔랑인걸요. ...확선애라구 늘 덜렁거리는 처녀예요.》

나는 향순이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리었습니다. 보름전만하여도 배꽃같이 희고 말쑥하던 향순이의 얼굴은 까맣게졌으며 골무꼴처럼 붉고 아름답던 입술은 소금버께가 일도록 조갈이 들고 부르렀습니다.

《나는 고깝게 생각지 않소. 배낭을 잃어버렸었으니 그런 모욕을 받을만도 하지.》 이렇게 웅얼거리는 나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가슴이 저려들 만치 처량하였습니다.

《향순동무, 우린 지금까지 현장동무들에 못지않게 고생을 했지. 우린 매일과 같이 눈보라를 헤치고 현장에 밥을 날랐소, 그래서 동무의 얼굴도 판사람 처럼 되었소, 그렇지만 후날 건설을 끝내고 총화할 때 우리 취사원들의 이름은 맨 마지막꼬리에 붙어 있을게요. 다른 동무들이 영웅이 되고 당원이 되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받아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나는 목이 와 메여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나는 배낭에 수놓아있는 공술이란 이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웨치듯이 말하였습니다. 《향순동무! 우린 영예를 바라고 여기로 오지 않았소, 우린 누가 알아주건말건 랑심껏 충성을 바치면 그만이에요.》 나는 마치 숨은 영웅의 높은 안목으로 긴말을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동선동대 처녀에게서 모욕을 당한 울분의 폭발이였고 여태 현장속보와 기동선동대 축하공연에서 이름 한번 내보지 못한데 대한 반발심과 시샘에서 나온 일종의 항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면 속심과는 전혀 다른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지어 의분에 차서 할수 있는지 스스로도 놀랄 일이였지요. 나는 배낭을 쓸어만지며 계속 하였습니다. 《이제 입이 헤픈 기동선동대 처녀들이 이 배낭을 놓고 무슨 추문을 퍼뜨릴지 모르겠소.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좋소.》

《아이 무슨 추문을 돌리겠어요. 오히려 공술동물 불사신이라고 할거예요. 천치우에 놓여있던 무거운 빵배낭이 백두다리까지 날아갔으니 그게 어떤 바람이었던가요? 후날에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

면 믿지 않을수도 있을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지요.》 향순은 취사장에 주련이 놓인 빈사발들에
국수오리들을 모둑모둑 사러놓으면서 젖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백두산의 폭풍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일
을 상상이나 하겠소. 그런 의미에서도 난 떳떳하오.
다만 내가 피로운것은 이 백두산에 와서 자기가 해
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있는거요.》

향순이가 국수오리를 사러놓은 그릇에 고기국물
을 부어나가는 나의 손길은 떨리었습니다.

《나는 화구를 막으라면 화구를 막겠소. 까놓고
말하면 나는 성준영옹도 눈아래로 보는 사람이
요.》

참말이지 그날은 북받치는 울분을 참을수 없었습
니다.

그래서였던지 그날 점심 현장에서 오락회가 벌여
졌을 때 나는 스스로 벌떡 일어나 나의 《18번가
요》의 가사를 먼저 우렁차게 랑송하고 멋진 손짓
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만약 전화의 날에
청춘기를 맞았다라면
불토하는 적의 화구를
이 몸으로 막았으리
리수복영웅처럼 영웅처럼

요란한 시어로 엮어진 이 노래들 듣고 돌격대원
들과 기동선동대원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
니다. 얼핏 돌아보니 나의 배낭을 열어놓고 쥘고까
불던 껍선에도 힘껏 박수를 치면서 옆에 앉아있는
기동선동대 처녀들에게 무어라 속삭이고있더군요.
오락회에서 후편하게 시를 랑송하고 노래를 불렀던
탓인지 저녁을 지으러 천막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
걸음은 전례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잠풍해져서 아름답고 상엄한 백
두산하의 일만정경이 굽어보이었습니다.

망망한 백두설야에 봉긋봉긋 솟아있는 봉우리들
은 마치 천만대군을 거느린 눈서리 불린 장군의 투
구를 련상시켰고 그 어름에서 긴 나라를 펴고 서서
히 흐느적거리는 흰구름은 선녀의 정결한 마자락
같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허공으로 이따금 휘말려
오르는 눈가루들은 해빛에 반사되어 령롱보석가루
처럼 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백두산은
순식간에도 천래만상의 신명스러운 조화를 부리는
것이어서 날씨를 대중할수 없었습니다.

천막에 돌아오자 언 날씨가 좋았느냐싶게 돌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
습니다. 점차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사방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이해 백두산의
첫비였습니다. 백두산의 봄은 이리도 늦게 5월초에
야 찾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다시 눈이 내리며

바람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지나 또 우뢰
질을 하며 폭우가 쏟아졌지요.

모래처럼 내리뿌리는 세찬 비방울이 금시 천막장
풍에 구멍을 뚫을것 같았고 두꺼운 얼음과 눈을 포
단처럼 덮고 길게 누워있는 백두산골짜기들에 물이
불어나서 모든것이 골개울에 휩쓸려 떠내려갈것 같
았습니다. 얼음강관을 씻으며 골개울이 흐르고 비
와 눈이 《공생》하는 신비로운 광경은 오직 5월의
백두산에서만 볼수 있는것입니다.

비가 한참 쏟아지고있을 때 며칠째 보이지 않던
시중아바이가 느닷없이 취사장으로 뛰어들어와
《공술이, 빨리 나오게.》 하고 나를 불러내갔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시꺼먼 구름들이
시퍼런 번개불을 쭉쭉 내그으면서 요란한 퇴성을
일으켰습니다. 시중아바이는 천막아래쪽으로 내려
가면서 영문을 모른채 따라오는 나에게 말하였습니
다.

《동무네 5월10일공장에서 보낸 권양기가 왔
네.》

《예?!》 나는 부지중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권양기! 5월10일공장 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
들이 그 거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
다.

삭도건설순서로 보아도 무엇보다 먼저 권양기를
백두산상에 올려앉혀야 모든 작업공정들이 순조롭
게 이어지는것인데 여태 그것이 오지 않아서 간을
말리우고있었습니다.

《통채로 운반한다 어쩐다 하다가 종시 권양기를
해체해서 열대의 대형자동차에 실어왔네.》

알고보니 시중아바이는 권양기때문에 며칠째 해
산역에 가있었던군요. 시중아바이의 말은 대형자동
차가 더는 올라갈수 없어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힘
으로 날라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대 벼락이 위험하네. 몇백키로되는 그 쇠불
이를 메고 서둘러 백두산으로 오르다간 벼락을 맞
을거네.》

시중아바이의 말을 확인해주듯이 마침 머리위로
좌-하는 바람소리가 지나가더니 멀지 않은 맞은편
산사면에 물동이같은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천지를
무너뜨리듯한 폭음이 일어났습니다.

《원 날씨두...》 시중아바이는 혀를 차고는 감기
에 걸렸는지 연방 재채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목도
채들을 들고 백두다리쪽으로 달려내려가는 군인건
설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벼락때문에 말렸지만
막무가내구만 한초가 새로운데 벼락때문에 지체한
다는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비물을 두손바닥으로 닦아내고 은근한 목소리를
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공술이, 뭐 생각해둔게 없나? 동무가 권
양기운반은 걱정 말라고 했다더구만.》

(이 느낌이 언제 벌써 그걸 다 알고 있었나?)

나는 그때야 저 무두봉속영소에서 권양기운만은 걱정 말고 우리 연공들에게 맡기라고 소리쳤던 일을 상기하였습니다.

《생각한게 있으면 말하게...》 시중아바이는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뭘 생각한다는겁니까. 내가 말했지요. 어디선가는 대단한 수학자를 달구지군으로 썩게 했다고요... 취사장에 치박아놓고 뭘 생각하라는겁니까.》

나의 가슴에 생겨있던 화약이 폭발하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나가던 군인건설자들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린가? 취사장에 있다고 생각 못할게 뭐가?》 시중아바이는 놀라운듯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몰라요? 그러니 자네는 흰소리를 했구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역겹네. 만장판에서 무엇이든 넘려 말라, 내가 담당하겠다고 소리를 치고는 손가락하나 놀리지 않는 수다쟁이를 말이네...임자도 그런 청년이었던 말인가?》

시중아바이의 목소리가 노기에 떨리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로 퍼붓고 사방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왔습니다. 시중아바이는 역시 무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차 마음을 누그러뜨린듯 평시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더군요.

《그러면 못쓰네. 물론 마음먹었던 일이 어찌 뜻대로 다 되겠나. 난 임자가 은반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탓하는게 아니네-》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자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불부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만하자구. 이제 할수 없구만. 군인들이 하자는대로 목도 해서라도 날라야지. 하긴 임자네 영웅연공도 이 백두산에선 빼여진 방법이 있을것같지 않다고 하네...》 그러면서 아바이는 나더러 빨리 백두다리쪽으로 내려가자고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나는 주춤거렸습니다. 잠시도 실재없이 벼락을 치는 사나운 날씨에 어떻게 권양기를 나눌수 있겠습니까. 나는 시중아바이를 불러세웠습니다.

《아바이 안됩니다. 그 권양기는 우리 5월10일공장에서 애써 만든겁니다. 만약 그게 벼락을 맞는날에는 끝장입니다.》

아바이는 또다시 발작적인 재채기를 몇번 하고 나서 어딘가 비상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군산들은 벼락을 맞지 않게 대책을 세웠다고 하네 자기들의 몸으로라도 벼락을 막아서 기어이 기계를 운반하겠다는거네.》

《뭐야요?!》

나는 너무도 어이가없어 일친 사람처럼 한참이나 멍청히 서있어지오, 나의 눈앞에는 벼락을 맞아 쇠불이와 사람들이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떠올랐습니

다. 때마침 방치같은 시퍼런 번개불이 비 내리는 허공을 죽 가르더니 고막을 터질듯한 퇴성이 일어났습니다. 폭음의 여운이 우렁우렁 비행기소리를 내며 머리위로 구울러가고있을 때 나는 벼락친곳을 가리켰습니다.

《아바이 보셨습니까? 몸으로 총알은 막을수 있어도 벼락은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체자체도 도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곤 권양기도 살려못내고 사람들도 죽습니다.》

《현대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이 벼락의 원리를 왜 모르겠나. 그들은 목도부대앞에 두사람씩 이동식피뢰탑을 기발처럼 들고가면 능히 벼락의 위험을 피할수 있다는거네...동무 생각은 어떤가?》

시중아바이의 말을 듣고 나는 심중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군인건설자들이 말하는 이동식피뢰탑의 구조와 형태를 보지 못한 이상 장담할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심본 가능할상싶었지요.

하지만 권양기를 메나르는 목도부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할수 있어도 앞에서 피뢰탑을 들고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할수 없었지요. 번개치는 날에 나무결에 있거나 우산을 쓰고있어도 위험한것처럼 모든 벼락이 피뢰탑을 들고 서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불안을 느끼고 반신반의하고있을 때 문득 시중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오래 생각할게 없다고 보네. 군인동무들이 하는일인데 무슨 실수가 있겠나... 자네하고 나도 한조 무어서 피뢰탑을 들고 가세.》

《?!》

나는 그 순간 벼락을 치는 소리를 들은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웬일인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아래도리가 후들거리었습니다.

《그런데 아바이! 피뢰탑을 든 사람은 각오해야합니다. 벼락맞을 각오를... 예 죽음을 각오해야합니다.》

《이 사람아,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지 말고 이런때 그 노렐 좀 부르게. 자네 오각회때 부른 노래 있지...<불토하는 화구를 막았으리 리수복영웅처럼 영웅처럼> 하는거 말일세...》

《?!》

나는 또 한번 무서어 운전틀을 일으켰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토록 놀랐는지 스스로도 이상스러웠지요. 나는 어지럽게 뛰노는 심장을 달래면서 과연 내가 이제 피뢰탑을 들고 가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권양기를 나르는 목도부대는 무사할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백두산건설자들의 아름다운 추억속에 길이 남아 있게 될 성스러운 죽음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중아바이의 제기에 쾌히 응해나섰던가, 광만적인 《18번가요》를 소리높이 불렀던가. 아닙니다.나는

평시에 그렇게도 갈망하였던것, 영웅성과 용감성을 시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으면서도 섣뜻 나서지 못하였었습니다. 사람도 죽고 권양기도 살려내지 못한다고하면서 시중아바이를 둘러세우려고 하였지요. 화구를 막는 일도 하찮게 생각해오던 내가 어찌하여 그만한 위험 앞에서 주저했던 말입니까?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용감하지 못한 청년이라는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것이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시에 생각하던 화구와 엄혹한 순간에 생각하는 화구는 판관 다른것이였지요.

《조국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치리라!》

돌이켜보면 안온한 방 안에서 이런 비장한 말을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공술이! 그러지 말구 어서 내려가세. 난 군인동무들과 동무로 노동계급을 믿네. 죽는다는 소릴하는건 자네뿐이야. 죽긴 왜 죽겠나. 자 가세!》

아바이는 몰아치는 비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백두다리를 향해 총총히 달려 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은 벌써 목도패를 무어 기계를 나르고있었습니다. 비발치는 포장도로로 어떤 기다란 물체를 마주들고 목도부대앞에서 걸어가는 두사람의 형제가 언뜻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피뢰탑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나갈 때 《공술동무! 여기로 오게.》 하고 부르는 소리가 소연한 비소리를 누르며 들려왔습니다. 둘러보니 미루나무같이 키높은 피뢰탑이 서 있는 저아래쪽에서 시중아바이가 손짓을 하고있더군요.

나는 무작정 시중아바이한테로 달려갔고 또 어쨌든 피뢰탑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는 미처 알아볼사이도 없이 그저 시중아바이와 함께 기다란 피뢰탑대를 맞잡고 비발속을 누비며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뒤에서는 열명의 목도군이 어기영 더기영 소리를 먹이면서 따라오고... 이러한 목도부대가 열인지 스물인지 알수 없었는데 그 모든 목도부대들앞에는 다 피뢰탑이 기발처럼 서있었습니다.

과연 이 피뢰탑이 벼락을 막아줄가? 피뢰탑대를 쥐고있는 내가 무사할가? 하고 생각하는 나는 금시 벼락을 맞을것 같아 머리칼이 곤두서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맞은편 허공에서 시퍼런 불덩이 하나가 곧바로 내앞으로 내리쬐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불덩이는 마치 영화에서 고속도촬영장면을 보는 때처럼 아주 천천히 날아오는것 같았습니다.

이글지글 타는듯한 그 불덩이가 금시 머리우에 떨어져내리는듯하여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바이! 벼락이요! 벼락!》

공포에 질린 나의 고함소리에 화답을 하듯 바로 눈앞에서 하늘과 땅이 깨어져나가는것 같은 폭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소스라쳐 한길이나 뛰어 올랐던 나는 그만 우묵진곳에 발을 헛디디고 질퍽한 땅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순간 시중아바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결에 돌아다보니 시중아바이가 자빠지려는 피뢰탑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 하나가 바람같이 날아와서 피뢰탑을 붙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어서 일어나요. 어서! 동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온 목도부대가 멎어버렸소.》

피곳 돌아보니 정말 목도채를 멘 수십명의 사람들이 길이 막혀 내뒤에 주련이 늘어섰었습니다. 이때 그들속에서 나는 뜻밖에도 김원철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언제 그가 와있었는지... 군인들과 함께 목도채를 멘채 나를 쏘아보고있었습니다.

아, 그 순간의 수치감을 무어라고 표현할수있을가요. 물론 넘어질수도 있지요. 넘어진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내가 술한 사람들앞에서 용렬하고 비겁한 꼴을 보여준 그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땅을 차고 일어나 피뢰탑대를 다시 틀어쥐었습니다. 여전히 머리우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나들고 사방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은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중아바이가 소리치더군요.

《공술아! 눈을 뜨라! 번개불을 마주 봐봐라, 그래야 그놈이 너한테 달려들지 못해...》

그것은 단순한 웨침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구호였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뜬 나에게는 하늘땅을 환하게 비치는 번개의 푸른 섬광속에서 시중아바이의 목소리가 비소리를 누르며 그냥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넘어지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게. 얼마나 귀중한 동지들이 있는가를...》

나는 아바이의 말대로 주위를 쭉 들어보았다. 그제야 나는 박성준영웅이며 장아바이며 박준호며 우리 공장 동무들이 나의 익측에서 군인동무들과 함께 목도채를 메고 가풀막을 뚫아오르는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넘어지면 사나운 번개불이 그들에게 달려들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술이! 저기 선동대 처녀들이 임자의 노래를 부르네. <리수복영웅처럼...화구를 막으리...> 좋은 노래야. 좋은 노래지...》

시중아바이가 즐거운듯이 소리내어 웃으면서 나더러 같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시에 그리도 잘 부르던 18번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할 그 엄혹한 시각에는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적지않으렵니다. 쏘아지는 폭우, 무섭게 날치는 번개불, 비물에 파헤쳐지는 길...향도역 건설장까지 피뢰탑을

들고 오르는동안 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며 또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백두다리에서 향도역으로 올라간 그 시간이 마치 수십년의 인생이 흘러간듯이 아득히 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지 시간은 하루의 십이분의 일인 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저녁 현장에서 작업총화를 할 때 성준대장은 《우리도 이제는 군인동무들처럼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충성심을 보입니다. 오늘 작업과 관련하여 나는 긴 말을 안하겠소. 동무들이 좀 말해보시오.》하고 마치 점검이나 하듯이 돌격대원들의 얼굴을 쪽 훑어보았습니다. 영웅연공의 날카로운 눈이 나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 내 등때기로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꼴을 직접 목격한 김원철이 벌떡 일어날것만 같았습니다.

《문공술동무는 저 무두봉에서 권양기운반은 연공에게 말기라고 흰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이 동문운반을 책임지기는 커녕 오늘 술한 군인동무들앞에서 우리 공장 로동계급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하고 그가 들이댄다해도 나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나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시비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총화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중아바이가 피퇴함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운신을 못하고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아바인 나와 함께 산마루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운신을 못한다는게 웬말인가?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는가? 그때 비명을 질렀지...하는 여러가지 의문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그길로 시중아바이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는 돌격대 의무실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바이!...저 피퇴함을...나르다...허릴 다쳤다는게 사실입니까?》

나는 죄스럽고 민망하여 혀가 굳어진것처럼 떠들거리었습니다. 아바이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하면서 허리를 다친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허리병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침대신세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나저러니 동침을 서너대 맞았더니 이젠 거뜬해졌네.》

아바이는 나를 안심시키려는듯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서있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참 래일부턴 자네가 식당일을 인계하고 현장으로 나간다지? 권양길 실어왔으니 이제 연공들이 날개를 펼 때가 왔지...일을 잘해보게.》

나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누구한테서도 식당일을 인계하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

기때문입니다. 내가 어정쩡해하자 아바이는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동무네 세포비서가 말하더구만. 바로 이날을 위해서 성준대장이 동물 아끼느라하고 취사원을 시켰다고...참 좋은 동무들이야...》

(아 그랬단말인가!)

나는 무엇인가 강한 철권에 가슴을 부딪친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나는 성준대장의 그 깊은 속도 모르고 못나게 푸념질을 했지요.

모든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튿날에 김원철에게 식당일을 인계하고 성준대장과 함께 높은 발판에 올라서서 연공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공작업도 모질게 몰아치는 백두산바람때문에 무척 힘들고 위험스러웠습니다.

수동식기중기 (그것은 김원철이가 창안한것입니다)가 수백키로나 되는 무거운 철물체를 물어올리면 기다렸던듯 백두산바람이 불어져서 기중기짐이 좌우로 기울거렸습니다. 만약 연공들이 중력중심조절을 잘못하여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 기중기가 번져지는것과 함께 수백키로나 되는 철물체가 권양기조립장에 있는 사람들과 기계를 모조리 깔아뭉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권양기와 사람의 생명을 걸고있는 긴장한 작업이었습니다.

첫 작업이 시작되던 그날은 수은주의 눈금이 령하22도로 내려갔습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발판우에 서있느니 온몸이 얼어들고 손발이 시려났습니다. 우리가 추워하는것을 보고 시중아바이가 물통을 메고 발판우에 올라오더니 따끈한 콩우유를 따라서 두사람의 입에 번갈아 넣어주었습니다.

《아바이, 어서 내려가세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나는 안전띠도 없이 올라온 아바이가 발판에서 떨어질것만 같아 걱정하였습니다.

《일없어, 나도 자네 나이에 연공이었어...》

아바이는 그러면서 나의 허리에 맨 안전띠고리를 든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전줄을 휘둘러 고리를 잡아당겨보는 솜씨가 정말 연공의 솜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시중아바이는 여라문번이나 발판을 오르내리면서 우리들에게 더운물을 공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자고 해도 거기엔 연공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올라갈수없다고 엄하게 단속하였습니다. 그는 잠시도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별난 아바이야...좋은 아바이지. 공산주의아바이야.) 웬일인지 시중아바이가 옆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나와 성준대장이 발판에서 내려자 기동선동대 처녀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노랗게 피어난 백두산만병초를 저마끔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처녀들이 안겨주는 축하의 꽃송이, 눈보라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의 넋과도 같은 만병초를 선뜻 받지 못

하고 한옆에 서있는 시중아바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아바이는 늘 눈속에 피어난 만병초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만병초를 꺾지 마시오.》라는 패말을 박아놓곤하였기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함부로 백두산의 만병초를 꺾지 못했는데 그 만병초를 내 가슴에 안겨주니 송구스러웠던것입니다. 주저하고있는 나를 보고 시중아버이가 혼연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술동무, 어서 받게. 꽃을 받으라구. 바로 동무와 같은 혁신자에게 주자고 내 여태 만병초를 함부로 꺾지 못하게 했네.》

나는 북소리와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서 황금같은 만병초꽃송이를 받아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눈비 내리는 백두산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보냈겠습니까. 2,700여미터의 지붕없는 로천작업장의 차디찬 눈우에서 밤을 새운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지요. 나는 그 간고하고 긴장한 투쟁속에서 진정한 로동의 기쁨과 창조의 희열을 맛보았으며 자기를 알고 동지를 알고 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태 이 모든것을 미처다 모르고 실었지요. 더두말고 나는 성준영웅을 과학에 무식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알고보니 그는 력학과 수학에 대단히 밝은 현대의 연공이었습니다. 나같은 것은 그의 발뒤꿈치에도 못가지요. 그럼에도 박성준의 연공시대는 끝났다고 비난하면서 노루꼬리만한 자기 지식을 뽐내던 나야말로 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늘 업신여기던 김원철이만 하여도 백두산작업장에 알맞는 수동식기중기를 창안한 재능있는 젊은이가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지식도 많은 청년이지요. 누구도 나 우리러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는 멋없이 우월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눈아래로 보았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남을 모르면 어차피 회극적인 인간으로 되는가 봅니다. 나는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백두산바람이 몰아치는 조국의 절정에서 사심없는 충성을 바치려고 애써보았습니다.

간고한 우리의 연공작업은 이십여일만에 끝났습니다. 드디어 권양기조립을 마무리하고 승리의 전투보고를 울리는 영광스러운 시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시각에 불상사가 생길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나는 안전띠 풀고 발판을 내려오다가 별안간 현기증이 일어나서 사닥다리를 헛짚고 그만 아래로 허공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일어난 파로의 후파였습니다. 내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것은 그 이튿날 아침 삼지연군 병원침대였는데 의식을 차리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눈에 밝힌것은 수혈대우에 걸려있는 붉은 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계 돌아오른 나의 혈관에 꽂혀있는 수혈침과 그옆에 웅송그리고 앉아있는 향순이의 이슬머금은 눈을 보았습니다.

《어마나! 정신을 차렸군요. 공술동무!》 향순은 발짝 일어나서 소생한 나의 생명을 확인하려는듯 말끄러미 굽어보더군요, 그때 무엇인가 뜨끈뜨끈한 것이 내 얼굴에 떨어지고있었습니다. 향순이의 눈물이었습니다.

《향순동무, 여기가 어디요? 저 병은 뭐요?》

《가만 누워계세요...여긴 삼지연군병원...》

향순은 목메인 소리를 하더니 입술을 가무려문채 뒤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나는 발판사닥다리에서 떨어질 때 기계의 쇠모서리에 몸을 찢리우고 살을 베이어 많은 피를 흘렸던가봅니다.

(막판에 이게 무슨 꼴이람...은 작업장에 소동을 일으키구 근심을 끼치구.)

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붉은피가 들어있는 .혈병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붉은 피는 누구의것일까? 나의 심정을 헤아린듯 향순이가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5월10일공장동무들이 모두 여기서 밤을 새우고 오늘아침에 백두산으로 갔어요. 저 수혈병엔 5월10일 공장 돌격대원들의 피가 담겨져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피는 모든 형의 피를 다 받을수 있는 AB 형입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방울방울 혈관으로 스며드는것을 육신으로 감촉할 때의 그 억한 심정을 무슨 말로 형용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중아바이 있잖아요.》하고 향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동물 백두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릎에 안고왔어요. <공술아, 역대우같은 녀석이 이게 웬일이냐? 내가 널 돌봐주지못해서 이렇게 됐구나.>하며 막...》

향순이는 목메인 소리를 하며 얼른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눈에선 이슬이 쭈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도 오열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입원실 창너머에 비낀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시중아바이!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굷은 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는 아바이! 나는 피회랍을 들고 번개속을 뚫고가던 그 엄혹한 날을 다시금 돌이켜보았습니다. 《눈을 뜨라. 번개불을 마주 쏘아봐라! 그래야 그놈이 너한테 달려들지 못한다.》뒤에 서있는 목도부대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자기 한 목숨이 두려워 비칠거리고있을 때 나를 향해 힘주어 웨치던 아바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그런 비겁한 젊은이가 무에 그리 귀중하다고 아바이는 나를 붙들고 울었던 말인가.

나는 수혈의 효과로 그날저녁에는 침상에서 일어나 약간의 산책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향순이를 백두산으로 보내고 창문가에 서서 애기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늦저녁의 재빛하늘을 생각깊이 바라보고있을 때였습니다. 간병원어머니가 뛰어들어와서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나의 병문안을 하러 온다면서 설레발은 치는것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오신다구요?》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의아스럽게 입원실출입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벌써 문밖 복도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더니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레 줄레 입원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안경을 낀 담당의사가 들어오고 뒤이어 병원 원장, 성준대장, 장아바이, 담당간호원 그리고 맨뒤에서 시중아바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람은 없었지요. 《공술아, 응 네가 살았구나, 살아났어!》 그전엔 나를 부를 때 자네, 임자, 동무라던 아바이가 그날은 친아들처럼 한결 더 허물없이 너라 하며 두팔을 한껏 벌리고 다가와서 나를 그리 안았습니다.

《아바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나고 목이 메여 올라 시중아바이의 하얀 위생복에 얼굴을 묻은채 가만히 서있었습니다. 시중아바이도 한동안 말없이 내 머리를 쓸어만지기만 하다가 젖은 목소리로 조용히 뇌이었습니다.

《공술아, 넌 너무 무리했단다. 빈혈이 일어났지…난 그것도 몰랐구나.》

아바이는 마치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것처럼 죄스러워하였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용서를 비는 아바이의 순한 눈빛에는 정말 진정이 넘쳐있었습니다. 아바이는 나의 이마를 짚어보고 걱정하였습니다.

《공술아! 아직 머리가 뜨끈뜨끈한게 열이 있는것 같구나. 너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려무나. 내가 힘써볼게.》

《아바이, 아무 걱정마세요. 무슨 <왕자>님이 입원한것처럼 모두 극진하게 돌봐주니.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글썄 당중앙위원회 일군까지 저한테 병문안을 하러 온다지 않습니까. 나같은게 무어라구…》 하며 나는 상두대옆에 서있는 간병원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왜 그런지 안절부절하면서 눈짓으로 시중아바이를 자주 가리켰지만 나는 그의 눈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아바이가 어쭙은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공술동무, 이분이 바로 백두산악도 건설을 위해 파견되어오신 당중앙위원회 일군이요.》

《예?!》

나는 부지중 한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시중아바이가 꺾꺾 웃으면서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었습니다.

《허허허… 놀라긴 무에 그리 놀라나. 내가 명색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다만 구실을 못하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백두산악도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잘 돌봐주라고 하셨는데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음.》 여전히 무뎠던 농군아바이와 같은 말투로 정겹게 뇌이는 시중아바이, 아니 당중앙위원회 일군은 그

무슨 심각한 자책을 느끼는듯 긴숨을 쉬었습니다. 무두봉에 도착한 첫날부터 조금도 허물없이 나를 대해주고 못사람들의 시중을 들던 아바이, 혹은 눈보라 울부짖는 산마루에서 혹은 밥가마가 끓어번지는 취사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저 아바이가, 저렇게 모진 바람, 모진 추위에 얼굴이 뜬 저 소박한 아바이가 당중앙위원회 일군이란말인가? 삭도건설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같이 일해온 군인건설자들도 그를 무두봉숙영소의 후방일군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왜 그 아바이는 사람들앞에서 감쪽같이 속이고 백두산돌격대 후방부아바이의 행색을 했을까요? 그리고보면 박시중이란 이름도 거짓인것 같았습니다.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아낼수가 없었습니다.

《아바이, 난 비겁한 청년입니다. 아바인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있지요. 아바인 나때문에 허리까지 다쳤지요.》 하고 나는 웨치었습니다.

《그만해라…왜 이러느냐…이젠 그만해!》

물결치는 내 어깨와 잔등을 어루만지는 아바이의 손도 떨리는것 같았습니다. 이윽하여 그는 담당의사와 원장선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이 청년은 삭도준공식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늦어도 보름전으로 퇴원할수 있도록 잘 돌봐주십시오!》

겸손하고 유순한 《시중아바이》는 병원의사들에게 각듯이 인사를 하고 입원실을 나섰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내결에 오래 있지 못한다고 량해를 빌면서…

나는 그의 모습이 멀리 어둑속으로 사라진후에도 입원실 창가에 점도록 서서 생각하였습니다.

여전히 등에다 배낭을 지고 아바이는 또 어디로 저렇듯 총총히 가고있는것인가. 조금도 권세를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앞장에 서서 투신하는 일군, 나같은 이런 청년도 허물없는 친구로, 따뜻한 혈육, 진정한 동지로 대해주는 저런 일군이 바로 우리 시대의 충신이 아닐까. 나는 삭도준공식이 있는지 열흘 후에 퇴원수속을 하였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있던 성준대장이 완패된 내 몸을 어루만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준공식날에 수훈식도 하였는데 나에게는 국기훈장 3급이 차려졌다더군요.

《참, 이번에 원철동무가 입당심의를 받았소…그리고 공로메달도 타구…》

《그렇습니까?…》

나는 육중한 그 무엇에 몸을 부딪친듯 흠칫 전신을 떨었습니다. 공로메달을 받은 원철이는 입당을 하였는데 국기훈장3급수훈자인 나는 왜 못했을까? 훈장과 입당은 서로 별개의것인가? 하기가 공로메달 하나도 없는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허공 한점을 응시하고 서있는 나를 떠어보고 성준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술동무, 뭘 그렇게 생각하나?...어서 차에 오르세.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작별인사나 하고가세.》

우리는 한낮이 좀 지나서 백두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이미 철수하고 답사대원들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여서 백두산주변이 조용하였습니다. 백두산말기에 무수히 늘어섰던 돌격대천막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만 《만병초를 꺾지 마시오》라고 쓴 폐말만이 옛모습 그대로 연록색의 설원 잔디밭에 그냥 남아서 사연많은 백두산삭도 건설의 나날을 추억하게 하였습니다. 올려다보니 서서히 날아오르는 희고 부드러운 젓빛안개속에서 저 멀리 향도역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데 만년초석으로 다져진 지상계도식삭도 로반은 눈보라 날리는 강추위속에서 돌격대원들이 철기등과 침목을 메어나르던 그 어려운 전투의 나날을 돌이켜보는듯 구름을 덮고 조용히 누워있었습니다. 나는 옷깃을 바로하고 백두역앞 하얀 부석모래밭에 꿇어앉아 장군봉과 향도역을 향해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것처럼 귀에 익고 몸에 밴 백두산바람이 쉬익-쉬익-소리를 내면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어루만져주었습니다. 아, 류다른 이 봄, 이 여름에 사정없이 내 몸을 후려친 백두산바람, 그 바람은 차고 사납고 때로 무서웠지만 얼마나 고마운 바람이었을가요. 인생의 최고전당에서 나를 꾸짖고 가르쳐주고 키워준 엄격한 스승이었지요. 하기에 백두산의 어마어마한 폭풍과 사나운 눈보라와 퇴성벽력 그리고 북극의 동토대보다도 엄혹한 추위속에서 삭도건설의 체험을 쌓은 모든 돌격대원들이 이제는 세상에 무서운것이 없다고들합니다. 선생님! 나도 그렇게 말할수 있을가요. 과연 이제는 내가 18번노래를 실천으로 옮길수 있을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교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술청년의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세월이 공술청년을 더 정확히 평가해주리라 는 나의 조언을 생각하면서 독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의 후일담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고있을것이다.

공술청년은 그 3년후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으며 4년후에는 공장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하였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5년동안 그는 평범한 농장원으로서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다. 그가 살고있는 풍천협동농장은 세계의 중소형발전소와 십여개의 메탄가스탱크를 만들어 전기화, 기계화의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모두 공술청년이 해놓은것이다. 기자들이 촬영기를 들고 벌써 몇번 그를 찾아갔지만 아직 한번도 텔레비존화면에의 얼굴이 비쳐지지 못했다. 세월은 그가 명실공히 숨은공로자로 되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결합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것이 아니라 결합과 잘못을 빨리 고칠줄 아는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것이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것은 왕년에 백두산삭도 건설에 참가했던 5월10일공장 30명로동계급들 모두가 오늘의 강행군길에서 한뭉씩 단단히 하고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문공술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시중아바이를 추억하였다.

《아바이는 주체83(1994)년 가을 협동농장에 나가 일을 돕다가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 논판에서 순직하였습니다.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이 아바이의 건강을 파괴하였던것 같습니다. 정말 잊을수 없는 당일군입니다. 그는 이미 갔지만 지금도 곁에서서 나를 교양해주고 있습니다.》이러면서 그는 백두산이 솟아있는 북쪽 하늘을 숙연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때 생각하였다. 누구나 꼭 한번은 4월이나 5월의 백두산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야 한다고.

백시

장하다, 우리 병사들

변홍영

우람한 교각들에 받들리어
저 멀리 뻗어간 다리
거창한 구조물들을 가슴에 안아보며
내 뜨거움에 눈시울이 젖어오는구나

장하다 우리 병사들이여

내 어이 그대들의 수고를 다 헤아리라
내 무슨 말로 그대들의 위훈을 다 노래하랴
내 생각이 미처 닿을수 없는
아득한 위훈의 높이에
그대들은 웃으며 서있구나!

어머니는 행복하다

윤경찬

성순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구역당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지금 책임비서가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길이었다. 자기를 왜 불렀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슴이 가지 않았다. 그는 착잡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조용히 책임비서의 방으로 들어섰다. 연한 줄이 간 회색단기옷 차림으로 책상앞에 앉아있던 책임비서가 보던 서류를 밀어놓으며 성순을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다 군대에 나갔지만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울 때 책임비서가 자주 집에 찾아오곤 해서 성순에게는 사실 초면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저 인정 많고 소탈한 친오빠같은 느낌이었는데 구역당 사무실이라는 환경때문인지 오늘은 엄격한데가 더 많이 느껴지는 책임비서였다. 앉으라고 거듭 권해서야 성순은 치마를 내리끌며 벽에 주련이 기대여 놓은 의자의 한쪽모서리에 조심히 걸터앉았다.

《철운이가 구장탄광으로 갔다지요?》

《예...》

성순은 책임비서가 어느새 그것까지 알고있었는가 하는 놀라움과 자기 가정을 항상 관심해주는데 대한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나직이 대답하였다. 철운이는 성순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이었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성순에게는 앞날을 의지할 집안의 기둥이었다. 남달리 머리가 좋아 수재로 소문난 그애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갈 희망을 품고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고하면서 그애만은 데리고있으라고 녀려해주었었다. 그러나 성순은 아들을 선뜻 대학에 보낼수없었다. 데려다 키운 아이들은 다 군대에 보냈는데 친아들만 집에 데리고있으면서 대학공부를 시킨다면 혹시 그애들이 섭섭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에서였다. 그런 사소한 일로 아이들과 간격이 생길까봐 겁났던것이다. 물론 그애들은 편지때마다 적적하지 않게 철운이와 함께 있으라고 당부하곤하지만 어머니는 그럴수없었다. 그래서 철운이에게 형들처럼 군대에 나가라고 했더니 시력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었고 같은 때에 진행된 대학추천에도 늦어지고말았다. 애당초 대학추천을 받았더라면 죽지부러진 새 신세가 되지 않았을것이라는 알찌근한 후회가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데리고있을수는 없었다.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는데 후줄근해 돌아가던 아들은 얼마전에 구장탄광으로 자원진출해갔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적부터 좋

아하는 당콩밥을 지어주었다. 여느때없이 맛스레 밥을 먹으며 아들은 말했었다.

《전 어머니 마음을 다 알아요.》

정작 떠나보내고나니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들이 고맙고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있느라면 허전한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녀인의 한생이란 이렇게 허무한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롭고 쓸쓸했던것이다. 그래서 성순은 요즘 생활에서 재미를 잃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의 고민거리를 책임비서가 짐작했단말인가. 그래서 대뜸 철운이소리를 꺼냈는가.

《우선 이 편지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찾았는지 알게 될겁니다.》

책임비서가 내미는 두툼한 편지봉투의 주소를 읽으며 성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철운이한테서 온 소식인줄 알았는데 그 편지는 군대에 나간 승호가 책임비서앞으로 보내온것이였다. 그런데 그애가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을가. 분명 뭔가도와달라는 소리를 했겠는데 철없는것이 어머니에게는 알려지두 았구... 그애들이 군대에 나가기전엔 집으로 찾아오곤 하던 책임비서를 큰아버지처럼 허물없이 대해온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내가 방조를 못준다 해도 내용이야 알려줘야 할게 아닌가. 성순은 긴장과 불안이 연기처럼 피여올라 마음속에 서러도는것을 느끼며 편지를 꺼내들었다.

《...》

우리가 어머니의 결을 떠나 군대에 나온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언제 한번 그 어머니를 잊은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책임비서아저씨 우리가 어떻게 성순어머니의 아들이 되었는지 알아시지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떠나 그 어머니의 집으로 간것은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웠기때문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지만 그보다도 응석을 받아줄 어머니품이 그리웠고 자기 집에서 남들처럼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어머니가 퍼주는 잠자리에서 단꿈을 꾸고 싶었기때문이였습니다....》

성순은 잠시 편지에서 눈길을 떼었다. 불쑥 그애들을 데려오던 10년전 일이 생생히 떠올랐던것이다....

그날은 대한은 며칠 앞둔 겨울날이였다. 며칠째 칼바람만 몰아치더니 아침부터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렸다. 올해 겨울엔 처음으로 시원스레 내리는

합박눈이었다. 시남새상업관리소 지도원으로 일하는 성순은 온실에서 생산한 오이를 한차 싣고 교외에서도 퍼그나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로 찾아갔다.

《눈이란건 참 좋지요? 정서적인데가 있거든요. 명상에 잠기게 하는…그렇지 않아요? 운전사동무.》

운전칸에 앉은 성순은 우주공간을 꼭 메우며 내리는 눈송이들과 차창에 부딪치는 눈꽃들을 즐겁게 바라보며 흥겨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제 말에 공감할줄 알았던 운전사가 걱정스런 얼굴로 앞을 주시하며 통명스레 대꾸하는 것이었다.

《허참! 녀자들이란…난 지금 이놈의 눈때문에 차가 꼼짝 못하고 잡히지 않겠는가 걱정인데.》

그만에야 성순은 입을 다물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부터 두사람은 목적지에 갈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져내리는 폭설에 자칫하단 자동차가 오도가도 못할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두사람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짐을 부리우고 선자리에서 돌아서던 성순은 차에 오르려다가 눈길을 끄는 광경에 그만 주춤거렸다. 울망줄망한 세 아이가 운동장모서리에 오도카니 서서 내리는 눈을 고스란히 맞고있었던 것이다. 성순은 무심히 지나칠수 없어 애들에게 다가갔다.

《너희들은 누굴 기다리니?》

너인의 목소리에 세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가운데 서있던 작은 아이가 일순간 흠칫하더니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엄마!》

《응?》

《아, 아니에요.》

작은애를 대신해서 큰 아이가 떠뜸거리며 말했다.

《아지민 꼭 우리 엄마처럼…생겼어요. 그런데 엄마만 죽었어요. 이렇게 눈오는 날에…》

불시에 성순은 예리한것이 가슴 한복판을 쭉~째며 지나가는 감을 느꼈다. 이애들은 눈이 오면 어머니가 생각나겠지. 그랬다가 자기들의 세계에 불쑥 뛰어들 성순이 자기를 친엄마로 착각하고 엄마라고 부른 것이다. 정말로 자기가 애들의 어머니와 얼굴모색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움해있던 아이들은 이 시각 세상의 모든 너인들이 다 친어머니로 보일 것이다. 가슴아픈 착각이여-

성순은 아이들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넌 몇살이나?》

《난 열살이에요. 그리구 이엔 내 동생인데 일곱살이에요. 난 승호구 동생은 승일이예요.》

《넌?》

《난 영남이에요요. 아홉살. 난 승호 동무예요.》

엄마를 찾던 아이는 이렇게 서있는데 오래 됐는지 얼굴이 빨갛게 열어있었다. 성순은 저도 모르게 털목도리를 풀었다. 승일이의 목에 그것을 둘러주

고 승동복은 큰애에게 걸쳐주고 장갑은 영남이에게 벗어주었다.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 아이들의 어린마음을 흔들어놓았는지 승일이가 종시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이 내키는대로 행동한다는게 그만 자신을 더 난처한 처지에 빠뜨린 것이다. 성순은 승일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우지 말아. 그럼 못써…》

애들을 달래는 너인의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아무리 설복했으나 허사였다. 부모없는 설움에 북받친 아이를 달랠수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없는 듯싶었다. 승호와 영남이도 눈물방울을 똑똑 떨구며 입을 실룩거렸다. 이대로는 떠날수 없었다. 어떻게 할가?

《울지 말아. 애들아! 너희들 자동차 태워줄가? 도시에 가봤니? 동물원에 가봤니? 함께 가자! 우리 집에두 가구. 맛있는거 많이 줄게.》

《맛있는건 여기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건 더 맛있는거란다, 가면 텔레비존두 있구 고양이두 있구 또 불이 나오는 권총두 있다. 가서 나랑 함께 놀자. 그럼 난 너희 엄마가 되구, 좋지?》

아이들을 달랠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싶던 그때의 성순이로서는 자기가 히는 밀이 아이들에겐 세상을 통채로 준다는 말과 같다는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이 울음만 그칠기를 바랄뿐이었다.

《정말이냐요?》

엄마라는 소리에 승일이가 흐느낌으로 끊기우면서 다짐받듯 말했다.

《어른들은 거짓말 안해! 자, 빨리 타자!》

성순은 운전사가 눈이 동그래지는것도 못본체하고 아이들을 운전칸에 태웠다. 나이지극한 원장녀인이 눈발을 헤치며 황황히 달려왔다.

《어찌자는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다시 와요.》

그리고는 누가 만류할사이도 없이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떠나자요. 운전사동무!》

처음엔 모르겠더니 차가 한참 달리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동복이며 목도리며 애들에게 몽땅 벗어줬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실적인 사고체계가 되살아났다. 자기가 즉흥적인 감정으로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는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리성이 암만 제동을 걸어도 어쩔수 없게 되었다.

(내가 어찌자구 아이들을 데려가는가.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살난 아들 하나 키우는것도 찢찢 매면서… 시어머니가 야단하지 않을까?)

몇년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정정해서 성순이와 같이 살고있었다.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말아봐주니 남편없이 시어머니만 모시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저 친정어머니같이만

생각되는 무던한 늙은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어떻게 생각할지 며칠 잘 놀게 하고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면 어머니도 반대 안하시겠지.

갑자기 차가 멎었다. 운전칸 문이 열리며 승호가 솜뚱복과 털목도리, 장갑까지 넘겨주는 것이었다.

《그건 왜?》

《아지미가 입으세요. 우린 춥지 않아요.》

《난 일없어. 너희들이 입어라!》

《싫어요!》

《아지민 어른이어서 춥지 않단다.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해야지.》

그래도 운전칸 발디디개우에 올라선 승호는 움직일념도 않고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솜뚱복을 받쳐들고 있었다. 하다못해 운전사가 차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지도원동무! 어서 받수다. 아무렴 애들한테 이걸 갖 갈소?》

들썩거리는 적재함우에서 성순은 느닷없이 차오르는 모성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이애들을 내가 키워볼가. 내가 꽤 키울수있을가.)

아름다운 처녀들이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공산주의 미풍이사회에 차넘치고있는 때에 자기라고 못할건 없겠지만 정작 결심하자니 주저하게 되는것을 어쩔수없었다. 남의 아이들을 키운다는게 말처럼 쉬운것은 아닐진대 만약 어머니구실을 제대로 못하게되면 앞으로 무슨 불행이 초래될지 가늠하기 어려웠던것이다.

(이거야말로 쏘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격이 아닐가.)

그 불안감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아이구, 이게 웬 아이퐁년이나?》

행주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출입문을 열어주며 소리질렀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성순은 아이들을 따듯한 아래방에 앉혀놓고는 어머니를 앞세우고 옷방으로 올라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결심이 명백치 않다보니 말도 조리있게 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의 행동을 이해해주었으면 싶었다.

《정말이지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넌 그애들을 보는 순간에 어미로서 결심했다. 아직 그 마음을 굳히지 못했을뿐이지.》

잠시 생각에 잠겼던 어머니는 혼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제 그애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는건 굵은 아이에게 진수성찬 구경만 시키는것과 같은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저애들을 맡아서 나라의 충신으로 잘 키워보자꾸나. 어미구실 한다는게 헛된 않다만 그래두 내인들이야 그걸 락으로 알구 살지.》

성순은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그 어떤 생활적인 타산에 앞서 자기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어머니가 고마왔던것이다.

《어머니! 고마와요. 제가 토론두 없이 멋대로 행동한걸 용서하세요.》

《고맙다는건 뭐구 용서는 또 뭐냐? 옛날부터 선한 일은 남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할수록 더 선해지다구 했다. 난 그애들을 데려온 네 마음을 다 안다. 저애들을 보니 철운이 애비 생각이 더 나는구나. 너희 부부는 아마 애들을 위해 살 팔자를 타고났는가 부다.》

주름깊은 어머니얼굴에 역연한 추억의 빛을 읽느라니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의 일이 어제일처럼 성순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해 추운 겨울날 얼음구멍에 썰매채로 빠졌던 아이를 구원해 낸 남편은 동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종시 그날밤을 넘기지 못했다. 남편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믿기 어려운 현실앞에서 성순은 너무 억이 막혀 처음엔 울지도 못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창줄간에 들이닥친 불행일진대 이제 겨우 서른살을 넘긴 젊은 녀인의 심정이 오죽하랴. 지금껏 그는 혼자 사는 녀인들의 불행을 동정해왔었는데 이제는 동정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은즉 이 얼마나 가혹한 운명의 희롱인가. 누구나 다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며 성순을 위로해주었다. 그리고보면 남편은 성순이 자기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아깝고 필요한 사람이었던게 틀림없었다. 하다면 오늘날 남편의 회생으로 구원된 저 아이가 이다음에 커서 조국을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하겠는지는, 그애도 누구에게나 아깝고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슬픔으로하여 리성을 잃은 성순은 시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자기의 생각을 토설해버렸다. 그때 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형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눈물에 젖었지만 엄한 음성으로 꾸짖었다.

《그럼 못쓴다! 먼저 간 지아비한테 죄될라.》

그때는 어머니 말을 새겨듣지 않았지만 그후 성순은 자기가 정말 짧게 생각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구원한 그 아이가 이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날 그것을 그려보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영원한 사랑의 법칙이 있는것이다. 법칙앞에선 항상 성실해야 한다. 래일을 위해 산다는게 쉽지는 않지만 전세대의 본분이기전에 량심으로 지켜야 하는 그 법칙대로 남편은 행동한것이다. 이런걸 두고 인생은 상실이자 획득이라고 하는것이 아닐가. 성순은 남편의 회생을 순간이나마 욱되게 한것만 같아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앞에서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때의 자책감이 오늘날 성순에게 아이들을 키울

결심을 하도록 작용했으나 그것은 성순이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생을 살아온 시어머니만은 본능으로 그것을 짐작하고 며느리의 마음을 중히 여기며 서슴없이 지지해나선 것이리라.

새로운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셋이서 오붓하게 살 땐 모르겠더니 그때부터는 성순에게 차례지는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머니가 도와주느라고 하지만 빨래감도 사흘이 멀다하게 생겨나곤 했고 한가마 해놓은 밥도 모자라 어떤 때는 때식을 건드기도 했다. 그래도 성순은 별로 힘든 줄을 몰랐다. 아니, 힘은 들어도 그는 생활의 고달픔을 즐겁게 받아들이곤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가.

휴식일이나 명절때면 성순은 아이들을 데리고 유원지나 동물원을 찾아가 시간을 바치곤 했고 저녁이면 여러가지 오락을 생각해내거나 재미나는 옛말을 들려주곤 했다.

《어느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세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옛말을 듣던 아이들이 끄덕 끄덕 졸다가 성순의 무릎을 베고 쓰러지면 시어머니가 그애들을 잠자리에 안아다 눕히곤 했다. 그 나날에 아이들의 입에서는 《아지미》란 말 대신에 《어머니》란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그리고 조심스레 그다음엔 점차 스스럼없이 불리워졌고 성순은 그런 애들에게 한층더 애정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성순에게 있어서 제일 속상한 것은 아들 철운이의 독판치기였다. 여섯살짜리 철부지는 형님들과 재미나게 놀다가도 조금만 뒤틀리면 《이건 우리 엄마야!》, 《여긴 우리 집이야. 가라!》 하면서 우뚝거리는데 그럴 때면 승일이네 형제들은 대번에 풀이 죽어 옷방 한구석에 저희들끼리 쪼그리고 앉아 울적한 표정을 짓곤 하였다. 어머니가 철운이를 욕할라치면 그애는 -양- 하고 울음을 터치곤 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더 흐려놓는다. 성순이도 이전에는 퇴근해오면서 《철운아, 엄마 왔다!》하던걸 이제는 《애들아, 엄마 왔다!》 하는 식으로 철운이를 다른 애들과 섞으려 해보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어린이의 욕심을 덜어낼 수는 없었다. 생각 끝에 성순은 아들을 친정집에 당분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한 날 밤 성순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제 아들 대신 남의 애들만을 위해야 하는 자기의 처지에기가 찼던 것이다. 꼭 그래야 하는가. 이겨야말로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빼는 격이 아닌가.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굴러온게 아니라 성순이 제손으로 《굴러 온》 것이다. 그럼 왜 굴러왔는가. 남편앞에 속죄는 마음에서? 아니면 혹시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공산주의미풍선구자로 사람들앞에 나서고 싶어서? 아니야. 난 함박눈을 맞으며 엄마를 부르는 그애들을 보는 순간 그애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쩔다고 속을 썩이는가. 설사 철운이를 떼놓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희생으로 생각되더라도 그걸 각오하지 못하

구야 어떻게 술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욕심을 부릴 수 있는가.

《밤새 뒤척거리려는걸 보니 무슨 생각이 많은게로구나.》

시어머니가 옆에 누운채로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성순은 눈물자욱을 지우지 못한채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아무래두 철운이를 얼마동안 친정에 맡겨야겠어요. 저애들이 철운이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게 걸리는군요.》

《차츰 나아지겠지. 아무려면 그렇게야 어떻게...》

《어머니, 제발 막지 말아요. 날이 밝으면 이 애를 데리고 떠나세요. 제 생각이 달라지기전에...》

애써 무표정한 태도를 취하려는 며느리의 심중을 헤아려보며 시어머니는 이불깃으로 눈굽을 훔쳤다. 《용쿠나, 아에미야.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두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날은 아직 밝지 않았으나 성순은 부엌으로 나갔다. 떠나는 아들에게 당콩밥이랑 뭇된 특식을 해먹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번거로워서인지 밥은 죽처럼 되었고 닭알부침은 까맣게 태워버렸다. 친자식을 슬하에서 떼여내고 남의 자식을 품에 안아야 하는 너인의 심정은 말로써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순은 다시 편지에 눈길을 모았다.

《...우린 그 어머니집에서 남부러운것 없이 살면서도 처음엔 남의 집에 얹혀산다는 위축된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했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장난 세찬 우리들을 시중하느라 어머니는 언제나 한번 편히 앉아본적 없었답니다. 친부모의 사랑에 굶주렸던 우리들은 성순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믿고 구김살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행복마저 희생시키는것을 보며 우린 사랑을 받기만 하는것이 얼마나 미안스러운 일인가를 처음으로 느꼈고 이다음에 크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더랬습니다.》

성순은 편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으나 그애들을 키우면서 겪은 일들이 언뜻언뜻 떠올라 글줄이 안겨오지 않았다. 제일먼저 생각나는것은 시어머니가 로환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의 일이었다.

친정어머니처럼 무덤하고 다심한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난뒤 성순은 자리를 펴고 누웠다. 하지만 생활은 그를 슬픔에만 잠겨있게 하지 않았다. 하루 세끼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숙제검열도 해주고... 아이들을 키운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스레 느낄수록 언제나 말없이 뒤바라지를 해주던 시어머니가 더 그리워지곤 했다.

그날도 성순은 아래방에 누워있었다.

《어머니! 학교에 가겠어요.》

승호와 영남이가 책가방을 부시럭거리며 조심스레 말하는 것이었다. 점심밥을 달라는 소리다. 언제 벌써 점심때가 지난 모양이었다. 더운밥을 할 시간도 없는데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싫어 성순은 누운채로 대답하였다.

《가마안에 아침에 먹던 밥이 있을게다. 얼른 먹고 가거라.》

《예.》

부엌에서 가마뚜껑 여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엔 현관문소리에 잇달아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성순은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부엌에서 덜거덕거리던 시간으로 봐선 언제 밥먹을 새가 없었는데 왜 벌써 갈까. 가만 생각해보니 아침에 남은밥이 있었던지 없었던지도 아리송했다.

(혹시?)

성순은 움쭉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다. 가마를 열어보니 밥 한그릇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순간 성순은 온몸을 감전시키는 짜릿한 느낌에 흠칫했다. 아이들이 한그릇밖에 남지 않은 밥을 어머니를 위해 남겨두고 그냥 학교로 간 것이었다. 앓아누운 어머니가 굶을가봐...

《애들두, 참...》

그 밥한그릇에서 다 자란 자식의 효성을 읽으며 행복에 겨워 부뚜막에 걸터앉았던 성순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그 서슬에 손에 쥐고있던 가마뚜껑이 부엌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쩌면 내가...)

결국 자기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를 보살피고있다는 어이없는 사실이 그를 정신차리게 했던 것이다. 성순은 울고싶도록 억이 막혔다. 그애들이 밥 없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 굶고 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틀림없이 친어머니를 생각했겠지. 아무리 편치 않아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는 친어머니를... 그런데 난 이게 뭐가. 성순이가 더운 밥을 해두고 학교에 찾아가니 마침 승호의 담임선생이 첫 수업을 끝내고 나오다가 반겨맞아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려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중년기에 이른 녀선생은 성순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난 사실 승호랑 영남이랑 내가 데려갈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철운이 어머니 혼자몸인데다 할머니까지 안계시니 부담이 많을것 같더군요. 그래서 승호에게 넌지시 비쳐봤더니 자기네 그 집에서 어디 두 안가겠다는거예요. 그때 그애가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제밥까지 다 퍼주고 굶으면서까지 자기들을 고와한다는거예요. 그래서 고쳐 생각하구 철운이네 가정문제를 학급소년단위원장학생들의 학부형들과 조용히 토론했는데 글썽 어떻게

알았는지 온 학급의 학부형들이 다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은 왜 승호형제를 도와주는데서 빼놓는가구 막 항의를 들이대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너나없이 모든게 풍족하진 못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세계만은 더 풍부해졌다구 할까. 철운이 어머니! 우리 그애들을 장군님의 친아들답게 잘 키우자요. 학교에서도 힘껏 돕겠으니 애로되는데 있으면 서슴지 말아요.》

성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순간이나마 아이들때문에 부담스러움을 느꼈던 그로서는 자기를 위해주려는 그 고마운 마음들앞에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성순의 손을 꼭 잡아주는 녀선생의 얼굴에서는 따뜻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세월은 흘렀다. 인민반이 관심해주고 학교가 도와주고 구역에서 보살펴주는 속에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다 되었다. 생활은 다양한 색깔과 음향을 내면서 자기 궤도를 따라 흘렀다.

영남이가 열네살때인가 그애는 충수염수술로 구역병원에 입원했었다. 사실은 쉽게 치료할수 있었는데 그애는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배가 아픈것도 참고있다가 못견딜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다나니 충수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넘어갔었다. 성순은 영남이를 간호하느라 침대걸을 떠나지 못하고 며칠밤을 밝혔다. 우연이랄지 성순은 그 과정에 한호실에 입원해있던 정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구역차사업소 운전사로 일한다는 정민이가 일찍 안해를 잃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홀아비라는것을 성순은 물론 알수 없었다. 영남이가 회복기에 들어선 어느날 정민은 친구들이 면회오면서 들고왔던 큼직한 사과를 깎아 성순에게 내밀며 말을 건넸다.

《아주머닌 제 몸두 돌봐야지 그러단 처지가 바뀔겠수다. 아들은 퇴원하고 어머니 입원하고...》

사실 성순은 이 며칠째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눈엔 피발이 지고 입술엔 조갈이 들고...

《일없습니다. 애한테만 벌일없다면야.》

《어느 책을 보니 녀성의 인간됨을 정확히 평가하자면 아이들을 키우는걸 봐야 한다고 했던데 아주머닌 참 쉽지 않군요. 더구나 제 친자식도 아닌데...》

《우리 집을 알아요?》

《온 구역이 다 아는 집을 나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민은 다른 연고로 성순을 알고있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자기네와 한 아파트에 사는 마음씨 고운 녀자라면서 성순을 소개했던 것이다. 그때 정민은 성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녀성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만약 두 가정이 합치는 경우 아이들만 여섯이라는 수자가 매사에 심중한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생활의 우연으로 성순을 가까이에서

대하고보니 그때 제깍 만나보지 않은것이 후회스러웠다. 예전에 듣던바대로 과연 훌륭한 녀성이로구나 하는 일종의 환희비슷한 감동을 느꼈던것이다.

두사람은 그렇게 알게 되었다. 정민은 퇴원후에도 드문히 성순을 찾아오곤 했고 생활상방조를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였다. 성순이 보기에 정민을 별로 탓하고싶지 않은 사람이었던것이다. 그래서 어느날저녁 정민이가 두 가정의 합가를 조심스레 제기했을 때 성순은 구태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집안에 엄격한 아버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정민은 한동안 두사람의 래일에 대하여 흥분되어조로 말했다. 그 래일은 무한히 밝고 달콤하고 기쁨기 흐르는 동화세계였다. 그러다가 잠시 동안을 두더니 별로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요, 내게두 아이가... 둘씩이나 되구 동무한테두 철운이가 있으니 데려온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섯인데... 친부모가 서로 다른 아이들사이에 형제간의 정이 통하겠는가 하는것도 문제거든.》

그 말에 성순은 고개를 들었다. 그 문제는 사실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것이다. 그저 별일없으리라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홀시했을까?)

성순은 모성으로서의 빈구석을 스스로 인정하며 정민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니 대체 어떻게 하자는건가.

《이제 와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애들을 돌려보낸다구 해두 누구나 이해하지 않을가. 사실 그만큼 키웠으면 동문 사회앞에 지닌 의무에 성신했다고 할수 있거든. 동무에게두 남들처럼 행복을 누릴수 있는 몇몇한 권리가 있단말이요.》

성순은 정민의 말을 반박하고싶었지만 왜서인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권리라니? 나한테 언제 행복할 권리가 없었는가? 그 권리가 누구에나 똑같이 차례지는것이 아닌가. 설사 나한테만 그것이 없었다 치자. 그럼 내가 지금껏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 아이들을 키웠단말인가.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을 내놓고 녀성에게 또 무슨 행복의 권리가 따로 있단 말인가...

백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으로 치달아오르다가 불쑥 발밑에 캄캄한 심연을 본듯한 느낌이어서 성순은 눈을 꼭 감아버렸다.

정민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의 마음은 천근으로 무거웠고 그 무게에 놀리워 걸음발도가볍지 못했다. 물론 성순은 아이들을 돌려보냈으면 하는 정민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였다. 정민으로서의 가정을 새롭게 꾸리려는 지금 새 가정의 단란한 행복을 방해할수 있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용납하기 어려울것이다. 행복의 선물만 흘러야 할 새 가정에 혹시 아이들이 어떤 불협화음을

섞을지 어이 알라. 그러니 늦게나마 오בות한 가정을 꾸리고 지난날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까지 봉창하고 싶어하는 그를 무작정 탓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민은 지금 자기와 아이들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데 과연 둘 다 가질수는없단 말인가.

(래일저녁 집에 들리겠다구 했지. 그때 정확한 대답을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하는가.)

그 다음날저녁 정민이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도 상순은 자기의 립장을 명백하게 정리하지 못한채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정민은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성큼성큼 아래방으로 들어갔다. 마치 제 집에 오기라도한듯 그의 행동은 스스럼없어보였다. 아래방에서 숙제도 하고 텔레비존도 보던 아이들이 우줄우줄 일어서며 낮선 아저씨에게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영남이만은 제가 잘 아는 아저씨라 별쭉 웃었다. 정민은 애들의 인사를 받으며 영남의 머리를 쓸어주더니 책상앞에 놓인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 의자는 승호가 책을 펴놓고 앉아 숙제를 하다가 정민에게 인사를 하느라 일어섰던 자리였다.

《너희들은 옷방에 올라가 놀아라. 응?》

정민은 움쭉 일어서더니 텔레비존스위치를 끄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애들은 한창 재미나게 보던 영화를 못보게 된 안타까움에다 남의 집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낮선 아저씨에 대한 불만으로 입을 비죽이 내밀며 성순을 쳐다보았다. 방안에는 잠시 어색한 공기가 돌았다. 성순은 뜻밖의 일이어서 어쩔바를 모르고 서성거리다가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가 텔레비존스위치를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옷방에 올라가자요.》

연한 향수내가 풍기는 옷방은 모든것이 제자리에 안배되어있어서인지 한결 더 아늑해보였다. 정민은 창가에 놓인 팔걸이의자에 앉고 성순은 방바닥에 초물방석을 깔고앉았다. 이런 류다른 환경에서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두사람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있었다. 심신을 압박하는 그 침묵의 중하 견딜수 없었던지 정민이가 먼저 불안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결심이 안됐소?》

성순은 대답대신 몸을 일으켜 창가에 다가섰다. 어느 집, 어느 창가에서나 밝은 불빛이 음악소리, 웃음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행복하고 쾌사로운 저녁이였다. 그런데 자기는...

창턱에 놓인 화분에 만첩으로 피여난 빨간 제라늄꽃도 오늘은 아프게 눈을 자극했다. 성순은 무심결에 활짝 핀 꽃송이에서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냈다.

성순은 지금 정민을 알게 된 자신을 후회하고있

었다. 그 후회는 방금전에 아래방에서 정민의 행동을 목격하며 생겨난 것이었다. 자기는 여직껏 아이들을 위해서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와서보니 그것은 자기변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자기 행복을 마중하는데만 움혀있다면 아이들문제는 거의 도외시되어 뒤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명실공히 어머니로 되자면 어느때든 어머니다와야 하지 않는가. 어느새 꽃송이는 손톱에 다 뜯기우고 꽃망울만 남았다. 《나도 동무가 곁에 있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아마 혼자라는 말에조차 습관되기 힘든 가봐요. 그래서 어제 동무의 말을 듣고도 다른 소리를 못했었는데 방금전에야 결심했어요. 난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요. 난 애들에게 정이 들면서부터 그 애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난 어느새... 난 어머니 자격이 없는 나쁜 여자예요.》

성순은 정민을 향해 돌아섰다. 자기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했던 이성의 사랑대신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옹호하고 깊이 간직하려는 너인의 의지가 그의 얼굴에 흐르고 있었다.

《우리 녀성들은 자기의 행복을 생각할 때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이성에 대한 사랑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법이 없답니다.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녀성들에 대한 우롱이며 모욕이 아닐까요?》

성순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예상치 않았던 타격에 정민은 아무말도 못했다. 그저 머리를 짓수긋하고 담배만 태우다가 한참만에야 자신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소. 내 욕심만 중시하다나니...미안하오. 만약 동무 생각대로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다른게 없겠소?》

성순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안돼요. 늦었어요.》

《늦었다는 것 또 뭐요?》

《내가 이제까지 결심 못했던 것도 사실 동무가 오면 다시 잘 토론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정민은 성순의 말을 알아들었다. 자기가 방금 아래방에서 남긴 첫 인상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을, 따라서 함께 모여사는 경우에 자기는 아이들에게서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말을 듣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순이가 피로와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남의 집에서 자란 애들은 눈치도 빠르고 자존심도 강한 법인데 그 때문에 가정에 안정이 깃들지 못한다면 성순이 자신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두사람사이엔 더이상 할말이 없었다. 정민은 무겁게 몸을 일으키더니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다. 코트를 벗겨들고 그는 피로운 신음 소리를 섞어 말하는 것이었다.

《용서하오...동무에겐 내가 속물로 보이겠지.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때도 있는 거요...난 동무의 세계를 알게 된 이상 그냥 물러서지 않겠소. 그 애들에게서 아버지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단념하지 않겠단 말이요!》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 직장 에 나갔다가 퇴근해오니 아이들이 없어졌던 것이다. 어디 놀러 나갔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애들은 밤이 깊어가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 불길만 예감이 든 성순은 철운이를 채워놓고 집을 나섰다. 어딜 갔을가. 이런 일은 처음인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성순을 문득 생각키누는 것이 있어 우뚝 서버렸다.

(설마?)

하지만 거기밖엔 더 갈데가 없었다. 성순은 교외로 나가는 뺨스정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필경 아이들은 어제저녁 정민이가 집에 왔을 때 무슨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자기들이 문제거리로 되었는데 걸 엿듣고는 어머니한테 말도 안하고 달아난 것이다. 말했잖아 욕만 먹을테니까.

뺨스에서 내려서도 무인지경 밤길을 한시간 실패 걸어 도착하니 한밤중의 초등학교원은 짙은 고요에 잠겨있었다. 유독 원장의 사무실에서만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며 어서 오라 반기는 듯싶었다.

《승호 어머니!》

정문으로 들어서려던 성순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우뚝 서버렸다. 뚝배에도 원장이 급한 걸음으로 마주 오는 것이었다. 원장은 다가 오자마자 성순의 손목부터 덥석 잡아쥐었다.

《애들 짐작이 맞았군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찾으러 올 수 있다더니...》

그러니 원장은 지금껏 자기를 기다려 마당가를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상순은 코마루가 시큰해지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원장이 잡아끄는 대로 따라갔다. 방에 들어선 원장도 성순에게 보온병의 물을 따라주며 손수건으로 자주 눈굽을 찍어냈다. 나이지긋한 원장녀인은 마구 형클어진 머리로부터 흙투성이가 된 신발까지 성순의 우아래를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다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애들 말이 자기네만 없어지면 어머니가 재미나게 살 것 같아 떠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철부지 승일이 안가겠다고 울면서 떼를 쓰다가 제 형한테 한대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아까도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들은 숨어있을테니 어머니가 찾아오면 없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키우느라 고생해온 어머니의 행복을 마련해주려는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도망쳐왔다고 욕두 못해주었답니다. 생각하는 품이 어른스러운게 이제 철이 다 들었어요. 그 나이

에 행복을 양보할줄 안다는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도 성순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는 애들의 행동을 너그럽게만 보고싶지 않았었다. 물론 원장의 말이 다 옳고 그래서 아이들을 힘껏 안아주고 싶은것이 성순의 솔직한 심정이지는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 한귀퉁이에는 애들이 아직도 자기를 친어머니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쇠 못처럼 들어박혀있었다. 철이 들었건 어쨌건 제 집, 제 부모라고 생각하고있었다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달아날 생각이야 하지 말아야 할게 아닌가.

《원장선생님, 공연히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미안합니다. 모든게 제 잘못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된바엔 애들을 남겨두지 않겠어요?》

《아니요!》

성순은 단호한 어조로 웨치다싶이 말했다.

《그애들은 제 자식들이예요!》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웨침이 터져나왔는지 성순이 자신도 놀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녀인은 언제나 그애들의 친어머니로 살리라는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성순이의 태도에서 본능으로서의 모성애를 초월한 신성한 세계를 보았던지 원장은 감심한 표정을 짓고 성순의 두손을 감싸쥐었다. 《고마와요!》

성순은 원장을 따라 옆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니 세 아이가 잠자리도 퍼지 않은채 한곳에 몰쳐앉아있었다. 어머니를 알아본 승일이가 화닥닥 일어나며 성순의 품에 뛰어들었다. 《엄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는 영영떨어지지 않으려는듯 꼭 달라붙었다. 승호와 영남이는 밤길을 걸은 어머니한테 죄스러움을 느꼈는지 다가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 주춤거렸다. 그만에야 녀인은 숙곳치는 걱정을 건잡을수없어 맏이의 뺨을 철썩 후려갈렸다.

《못난 자식! 자꾸 에미속을 태울테냐?》

그바람에 세 아이가 한꺼번에 울음을 터치며 성순의 허리에 와락 매달렸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엄마야, 다신 안그럴래.》...

성순은 애들을 앞세우고 밖에 나섰다. 밤은 깊었으나 애들을 집에 데리고가서 재우고싶었던것이다. 방에 들어갔던 원장이 따라나오며 성순을 불러세웠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금 책임비서동지한테 전화했더니 승용차를 보내주겠다는군요. 마침 자기방에 승호형제를 잘 아는 차사업소 운전사가 와있는데 그 사람이 물고갈것라면서 기다리라는군요.》 대뜸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순은 그가 책임비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문제를 단념하지 않았을뿐이니라 정열적

으로 시작하고있다는것만은 명백히 알수 있었다....

그후 성순은 정민이가 승일이랑 철운이랑 학교나 유희장에서 자주 만나군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생각에 잠기군 했다. 그런데 지금 승호의 편지에는 정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편지에 초점을 모았다.

《...얼마전에 정민아저씨한테서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 아저씨는 우리들이 군사복무를 잘하라는 엄격한 훈시를 친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담아 자주 편지하군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에서 우린 철운이가 집을 나간 사연을 알게 되었습시다. 물론 우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머니 우릴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우린 어머니의 그런 견해가 섭섭하군요. 어머니가 자식들때문에 그런 정신적부담까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우린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책임비서아저씨!

우리에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사는 친자식의 긍지를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린 철운이와 친형제가 아닙니까? 우린 자기들을 고아라 생각지않습시다. 우리에게 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품이 우리를 조국위해 총잡은 병사로 키웠고 사랑으로 한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회의 고유한 진리를 터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글줄들은 더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꼭 감고 머리를 떨구었다. 녀인은 지금껏 그애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러나 성순은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채 쓰지 못한 말이 있다는것을, 다시말하면 한생의 그 자부심을 부정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애들은 자기를 명실공히 친어머니로 믿어왔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던것이다.

(만약 내가 그애들을 진정 친자식으로 생각하고있었다면 철운이를 애초에 대학으로 보냈을거야. 그리고 그애를 집에 데리고 있었을거구. 그런데 난 그렇게 하고싶으면서도 그애들이 친부모생각으로 우울해질가봐 철운이를 멀리 떠나보냈지. 이젠 내가 철운이와 승호형제를 대하는데서 차이를 두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철운이와 승호형제를 친형제로 생각지 않다보니 그애들을 위한다는게 오히려 고아의 처지를 느끼게 해주었거든.)

그러고보면 자기는 그애들을 친자식으로 생각한다고는 하면서도 공민의 사회적의무감으로만 아이들을 키워온게 아닌가.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참된 모성애사이에는 차이가, 간격이 있는것이다.

비록 실금같은 간격이었고 무의식속에 존재한 간격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메꾸지 않다보니 자기는 진정으로 애들을 사랑했다 해도 사실은 친어머니 흉내를 낸것이나 같았다. 분명히 자기에게는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사랑의 여지가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친자식에게만 본능으로 발휘할

수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바로 그걸 달라고 친자식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이다. 실금의 간격마저 없애고 혈연간에만 오갈수 있는 절대적이고 소중한것을 요구하며 투정질을 하고있는것이다.

아! 이런 투정을 받으며 사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성순은 종시 편지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오래 동안 세차게 어깨를 들먹거렸다. 그는 책임비서가 고마왔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참된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책임비서가 이 편지를 보였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책임비서는 성순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무게있는 어조로 말했다.

《얼마나 기특한 애들입니까.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더니 바로 성순동무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런 훌륭한 새 세대를 낳았습니다. 서로가 먼저 위해주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좋소. 난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바로 장군님의 한식술이라는 하나의 대가정에서만 생겨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가풍이구 이 나라 녀인들의 행복이지요. 그러니 긍지를 가지시오. 동문 우리 장군님 사랑하시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훌륭한 아들로 키워냈단말입니다.》

성순은 책임비서의 말을 듣느라니 자연 생각이 많아졌다.

우리 세상- 아직은 부족한것도 많고 해야 할일도 많지만 날이 갈수록 이 제도가 더 소중히 생각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룰리가 세대와 세대를 결합시키며 일심단결의 기초로 되고 그 누구도 허물어버릴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영원한 초석으로 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강행군도 웃으며 헤쳐가는것이 아닌가.

(정말 내 한생이 그 초석을 다지는데 보탬이 됐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을 어디서 찾으랴.)

《얼마전에 구장으로 가는 인편이 있길래 철운이의 안부를 부탁했더니 일을 잘한다는 소식이 왔군요. 거기서는 철운이를 훌륭한 로동계급으로 키워서 꼭 대학에 보내주겠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후 성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굽혀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데 책임비서가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정민동무가 아직 동무때문에 속을 태운다는걸 아요? 내 보기엔 사랑때문에 마음쓰는 사람들은 대체 좋은 사람이더구만. 다시 만나보오. 아름다운 인간들은 응당 행복해지는것이 우리 사회의 본성이 아니겠소. 동무네두 달리 될수 없지.》

성순은 얼굴을 붉히며 황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맑고 푸른 하늘에서는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는데 그 하늘가엔 성순의 마음인양 흰 구름이 둥둥 떠가고있었다.

가사

한마음

차명숙

노을이 불라는 정든 탄전길
어깨도 나란히 일터로 가네
여기서 검은금 함께 캐자던
첫 언약의 그때처럼 나란히 견네
그이는 채탄공 나는 전차운전공

운반은 넘려말고 탄만 캐라는
나의 당부 미덥게 받아주네
사랑넌친 그 진정 변함이 없어

첫 언약의 그때처럼 가슴뜨겁네
그이는 채탄공 나는 전차운전공

검은금 캐내며 정도 깊어져
화목한 가정 이룬 행복한 부부
조국위한 한마음 불태워가며
첫 언약의 그때처럼 한생을 살리
그이는 채탄공 나는 전차운전공

고향이여! 축복해다오

장원준

안녕히 계시라
이 셋째아들도 초소에 보내는 어머니시여
하많은 제자들을 바래우는 선생님이시여
빨간령장을 단 군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는 이 병사의
첫 경례를 받으시라!

축복해다오 벗들이여!
열일곱에 인사법도 달라진 우리
청춘은 군복을 입어야 아름답거니
펼 펼 날리는 군기아래
우렁찬 군악에 발맞추어 행진해갈
이런 멋이 없이야 그 무슨 청춘이라

축복해다오 고향이여!
내 하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야영의 길 떠나던
못잊을 이 역두에서
오늘은 푸른 배낭에 조국의 운명을 떠메고

초소로 떠난다
기적이여 울려라! 고향이여 잘있으라
이제 내 가슴엔 영웅의 금별 번쩍이려니

꿈결에도 잊지 않으리
내 이제 초소에서 잠복의 새벽을 맞을 때면
어머니는 조용히 이 아들을 그려보시라
한껏 여문 벼이삭엔 맑은 이슬이 흐르리
물안개 감도는 산허리엔 사과가 무르익으리

축복해다오 조국이여!
군복입은 이 아들의 첫 경례를 받아다오
김정일장군님 병사의 이 경례는
총대로 조국을 지켜갈 불같은 심장의 맹세!
내 기어이 통일병사-그 이름으로
네 품에 안기려니
잘있으라 고향아!
잘있으라 청춘 산천아!

(주제 87. 7. 22)

병사들처럼 사랑하시라

그애가 조국앞에
소중히 지니고사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시라
병사들처럼 뜨겁게
병사들처럼 순결하게

한그루 나무를 가꾸어도
병사들처럼 사랑하고
한떨기 꽃을 피워도
병사들처럼 사랑하시라

언제한번 조여맨 군화끈을
마음놓고 풀새도 없이
언제한번 달아오른 철갑모를 벗을새도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총잡고 지켜가는 땅, 지켜가는 조국

사랑하기에
그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검푸른 날바다의 갑문밑에
백리물길 굽이굽이에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기도 했거니

병사들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대 정녕 알려거든
그들이 구월산 절벽에 새긴
그 글발앞에 서보시라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
아 천만심장을 두드리는 글발이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로
조국을 안고사는
이 나라 대장부들

사랑하시라 그대가 누구이든
이 나라의 아들딸이라면
군기앞에 다진 군인선서로
조국앞에 한목숨 바쳐나선 병사들처럼
사랑하시라 어머니조국을 사랑하시라!

(주제 87. 7. 22)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창조

-장편소설 《백금산》을 두고-

리용일

오늘 우리의 소설문학은 온갖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문학만이 사람에게 대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생활인식의 믿음직한 수단으로, 문화정서적수양의 친근한 벗으로 될수 있다.》

우리는 얼마전에 나온 장편소설 《백금산》(김문창작)을 두고 무엇보다도 시대적사명감으로 가슴불태우며 자신에게 채찍을 든 엄격한 스승이 되어 요구성을 높이면서 시대정신을 작품에 반영하기 위하여 모대기고 탐구하는 소설가의 진지한 창작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소설에서 주목을 돌리게 되는것은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사상주제적과제이다.

시대정신을 단념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작품에 시대의 주도적흐름 시대의 본질이 비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는것이다.

의의있는 문제, 이는 누구나 쉽게 내세울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에 열렬히 공감하고 가슴불태우며 사색하고 탐구하는 작가의 경우에만 가능한것이다.

이 장편소설은 백금산영웅소대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참된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며 영웅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영웅의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는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영웅에 관한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시대의 영웅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기 많은 작품들에서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현시기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높이와 각도에서 영웅의 성격을 탐구하고 생활을 형상하여 제기한 문제를 의의있게 해명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우리시대 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을 새롭게 창조한 혁신적성파가 있다.

소설에 펼쳐진 이야기는 20여년전의것이지만 작가는 현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물고 오늘의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생활을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

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이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때에 사람들은 자주적인 참다운 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영웅의 나라로서의 위훈을 만방에 떨쳐갈수 있는것이다.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여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 과감히 뚫고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혁신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 영웅적현실을 떠나서 결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과 투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작품이 취급하고있는 생활은 비록 지난 시기의 이야기이지만 작가는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투시하고 오늘의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생활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고무하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설가의 적극적인 창작자세에 대하여 감득하게 된다.

시대정신의 높이에 선 소설가의 탐구정신은 이 소설이 지난 시기에 나온 수많은 로동계급주제의 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 시기 로동계급을 형상한 많은 소설들에서는 그들의 영웅적성격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창조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양하게 창조하였다.

물론 장편소설 《백금산》에서도 그들의 영웅적로력투쟁을 통하여 성격이 부각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상정신적기초는 자력갱생과 결사관철이라는 시대적높이에서 특징지어지고있다.

작품의 기저에 흐르고있는 이러한 시대정신은 작가의 앞선 장편소설 《탄부》의 경우와도 뚜렷이 구별된다고 말할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갱의 탄층을 남김없이 캐나가는 탄광로동계급의 생활을 통하여 나라살림살이에서 로동계급의 참된 량심문제를 제기하고있다면 장편소설 《백금산》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기어이 어버이수령님

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고야마는 과정을 통하여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견지에서 로동계급의 영웅성 문제를 해명하였다.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새 시대 로동계급의 영웅적 성격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진지한 탐구정신과 창작 자세는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를 안고있는 주되는 담당자인 주인공 철환의 성격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현시기 새 시대 로동계급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영웅의 집단주의적생명관, 혁명적인생관의 견지에서 영웅적성격이 발현되는 생활을 깊이 그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웅적위훈은 우연적인 계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을 개인과는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영원한것으로 여기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을 지닐 때에만 말은 혁명초소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울수있다.

혁명적인생관의 밑바탕에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무조건 관철하려는 참다운 충효심이 세차게 끓어친다.

따라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영웅적성격을 그리는데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무조건 관철해가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혁명적인생관, 투철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리는것이 필요하다.

소설의 주인공 철환은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모든것이 다 잘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주인공의 성격을 말미 적고 생각이 깊으며 말보다 실천이 앞서고 어려운 일에 제일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철환의 성격적개성을 생동하게 살리면서 해결하였다.

그것은 소설의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일관하게 그려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철환의 강렬한 사상정신적지향에 대한 형상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굴착기운전공을 하던 철환은 소대장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맡게 되었을 때 동요를 하다가도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때 그이앞에 다진 맹세를 돌이켜보고 나약한 자신을 타매하면서 새 결심을 다지는것이다.

현지교시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현지교시관철정형을 기록하는 책을 놓고 년간생산실적을 적으며 자책하는 철환의 사상정신세계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인가.

말은 적게 하여도 가슴속에 불타는 충성심을 간직한 그의 개성은 얼마나 생동하게 느껴지는가.

이러한 철환이기에 소대가 낮은 굴착기를 개조하여 끝내 국가계획을 넘쳐 완수했을 때에도 아직은 현지교시 지표수준에서 생산을 못했다고 자책에 잠기는것이며 드디어 소대가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대올타리를 벗어나서 광구적인 범위에서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문제를 생각하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이야말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드림이 생겨도 가책과 모태김속에 안타까와하는 진짜배기 충신의 모습이 느껴지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광산적으로 현지교시를 관철하는데서 2.8광구를 추켜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섰을 때 철환이네는 스스로 어려운 그 일을 자진해나섰으며 굴착기를 통채로 이동시킬 대담한 안을 내놓고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해제키는 영웅적위훈을 발휘한다. 이 영웅적위훈은 철환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이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투철한 사상정신세계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것이다.

여기에는 오늘 일군들이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일할데 대한 시대의 목소리도 비껴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오직 수령님을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삶의 목표, 생활의 전부로 삼고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가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가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시대적높이에서 일관성있게 그림으로써 영웅주인공의 혁명적인생관을 오늘의 견지에서 감동깊게 펼쳐보였다.

영웅주인공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그리는데서 눈길을 끄는것은 영웅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진실한 형상이다.

원래 인간의 성장과정은 하루이틀사이에 갑작스레 이루어지거나 한두번의 생활적계기를 통해 쉽사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영웅으로서의 성장도 생활의 우여곡절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가며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간직해가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우리 시대 영웅으로 자라나고있다.

따라서 소설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와 결부시켜 다양하게 굴절되는 혁명적실천투쟁과정, 성장과정을 그릴 때 우리 시대 영웅의 참 면모를 드러낼수 있다.

주인공 철환이 영웅으로 자라온 자욱자욱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자애로운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사랑과 보살핌이 고여있다.

일찌기 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철환이를 비롯한 광부들을 만나시어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세계적인 광산으로 만들자고, 제대군인들을 믿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기에 철환은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보람찬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가 소대장사업을 시작하면서 난관앞에서 동요할 때에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떠서도록 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었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광구당비서의 따뜻한 일깨움이였다.

선동원대회에서 그들이 해놓은 일을 료해하시고 소대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을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들을 부르시어 동무들이 하고있는 일이 바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일이며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더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위훈의 바다가 되여 철환이네들은 다른 소대까지 도와주는것이며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온 광산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들조차 잘 모르는 7호굴착기의 크지 않은 소행을 하나하나 료해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고 철환이네 소대를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고 굴착기소대전원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소설은 소대원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게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작품은 우리 시대 영웅들의 성장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생동하게 밝혀냄으로써 영웅의 성격적특징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감동깊이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영웅으로 자라나는 철환의 성격을 그 자체에 머문것이 아니라 많은 영웅들을 키워가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펼쳐나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영웅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 영웅주의는 대중속에서 생활화, 보편화되고있다. 이것은 비범한 기질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영웅으로 되어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런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철환

의 성격을 형상한것이다. 소대장 철환은 선동원 립정희와 손을 맞잡고 서로 다른 나이와 생활경력과 장점과 약점이 있는 소대원모두를 광산에서 손꼽히는 로력혁신자, 위훈의 창조자로 키운다.

자유주의가 심하고 말썽많은 류혁을 위해 철환이 속을 태우며 잠못든 밤은 얼마였고 그를 위해 곁은 곁은 얼마였던가. 달아난 안해때문에 안착이되지 않은 양견이를 위해서 평북도에 있는 그의 처가집에까지 가서 일을 바로잡는 철환이였고 지난날과 오때문에 마음속고충을 안고 사는 강정식을 도와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도와주는 철환이었다.

그의 노력으로 소대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집단으로, 공산주의소대로, 모두가 가슴에 금별메달이 빛나는 영웅적투쟁의 선구자로 되었던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영웅이 영웅을 낳고 모두가 영웅으로 자라나고있는 우리의 위대한 현실의 진실한 반영을 통하여 영웅을 키워가는 철환의 영웅적성격의 새로운 면모를 그려내였다.

작품이 주인공의 새로운 성격적특징과 소대원모두가 영웅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형상적요인의 하나는 영웅을 그린다고 하여 비범한 기질을 가진 특수한 존재로 그린것이 아니라 보통인간, 평범한 사람들로 그리면서도 그들의 성격적개성을 두드러지게 형상한데 있다.

사실 일부 소설들에서는 영웅적인 주인공이나 긍정인물들을 모든면에서 완성된, 현실을 초월한 리상화된 인물로 개성이 느껴지지 않게 형상하는 결함이 있었다. 그 경우 주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은 산 인간으로 안겨오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외의 인물이나 부정인물들이 더 독자들의 인상에 남는다.

장편소설 《백금산》에서는 철환의 출신과 생활경력을 별로 뛰어나거나 특이한데가 없이 평범한것으로 그리면서도 영웅의 성격이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그린것이다.

해방전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얹혀살던 철환은 전쟁이 일기전에 수류탄을 깎는 선반공일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싸웠다. 더군다나 침착하고 과묵하고 속이 깊으면서 책읽기를 즐기는 그의 성격적특징은 독자들로 하여금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산 인간으로 느끼게 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적바탕은 결코 철환이뿐아니라 선동원 정희나 류혁이, 영기 등 소대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려졌다.

이로 하여 소설에서는 전체가 영웅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평범한 인간들이 영웅으로 자라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시대 영웅들의 새로운 특징을 생동하게 펼쳐보일수 있었다.

장편소설 《백금산》은 로동계급영웅들의 성격

적특징을 참신한 형상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진실하고 원만하게 그리고있다.

여기에서 또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영웅들의 성격을 창조하려는 소설가의 높은 탐구정신과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백금산로동계급의 생활을 밝고 산뜻하고 명랑하면서도 락천적인 정서가 흐르도록 펼쳐보인것이다.

소설에 펼쳐진 생활무대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노래하며 새들이 우짖는 곳도 아니다. 번화한 도시를 가까이한 공장도 아니다.

외파르고 협소한 백금산의 골짜기가 그들의 생활무대이다. 여름이면 피약별을 피할수 있는곳이 굴착기그림자가 고작이며 겨울이면 착암기가 손에 짝 짝 얼어붙고 칼바람이 불어치는 800미터의 산정에 있는 로천채굴장이 그들의 일터였다. 여기서 일하는 일이란 돌을 캐내고 싣고 부리우는 단조롭고 딱딱한것이다. 흔히 이러한 생활을 그린 작품들에서 자칫하면 성격을 거칠고 투박하게 하고 형상을 침침하게 끌고가는 결함을 범하기 쉽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꽃피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활세계를 탐구하여 그를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가고있다.

소설에서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간들의 투쟁도 있고 랑만도 있으며 사랑과 눈물도 있다.

철환이가 부모없는 류혁을 친형의 심정으로 돌봐주며 불구인 그의 동생까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키워주는 사실을 비롯하여 소대원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는 얼마나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소설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들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세계만 그린것이 아니라 철환이와 정희와 같이 긍정인물들사이에 오가는 인정세계를 그려내어 서로 돕고 이끄는 생활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였다.

선동원 정희, 영기, 강정식 등 모든 소대원들이 집단을 위해 바치는 맑고 따뜻한 인정세계, 인간세계를 기본으로 생활을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부정인물의 경무조차도 밝고 아름답게 형상하였다. 락후분자인 류혁의 경우 거칠고 어두운 측면보다는 융접기술이 높고 자존심이 강하며 의협심이 있는 긍정점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떻게 집단을 위한 일에 바쳐지는것으로 되는가를 기본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여러쌍의 부부들의 생활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살뜰한정이 넘치고. 락천적인 인정세계가 펼쳐지는가.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우려 애를 쓰며 음식 한가지

라도 구미에 맞게 해주려고 원심을 쓰는 철환의 처함순화, 우들거리며 언성이 높지만 기술지식있는 남편을 공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남편일을 돕는데 발벗고 나서는 성학의 처 그리고 양건이와 영순의 생활도 리혼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관계이지만 그조차도 그들의 참인간됨이 안겨오게 밝게 그리었다.

소설에서는 밝고 랑만적인 정서가 넘쳐나는 기름진 생활장면들도 쉽게 찾아볼수있다.

현지교시기념일이나 설명절이면 가족까지 모여 온 소대가 하루를 즐기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생활, 신혼부부 양건이네 집을 꾸러주는 장면 음식을 해이고 남편들을 찾아와 고무해주는 고무해주는 안해들을 보여주는 생활, 돌판우에 선전실을 짓고 흙을 메울려다가 꽃을 가꾸어 문화생활을 하는 소대를 보여주는 밝고 락천적인 생활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싶은 충동을 가지게 한다.

정녕 서로돕고 이끄는 화목한 한집안, 한가정처럼 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기도 한것이다.

밝고 명랑하게, 락천적으로 펼쳐진 소설의 이 생활들은 독자들이 우리 로동계급을 더없이 아름답게 키워주는 우리 사회주의제도, 모두가 친형제가 되어 화목하게 사는 우리 사회주의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이 조국을 목숨바쳐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게 한다.

소설에 형상된 생활은 작가가 현실에서 어둡고 침침한 부정적인것보다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이 비껴간 긍정적인것, 아름다운것, 참된것을 기본으로 보고 사색하고 탐구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소설의 형상세계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생활을 인물들의 개성적성격이 생동하게 두드러지도록 펼쳐보인것이다.

소설에서는 장면묘사 하나를 해도 철저히게 인물들의 성격적개성이 두드러지게 묘사하였다.

소대원들앞에서 철환이 인사소개를 할 때 각이한 반응과 표정을 보여주는 장면묘사, 류혁이가 정희와 함께 제동띠를 구하러 갔다올 때 서로의 심리를 보여주는 묘사, 소대에서 굴착기팔 개조문제를 토의할 때의 장면묘사만 놓고 보더라도 소대일에는 관심이 없고 소심하나 기술지식이 있고 책을 즐기는 리성학, 거칠고 뻔이 세며 성미가 빠른 류혁이, 솔직하면서도 일욕심많은 양건이들의 개성이 생동하게 나타나게 처리되었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적개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생활을 전개시키고있다. 그것은 말썽군이었던 류혁이나 기술학습을 싫어하던 양건이, 지난날의 파오를 안고 위축되어 생활하던 강정식이들의

개진과정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 인물들의 성격적개성이 뚜렷한것은 인간관계를 특색있게 형성한데 그 요인의 하나가 있다.

철환이에게 있어서 늘 엇나가면서 말썽을 피우는 류혁이는 큰 골치 거리였다.

그러나 철환은 류혁이가 다른 소대로 가겠다고 엇설 때에도 보내지 않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양한다. 대담하게 그에게 굴착기팔 용접을 맡기며 생일상을 본인 몰래 차려주는가 하면 부모없는 그의 결혼식 첫날옷감까지 마련해두고 불구였던 그의 동생까지 데려다가 키워준다. 그들의 관계는 소대장과 소대원의 관계이지만 철환은 그와 마주앉아 꾸중을 하거나 타이르기에 앞서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바쳐 도와주는것이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말이 없고 속이 깊고 진실한 철환의 성격, 고아로 자라나 거칠면서도 진정어린 인정에는 머리를 숙이는 류혁의 성격적개성이 생동하게 두드러진다.

선동원 림정희와 류혁의 관계 또한 이채롭게 형성되었다. 둘사이의 관계는 교양을 하고 교양을 받는 관계이지만 많은 소설들에서처럼 그것으로 끝나게 형상하지 않았다.

류혁의 가슴속에 정희에 대한 사랑이 싹터오르는것으로 형상하였다.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참된 인간으로 준비해가는 류혁이.

이들의 관계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거칠은 성미

를 가졌던 류혁이가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을 개성적특징에 맞게 보여주었다.

소설의 형상세계에 대한 탐구는 구성상특성을 두고도 말할수 있다.

크게 3편으로 나뉘어진 소설의 구성은 명백하고 진실하다. 주인공이 소대장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공산주의소대》, 《영웅소대》로 되기까지의 생활을 기묘한데가 없이 순탄하고 진지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는 과묵하고 진중한 철환의 성격에도, 참된 영웅에 관한 문제해결에도 적중한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상적특징들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영웅들의 새로운 성격적면모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드러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장편소설 《백금산》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형상세계에 대한 탐구에서 비록 지난날의 생활을 취급하고있지만 오늘날의 영웅적현실, 벽찬 시대의 숨결이 작품에 맥맥히 흐르게 하기 위하여 모대기는 소설가의 진지한 창작자세를 보았다.

소설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형상에서 혁신적작품으로서 소설가들에게 일련의 긍정적인 창작경험을 주고있다.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작가들을 보다 새로운 창작성파로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치마주름

(총련) 강명숙

치마주름을 잡는다
이불밑에 고스란히 깔아서
저고리치마의
주름을 잡는다

치마주름을 잡는다
비를 맞아서 흠어진 주름을
한오리 한오리
잡아간다

치마주름 잡으면서
되새겨본다
오늘아침 버스정거장에서
너를 굶다고 칭찬해준
일본아주머니의 말을

치마주름 잡으면서
되새겨본다
악랄한 칼질에도
굴할줄 모르던
너의 용기를

어머니가 언니에게 전하고
언니가 나에게 배워준
그 숨씨 그대로
한오리 한오리치마주름을 잡는다

하나의 구김새도 없는
말썽한 너를 입자고
이밤도 잡는다
치마주름을 잡는다
곧바른 마음으로

3. 8 국제부녀절 새벽에 외 1 편

박영

아직은 단잠에 든
안해와 아이들의 고르로운 숨결소리
정깊이 들려오는 이 새벽
내 서둘러 부엌에 나섰노라
아침밥을 지으려

안해의 세심한 손길에
다 준비되어있는 부엌일이건만
잠시 서성 이다가
내 덥석 쥐여든것은
쌀함박

쌀을 일어가니 알겠구나
이런 땀 남편과 아이들의 식성을 놓고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놓고
안해는 자신의 다심한 마음도
함께 일어났다는것을

칼도마소리 울려보야 알겠구나
남편과 자식들이 깰세라
늘 마음을 쓰며
칼도마소리도
농쳐갔으리라는것을

래일은 3. 8국제부녀절이니
아버진 어머니를 위해 무얼하겠나던

아이들의 그 물음에
이 아버지 기껏 한다는 소리
아침밥을 지으려다였으니

부엌에 서니
이렇듯 마음속에 마쳐오는가
하루도 아닌 한생을
이 부엌을 초소로 삼아
사랑의 땀방울 흘려온 안해의 수고로움...

《고난의 행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이 나날에
안해의 수고로움 얼마나 큰것인가를
안해의 수고로움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겨가는 새벽이여

이제 얼마 있으면
어김없이 제시간에 일어날 안해를 위해
내 일손을 다그쳐가며
뜨거운 호칭을 마음속으로 부쳐보노라
-조국앞에, 혁명앞에
한가정의 살림을 스스로 말아나선 사람
사랑하는 안해여
소중한 사람이여
우리 가정의 뜨겁고도 열렬한
없어서는 안될 어머니여!

총탁에 대한 추억

우리의 로병들
못잊을 추억의 갈피엔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네
총탁에 대한 추억도

원쑤의 앙가슴 맞구멍넌
그 시각에
총탁이 없다면
명중의 총탄을 날릴수 없었기에

번개불 이는 백병전의 그 시각에
총탁이 없다면

원쑤의 대갈통
단박에 박살낼수 없었기에

그것만이 아니라네
우리 로병들의 위훈에 찬
그 추억의 갈피속에
총탁, 총탁이 뜨겁게 간직된것은

전화의 그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올린
충성의 맹세문에 수표를 할 때 쓰던
전호가의 작은 탁상이였기때문이라네